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이자가 오르면 오른금리로 내립때는 약정금리로!
*교육자금,주택자금,경조사자금,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월 24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사업에 실패한 기업주나 입시에 시달리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하면 최근 인기를 누리던 가수들이 잇따라 자살했다. 이를 계기로 생명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 〈편집자 주〉

생명존엄

어떠한 생명이든지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다른 생명도 저마다 소중히 여긴다. 〈상응부〉

그릇을 내몸과 비교해 보아라. 산 생명을 죽여서는 안된다. 또 남을 시켜 죽이게 해서도 안된다. 〈숫타니파타〉

사문은 생물을 죽이지 않고, 생물을 죽이게 하지 않으며, 생물을 죽이는 일에 함께 하지 않는다. 〈중아함 우담바라경〉

목숨 있는 것을 제가 죽이거나 수단을 써서 죽이거나 창찬하여 죽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워 죽여서도 안된다. 〈범망경〉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하지 말라. 〈대법구경〉

보살은 항상 자비스런 마음과 공손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이웃)을 구원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방자한 생각과 통제한 마음으로 산것을 죽인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 〈범망경〉

금생에 괴로우면 내세에도 괴로움을 받는다. 이 괴로움은 악업의 과보이나 다시 또 다른데서 괴로움을 받게된다.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 잡사 자섭송〉

부처님의 제자 박칼리가 자살을 했다. "박칼리의 몸을 싸고 사방을 도는 어두운 모양을 보는가? 이것은 악마의 형상이다. 이것은 박칼리의 식신(識神)이 장차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를 찾으면서 돌아 다니는 것이다. 박칼리의 식신은 머무르지 않는다. 칼로써 자살하였기 때문이다." 〈박칼리경〉

너는 인간에 있을때 아이들이 살생하고 고기먹는 것을 돕거나 기뻐하였으며 살생한 까닭에 목숨이 짧고 기뻐한 까닭에 괴로우니라. 이제 똑같은 과보를 받고 지옥에 들어가리라. 〈귀문목련경〉

한 번 태어나는 것이거나 두 번 태어나는 것이거나 이 세상에 있는 생물을 해치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숫타니파타〉

욕심으로 화냄으로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산 것을 죽인다는 것은 모두 그 죄가 크다. 〈정법념처경〉

관련기사 2면

인사 고과제 의제법 개정 종무원 포살법회

조계종 수행풍토 새바람

종무행정 혁신 · 신도증 발급…2억 고료 불교문학 공모도

조계종은 신년부터 승풍진작과 신행및 종무행정 혁신을 단행키로 해 교계 수행풍토의 새 바람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은 지난 16일 중앙종무기관 신년계획 기자회견에서 의제에 따른 승가위계질서를 세우는 한편 중앙종무원을 대상으로 포살법회를 가지며 본말사 주지 임용규정을 제정 인사고과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종무계획에 따르면, 조계종은 종무행정의 혁신(종무원), 승가 교육기관의 재편(교육원), 청소년포교의 활성화(포교원)를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승풍운동등전개 △각종 업무관람제작 △청사건립 △학림·특수학교개설 △대정부 현안문제 해결 △불교방송국 지방망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종무원장 월주스님은 "승풍진작을 위해 종무원에서 매달 마지막날을 정해 정기적으로 포살법회를 실시해 수행풍토에 모범을 보이며 이를 본말사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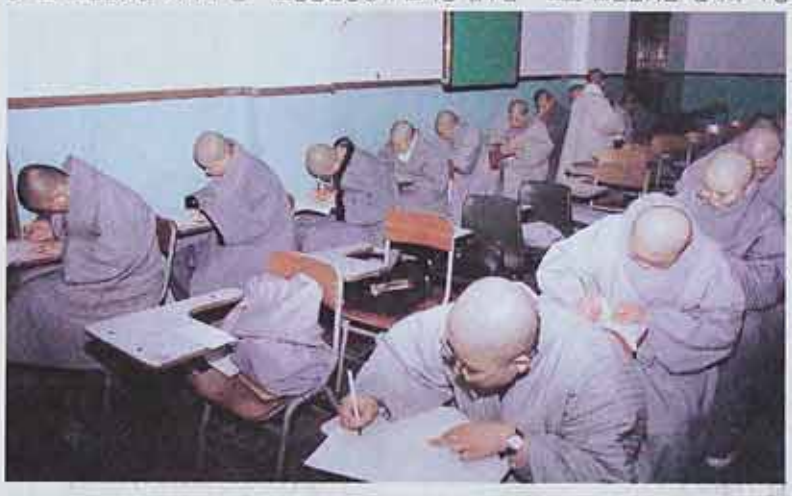
또한 "사문화되어 있는 의제법을 개정하고 빠르면 금년내에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의 의제를 바꾸어 의제에 따른 위계질서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계종이 밝힌 신년 종무계획 가운데는 인사 · 재무행정혁신으로 종무기관의 제자리 찾기를 시도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조계종은 공청한 인사행정을 위해 이달중으로 본말사주지임용규정을 입법예고하고 수행, 포교실적, 재교육현황등을 기록할수 있도록 승적부를 개정해 인사고과제도를 정착할 방침이다.

재무행정으로는 중앙종무기관간의 전산망구축(LAN)이 완료되는 2월부터 복식부기를 도입해 정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단경영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조계종이 종무행정혁신에 역점을 두고 있는것은 지난해 교육,포교부문의 전문화로 3원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행정업무를 정상화시켜 명실상부한 집행부의 역할을 담당하기위한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한편 월주스님은 "문학의 해를 기념해 시, 소설, 시나리오, 평론등 전분야에 걸쳐 2억원고료로 불교문학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스님들도 긴장" 96년 대학입시에 눈부른 남자들도 도전장을 냈다. 지난 18일 동국대 불교대학에 지원한 20명의 스님들은 스스로를 "학생"이라고 대중을 교화하겠다는 원력으로 혼신을 다해 시험에 응했다. 〈동국대=고영배 기자〉



2540

'불교청소년의 해' 조계종 23일 선포

조계종 포교원은 23일 불교청소년의 해 선포식을 갖는다. 이에 앞서 청소년의 해 상징도안 (사진)과 표어 '밝은 세상 청소년 세상 부처님 세상'을 최종 확정했다.

고속철 경주통과 반대 서명 15만명

백지화추진위, 명단 · 우회노선 청원서 대통령에 곧 제출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서명 참여인원이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만에 1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6일 현재 15만 4천7백53명에 이르며, 후원성금도 3천27만원이 모아졌다. 〈관련기사 2 · 14~18면〉

추진위원회는 반대서명이 15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이후에는 결의대회 걷기대회를 비롯한 대중집회, 인터넷을 통한 세계각국의 협조 의뢰등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대해 이기영 추진위원장은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 재계의 지도급인사들을 추진위원으로 영입, 조직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서명운동이 주목표였다면 이후에는 경주통과 반대를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명부를 첨부 대통령과 국무총리 건교부장관 문책부장관 국회의장에게 곧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서명에는 수덕사 방장 원담스님과 월주 조계종총무원장등 불교계 지도급인사와 2백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특히 천태종은 3만3천여명이 서명이 참가해 종단의 조직적인 참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각계의 성명도 잇따랐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경주도심 15Km밖 우회노선을 정부측에 제시해놓고 있다.

"경주문화 이렇게…"

생명민회 토론회개최

생명민회(대표 김지하)는 지난 19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경주문화는 왜보존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주문화, 이렇게 만들어가자'(강태호 · 동국대교수) '경주문화는 우리에게 무엇인가'(이선복 · 서울대교수) 발제에 이어 김진무(문화재관리국장) 박광서(서강대교수) 이중한(서울신문 논설위원) 허권(유네스코한국위)씨 등의 약정토론과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또 경주도시 발전연구소(소장 김재석 · 경북산업대교수)도 26일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대불교 인도 성지순례단 모집

4차 2월 4일 출발

"새해 성도절을 부처님 땅에서…"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4대 명절 가운데 가장 거룩한 날인 성도절을 부처님의 땅 인도에서 맞이하고자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80 생애를 고스란히 간직한 인도성지는 불교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우리들에게 깨달음과 자비의 실천이 무엇인지 일깨워줄 것입니다.

1월 초순부터 준비해온 본행사는 현재 불자님들의 성원으로 3차까지 마감되고 4차 순례단을 모집중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협 찬 : 해초여행사(성지순례전문업체)
여행장소 : 인도-네팔:녹야원, 보드가야, 라지기르, 바이살리, 쿠시나가라, 기원정사, 룸비니등
기 간 : 9박 10일(4차-8박 9일)
참 가 비 : 155만원(4차-148만원)
접수마감 : 선착순
출발일정 : 1차/96. 1. 17 접수마감, 출발
2차/96. 1. 24 접수마감
3차/96. 1. 31 접수마감
4차/96. 2. 4 접수중
여행조건 : 1급 호텔, 1급 관광버스, 전문 안내원 동행, 한식 전문 요리사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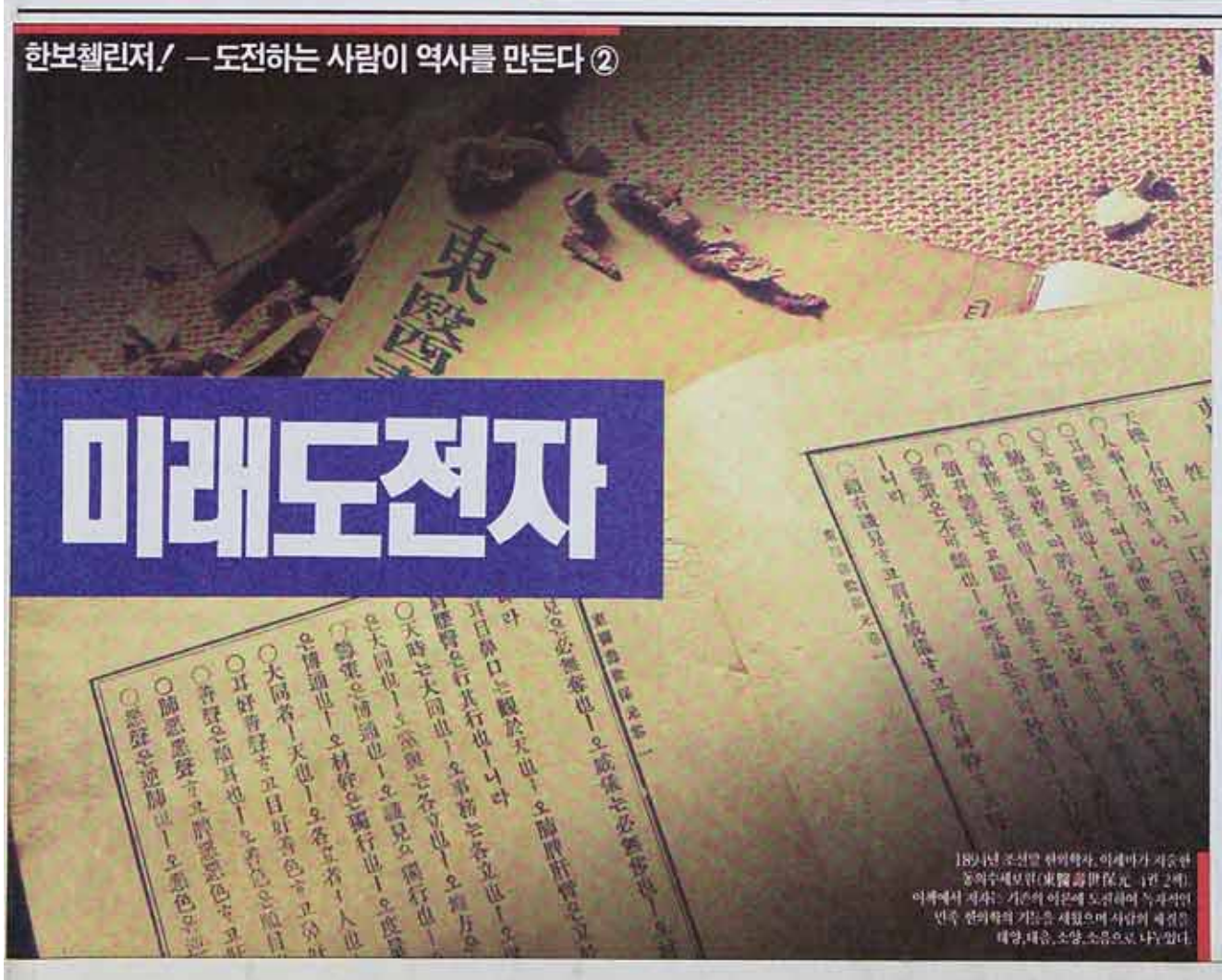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02)737-8881

성도절 특집
깨달음을 주제로 한 지상법석 10 · 11면
불교 성지 보드가야 사진순례 9면
네팔 세츄 린포체 특별인터뷰 3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한보철린저! — 도전하는 사람이 역사를 만든다 ②

미래도전자



18세기 조선의 한의학자, 이제마가 저술한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1권 2책). 이책에서 저자는 기존의 이론에 도전하여 독자적인 민족 한의학의 기틀을 세웠으며 사람의 체질을 태양,태음,소양,소음으로 나누었다.

세상에서 가장 독창적인 사상의학(四象醫學) —
21세기를 준비하는 한보인의 의지입니다.

진취적인 연구로 건강사회를 연 이제마!
국수도 마다하고 의학연구에 몰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환자를 체질에 따라 넷으로 나누고 그에 맞게
써야할 약의 종류와 처방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이제마.
그는 〈동의수세보원〉에서 민족의학의 주체성과
현대의학에서도 보기드문 환자중심 의학의 골격을 만들었습니다.

미래도전으로 풍요한 삶을 열어가는 한보!
한보는 일찍부터 나라의 백대를 생각하며 우리사회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기업경영을 펼쳐 왔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맞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개발에 앞장섭니다.
철강,건설,에너지에서 제약,환경,교육에 이르기까지 —
이제, 한보가 더 큰 21세기를 향해 도전합니다.
국민과 함께 풍요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한보그룹

21세기에 도전하는 한보,한보인
건 설 초일류인 국토 개발과 근대합리의 새로운 신화가 한보에서 시작됩니다.
제 약 질병없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보는 신약연구 개발에 힘써가겠습니다.
교 육 기업이윤을 사회로 환원시키고자 한보는 명실공히 대학을 통해 사회의 동량이 될 보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철 강 한보철강이 만드는 철강이래 대업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지하와 약실, 열사의 사막에서 에너지 대국의 꿈을 착실히 실현해 갑니다.
정 보 미래도시라는 구현하고 있는 한보정보통신이 미래 정보화 사회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공 학 종합엔지니어링은 사람이 중심이라는 확신에서 설계와 설계 시공으로 21세기 인간복지 실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 설

'15만 민심' 외면말라

지난해 정부당국이 고속철도의 경주도심통과를 발표하자마자 본지는 "경주의 문화유산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지"라는 인식아래 "고속철도 노선을 즉시 변경하라"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본지 48호 참조).

그후 불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유수단체들이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범국민적 계몽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미 이에 동참한 연대 서명자가 15만명을 넘어섰다.

한편 이러한 범국민적인 경주지키기운동은 불교계 원로스님들을 비롯한 종단이나 문화재 전문가들의 성명서에서도 그 정당성이 확인된 바 있다. 특히 문화재에 관한 국내 최고의 정책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전체회의의 결의를 통해 건설교통부의 고속철도 경주통과 방침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문화재위원들은 성명서에는 "경주의 소중한 민족유산이 고속철도건설로 파괴된다면 역사에 대한 큰 죄를 짓는 수치스런 일"이라고 개탄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6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와 팔만대장경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현재 경주전체를 지구촌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당국과 경주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앞서 지적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이 집약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부처간의 대립·갈등을 더이상 보이지 말고 기존 고속철도의 경주통과방침을 백지화하는 동시에 하루빨리 새노선을 확정하라. 이제 더이상 행정편의나 경제논리를 앞세운 개발우선정책을 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복지정책을 최우선의 국가지상목표로 삼아야 한다. 경주는 고도(古都) 그대로 원형 보존되어야 한다는 관계전문가와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용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세계화구호와 국제화·개방화시대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규율을 잘 지켜야 한다. 이미 경주의 성보문화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공인되어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네스코 제17차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문화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도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경주는 세계유산이며, 고속철도경주통과는 문화재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고 경고하였다. 아울러 이 위원회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표명한 점을 주시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이번 기회에 고도보존법, 문화시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민족문화유산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특별 보존하면서, 그곳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없애고 불이익을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보존의 중요성을 교육홍보하는 일도 정부의 몫이다. 일시적인 선거공약이나 선거의 제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넷째, 경주시민들은 세계문화유산이요 민족정기의 중심부인 경주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모범적인 문화시민의 자긍심을 발휘해야 한다. 경주가 살아 숨쉬는 역사박물관이며, 분별없는 개발정책이 경주의 역사적 맥을 끊게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경주는 '개발'보다는 '보존'이 경제적으로도 더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다. 경주의 발전은 개발로 폐허가 되는 것 보다는 반만년 민족문화유산을 잘 지켜 대대손손 물려주는 것임을 다시한번 명심하자.

열 린 마 당

청소년 자살

인기에 집착한 연예인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연예인을 우상처럼 여기며 비관자살하는 청소년, 학원폭력과 성적을 비관한 청소년. 이들이 고귀한 생명을 버리는 요인은 어디에 있고 미연에 방지할 수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편집자 주〉

인간존엄성·자아 상실이 원인

도 각 〈참나선원 원장〉



청소년의 법적인 나이는 9세 이상 24세 미만으로 전체인구의 약 29.5%를 차지한다.

그 중 감수성이 예민한 중기 청소년(15세~19세)이 전체의 약4백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가장 많이 유발할 소지가 있는 연령으로 볼 수 있다.

연예인들의 공연장에서 청소년들이 괴성을 지르거나 졸도하는 것을 TV나 컴퓨터를 통한 간접경험을 하다가 마치 종교인이 그 신앙대상인 불·보살이나 하나님 또는 예수를 직접 만나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심리적인 충격을 받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그들을 모방하여 자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만연돼 있는 물질만능으로 인한 인간존엄성의 황폐와 자아의식의 상실로 볼 수 있으며, 철저한 개인 중심적 사고가 낳은 이리석은 행위임을 재인식시켜야 한다.

종교인들이 앞장서 건전한 여가선용운동 전개와 더불어 따뜻한 관심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청소년 고민 이해하도록 노력

정 미 나 〈목동청소년회관 상담원〉



최근 여러 이유로 청소년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자살의 사연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이였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을 접어 두고라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들의 죽음은 청소년에 관심을 가진 성인의 한 사람으로 걱정이 앞선다.

청소년시기는 통제력이 약하고 충동적이며 동시에 타인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 기도에는 많은 이유들이 그 동기로 나타난다. 스트레스로부터의 탈출, 스트레스 상황의 회피, 자신의 절망을 타인에게 보이는 방식, 타인과의 관계 회복, 타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극적인 노력 등이 그 원인이 된다.

본 상담자가 면접한 청소년중 자살을 생각했거나 기도해 본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은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가진 학생보다는 부모나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무시, 소중한 사람과의 분리나 상실의 경험이 극단적인 방법인 자살을 생각하게 하였다고 했다.

부모가 사소하게 무시하는 청소년과의 갈등상황 중 하나가 그들에게는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의 고민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안타까운 죽음을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아로 분류말고 인격 인정

한 성 우 〈학생·북일고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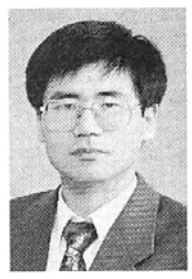


우리들의 꿈과 야망은 우주보다 넓고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주변현실은 이러한 꿈과 야망을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아무 걱정하지 않는 모범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요즈음 가장 인기있는 야구 농구를 비롯 취미활동도 맘껏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합니다. 주위의 친구들을 보더라도 학업·이성·가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자살을 한번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학교에 나오기 싫어하거나 나오지 않는 학생들까지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무작정 비행청소년이니 선도의 대상이라든지 운운하면서 점점 문제아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해해주고 공감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의견



김 진 성 〈영남대 의대교수〉

"자살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의 시작임을 알아야"

최근 인기 가수들과 예쁜 여학생의 연이은 자살은 교육과 문화등 사회의 여러 분야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억지로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은 도대체 그 의지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잘못된 삶의 한가지 행동양식이 아닐까? 죽으려는 환자에게 필자는 우선 성철스님의 〈영원한 자유〉라는 법문집을 권한다. 자살로 인한 죽음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더욱 큰 고통의 시작일 뿐임을 알게 하고,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볼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권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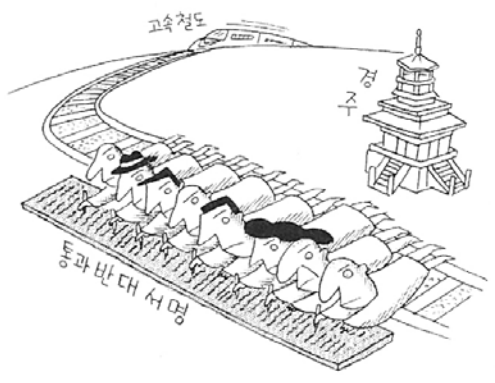
대부분의 사람은 본래 정말로 살고 싶어했고 죽으려는 순간에도 내심으로는 살고 싶어한다. 죽으려다가 깨어난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을 크게 후회한다. 자신은 남들에게 사랑받고 귀한 존재로 여겨지고 싶었는데 뜻대로 잘 안되고 오히려 그럴수록 남들은 자신을 배척하니까 기가 막힌다는 것이다. 나에 대한 욕심(我相)이 오히려 나를 망치게 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속에서는 울화통이 터지고 쌓일수록 깊이 깊이 스며들며 자신을 무시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들게 되고 화는 종종 남들을 괴롭힌다. 남들은 더욱 자신을 멀리하게 되니 자신은 그 화를 자신의 질병으로 바꾸거나 심하면 자살하기에 이른다.

남들로부터 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 "자신은 남들로부터 당연히 사랑받아야 된다"는 욕심과 교만심은 나아가 타인과 자신에 대한 파괴를 초래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잔뜩 빚만 지고 가버리는 것이다.

세상에 태어나서 서로를 살리려고 애를 쓰더라도 모든 생물이 죽어가는데 하물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사람이 정말로 세상의 고통을 아는 것일까? 죽어버리고 싶다는 것은 자신속에 고통이 생겼다는 뜻이며 그 고통은 정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경험해야 되는 하나의 담금질 과정이며 고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겪고 나면 고통은 소멸되어 없어진다. 본래 잘 살아보려는 의지가 뒤집혀서 죽어버리려는 욕구로 나타난 것인 줄 알아야 하고, 성인의 말씀은 우리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현대만평

박구원



제2의 팔만대장경이…

목어

요즘을 일컬어 '불사(佛事) 홍수' 시대라고 하면 과언일까.

"법당을 중창합니다."
"요사채를 새로 짓습니다."
"양로원을 세웁니다."
"유치원을 건립합니다."
"미륵대불을 모십니다."
"3천불을 봉안합니다."
"대구·청주에 방송국을 개국합니다. 지역불자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미국에서 FM방송으로 불음을 전하고 있는데 AM으로 전환하고 시간도 늘리려면 경비가 배로 듭니다. 고국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북한 수재민에게 쌀을 보냅시다. 동포애를 발휘합시다."

0순위 불사

불교TV는 주식공모에 화주책을 들고 나섰다.

"불교TV의 주주가 되어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펴는 사업을 잘 경영하여 꼭 이익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중생을 교화하는 부처님의 사업이 불사라고 볼 때 불사는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다보면 불사내용도 달라지고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도 좋을 순위가 있다고 본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다. 포교도 최첨단 뉴미디어화 해야만 제몫을 할 수 있다. 개 사찰에 법당을 세우고 불상을 봉안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대중의 가슴에 동시에 법당을 짓고 부처님을 모시도록함은 시대에 어울리는 더 급한 불사다.

4부대중 모두 0순위 불사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불사에 동참하여 0순위 전법사가 될 때 한국불교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알 림

'맑고 향기로운 가정만들기' 특별대담

현대불교는 맑고 향기로운 모임(회주 법정스님)·불교방송과 공동주최로 맑고 향기로운 가정만들기 특별대담을 갖습니다.

'법정스님과의 만남'으로 이계진(언론인·26일) 공종원(조선일보 논설위원·2월2일) 박광서(우리는 선우 공동대표·서강대교수·2월9일) 진명스님(맑고 향기로운 모임 사무국장·2월16일)과 연속 4회의 대담으로 진행됩니다.

본지는 다음주 신문(63호)부터 지상중계하며 불교방송은 26일부터 2월1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20분~12시에 방송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996학년도 동방불교대학 신(편)입생 모집요강

(佛敎學科 · 梵唄科 · 佛敎美術科) 4년제, 2년제 및 통신과정 병설

1982년 설립되어 불교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본 대학은 4년제 대학교육체제와 종합적인 불교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뜻있는 불자들의 입학을 바라고 있습니다.

1. 모집과 및 모집인원

학 과	교 육 내 용	모 집 인 원	비 고
불교학과	불교포교와 불교경전을 교육	60명(통신생포함)	4년제
범패과	불교의식론 및 전통불교의식인 상주권공을 교육	15명	2년제
불교미술과	전통불교미술 교과를 교육	20명	4년제

2. 응시자격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불교 강원 사교과 이상 수료자
(3)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3. 전형방법
(1) 필기시험(불교상식, 공통), 실기시험(불교미술과) 및 면접(공통)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1월 15일 ~ 2월 23일
(평일은 10:00 ~ 17:00까지, 토요일은 14:00까지, 공휴일은 휴업함)

5. 전형일자 : 1996년 2월 25일 (일) 10:00 ~ 18:00

6. 전형장소 : 본 대학 강의실 및 실기실

7. 합격자 발표 : 개별 통지

8. 제출서류
(1) 입학원서 (소정양식) 1통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통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4) 주민등록 등본 1통
(5)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통
(6) 반명함판 사진 6매
(7) 전형료 : 30,000원 (단, 불교미술과는 40,000원)

9. 참고사항
(1) 본 대학 이수자엔 태고종단의 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함.
(2) 불교학과 범패과는 18:00 ~ 21:00까지 강좌 개설하고, 불교미술과는 14:00 ~ 19:30 사이에 강좌를 개설함.
(3) 통신생은 월 1회 1박 2일 출석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4) 남학생 기숙사 운영 (지방학생은 문의 바람)

10.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함.
(2) 제출서류 중 승적증명서나 수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서류만 구비하여 제출해도 됨.
(3) 우편을 이용하여 입학원서를 교부받고 접수할 수 있으나 전형일에는 반드시 본인 참석하여야 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학처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편입생 모집요강

1. 응시자격
(1) 본대학 2년 수료자
(2) 강원 대교과 수료자
(3) 4년제 또는 2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불교미술과는 미술대학 졸업자)
(4)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2. 기 타
(1) 응시자의 수학 경력에 따라 2학년 또는 3학년에 편입토록 함.
(2) 4년제 이수자에겐 정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태고종단 승려에겐 중덕법계를 품수함.
※ 원서교부 등 기타 사항은 상기 신입생 요강에 준함.

■원서교부 및 접수처
(1) 본 대학 교학처 (☎ 763-0229, 8536)
(2) 태고종 총무원 (☎ 745-2030 ~ 2)
(3) 태고종단 각 교구 종무원
(4) 경서원 (조계사 앞 ☎ 733-3345)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92-1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불법 생활화 위기극복 해답"

네팔 붓다다르마센터 원장 세츄 린포체

특별 인터뷰

부처님이 탄생한 룸비니동산이 있는 곳. 그러나 우리에게 네팔은 아직 낯선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13일 네팔불자 모임 창립법회에 참석키 위해 한국을 방문한 네팔 붓다다르마센터(The Buddha Dharma Center) 원장 세츄 린포체(Lopon Tsechu Rinpoche)를 만나 네팔 불교와 현대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불교의 해답을 들었다. 〈편집자 주〉

-한국에서 일하는 네팔노동자들의 불자모임(Nepal Buddist Family) 창립법회에 참석, 법문을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어느 법회보다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타이페이에서 열린 세계평화를 위한 제2차 불교도대회에 함께 참석한 경불련의 김동흔 운영위원장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2천명 이상의 네팔노동자들이 와있고, 그들의 대부분이 불자인데, 그들이 불자모임을 만드는 데 와서 법문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형제들을 위로하고 또 양국관계 증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해 흔쾌히 오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7세에 출가, 이후 여러 수행과정을 거쳐 주목받는 수행자가 되셨습니다. 수행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불교는 하나입니다. 한국 일본 등의 불교는 그 나라의 전통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불교는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팔만사천법문에 비유할만큼 광대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부처가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듯이 모든 것은 업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8만4천법문은 부처님을 비롯한 여러 부처와 보살님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다원주의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기독교처럼 누구에 의해 창조되었다거나 주도적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국 교류확대 기대

-현대는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과 과도한 경쟁으로 정신문명이 고사상태에 이르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현대의 위기에 불교는 어떤 처방과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현재의 처해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네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와있느냐는 고민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문제에만 매달려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씩 하나씩 생활로 옮기는 데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현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불교의 해답입니다.

-스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붓다다르마센터도 하나의 대안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네팔의 많은 사람들은 불교를 모르고 있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힌두교는 시내에 내려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붓다다르마센터는 수행과 대중의 불교이해를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온 수행자들에게 참선과 불교의식, 전통의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불교에 심취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만, 과학기술과 기독교문명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그들이 불교에 이끌리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금 서양은 과학기술에 있어서는 일류입니다. 비행기를 이용해 1시간에 수천Km를 갈 수도 있습니다. 핵무기 하나로 한 나라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붓다다르마센터를 찾는 서양인들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선수행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와의 인연은 어떠신지요.

▲81년 일본에서 열린 세계불교도회의에 참석했을 때 한국의 한 고승이 나를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많이 닮아 동질감을 느꼈고,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언어소통의 문제가 있어 한국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왔으니 두 나라 불교가 특별한 관계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네팔과 한국은 정부간의 교류는 있었지만 불교교류는 없었습니다. 이번이 첫번째 방문입니다. 히말라야 오지에 있고 힌두정권인 관계로 연락이 잘 안되어 이번 방문도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팔은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동산이 있는 곳이지만 한국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네팔불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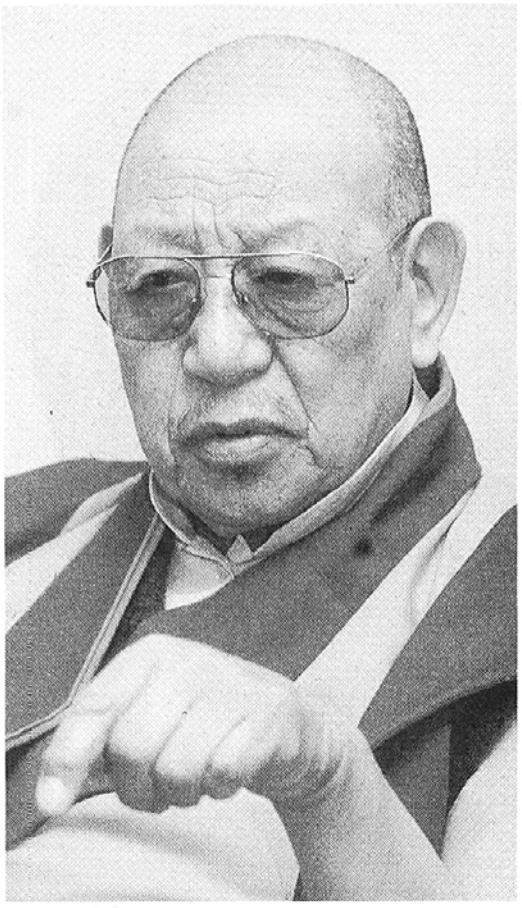
네팔인구 60% 불자

▲네팔불교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기독교와 힌두인들은 병원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포교하고 있습니다. 불교신자들이 그들의 혜택에 이끌려 개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팔 인구의 60%가 불교신자임에도 네팔의 왕은 힌두교를 믿고 있어 불교포교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많은 네팔불교도가 살고 있는 시골에는 교통과 통신시설이 거의 없어 불교포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네팔은 매우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붓다는 신이 아니며, 따라서 모든 것은 업에서 나옵니다. 내가 린포체가 된 것도 덕을 쌓아서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가르침입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은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오는 27일은 성도절인데요. 과연 어떻게 수행해야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일찍이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사성제와 팔정도를 알려 주셨습니다. 어떻게 수행하느냐는 수행법을 말하는 것 같은데, 수행법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큰마음으로 정진하면 빨리, 천천히 정진하면 천천히 깨달음에 이르겠죠. 쉼없는 정진을 당부합니다.

정성운 기자



약력

1918년 파키스탄의 수도 부탄에서 태어나 7세에 출가했다. 이후 여러 수행을 거쳤으며, 네팔에 돌아와 사찰 건립과 불교포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1962년 네팔불교협회를 조직해 회장을 역임했으며, 방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불교도우의회 의장으로도 활동했다. 현재는 네팔 붓다다르마센터의 원장으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고 있다.

현실 인정하면서 '사성제' '팔정도' 쉼없이 닦길

"서양인들 불교 심취 '마음의 평화' 찾으려는 노력"

시 론

사랑과 미움의 사슬

'죽은 시체에 매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천하를 호령하던 두 군사정권의 집권자와 그들의 측근이 쇠고랑을 차게되자 목청을 돋구고 이들의 과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단군이래 최악'의 폭력정권집단을 비판·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서슬이 시퍼렇던 때에는 침묵을 지켰거나 사실상 협력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검찰이 '공소권없음'이나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침묵을 지켰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정의의 대변자' 행세를 하는 골은 딱하다.

어쨌든 12·12 쿠데타와 5·18 광주학살을 단죄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중요한 일이다. 뒤늦게나마 정부 여당이 나선 것은 다행한 일이다. 오히려 '죽은 자에게 매질'하는 시늉으로 끝나지 않을까 경계할 일이다.

우리의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



정 경 희
〈언 론 인〉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잘못된 과거를 단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출발일 뿐이다. 출발점에서 어디로 어떻게 뛸 것인가?-지금 이 사회는 이러한 근본적인 과제를 잊고 있다. 신군부의 국권찬탈과정과 광주학살, 그리고 천문학적인 돈더미가 뇌물인가 성금인가 하는 법률적 해석에만 골몰해 있다.

'그 다음'은 오직 점쟁이의 예언에 맡기고 있다.

그나마 우리는 과거 군사권이 파놓은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력이 국민을 적으로 삼고, 국민은 정권과 그 정권에 기생하던 사람들을 적으로 삼아야 했던 시절의 함정이다. 그것은 정치를 '미움'과 '증오'의 잣대로 분간하는 습관화된 증상이다.

'과거단죄' 그 다음은

예를 들어 '세대교체'만 해도 그렇다. 세대교체는 퇴장을 강요당하는 사람과, 신입생의 대량생산을 뜻한다. 그런데도 신입생집단은 새 세대답게 새로운 이념과 정강·정책을 유권자 앞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세대교체는 결국 이념과 정책의 교체가 아니라 인간의 교체요, 그 기준은 인간적인 사랑과 미움이 될 것이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랑보다는 미움이다.

정치자금과 관련된 소위 '정치권 사정(司正)'도 마찬가지다. 나만은 빼놓고 누구는 얼마를 받았다는 식의 뜬소문이 그 핵심이다. 결국 모호하게나마 나도 받았다는데까지는 왔지만, 뜬소문시비가 남긴 인간적인 애증(愛憎)의 상처는 깊다.

전국민이 몇개의 '지역적 연고(緣故)집단'으로 분할된 현상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로 드러났다. 호남과 충청, 그리고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이 각각 큰덩어리를 이루고, 수도권이 다시 야당권으로 분할했다.

이러한 지역할거현상에 대해 정치권을 비판하는 소리도 컸지만, 결과보다는 원인을 먼저 비판하는 것이 순서다. 10여년에 걸친 영남지역 파벌정치가 몰고 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역사 바로 세우기' 잣대

지역할거현상이 우리 정치의 새로운 문제임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파벌 정치체제하에서 소외당해 왔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선택한 결과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다시는 지역파벌정치가 있어선 안된다는 경고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 지역파벌정치야말로 인간적인 사랑과 미움의 사슬로 엮어진 정치다. 일정 지역출신의 '내고향 사람'만을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체제요 정치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원시적인 애증관계는 집단적인 '적(敵)'을 필요로 한다. 미움이 아니라면 적어도 경원(敬遠)과 불신(不信)의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지역할거도 지역파벌정치에 대한 최종적 해결책은 아니다.

오늘날 한국은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의 정치적 구호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 화려한 구호들의 행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보다는 미움과 증오의 질서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모든 정치집단들과 정치인들이 날만 새면 공격과 방어에 급급하고 있다. 소위 '국민적인 불안감'의 원인이다.

그 일차적인 책임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와 여당쪽에 있다. 공격과 방어가 계속되는 한 어느 누구도, 어느 정치집단도 두 다리 뻗고 자지는 못할 것이다.

'역사 바로 세우기'는 과거 폭력체제의 분명한 단죄와 함께, '미움'의 구조를 탈피하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

부처님은 "사랑이 곧 여래(慈悲如來)니라〈열반경〉" 하셨고, "친·불친(親·不親)에 마음 항상 평등하게/친하고 안 친하고 하나로 화합하라〈금왕명경〉" 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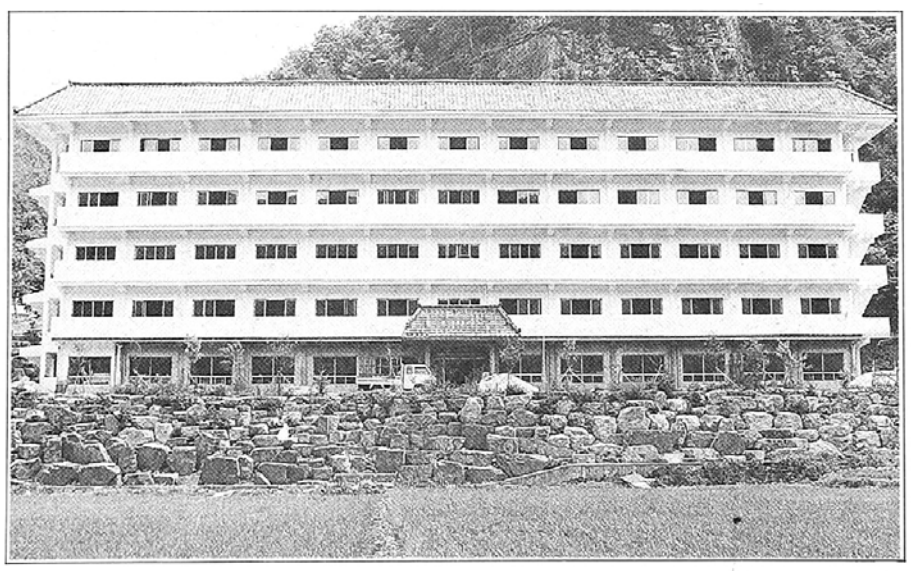
신라의 의상(義相)스님은 분무왕이 백성의 괴땀으로 성(城)쌓기를 끊이지 않자 나무랐다. "다스림이 밝으면 비록 풀 언덕에 금을 그어서 성(城)이라 해도 백성이 감히 넘지 못할 것이나, 다스림이 밝지 못하면 비록 장성(長城)이 있더라도 재해(災害)를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러한 역사의 상식과 전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세계 최대 석굴 기도도량 · 불교성지 최고의 기도처

일붕사 유료 불교회관 평생선원 선착순 입주

석굴법당참배 및 평생선원답사(설명회)



■일 시 : 1996년 1월 26일(음 12. 7)
■출발장소 : 부산교대 맞은편 한양프라자 앞
■출발시간 : 10시 30분
■동 참 금 : 무료
■접 수 : (051) 867-1516(좌석관계로 미리 접수 바람)

불교회관 소개

- 내방을 콘도식으로 평생 사용 가능 (1인 1실 = 8평형)
- 공양 · 세탁 · 목욕 · 물리치료 · 정기종합검진 등을 무료로 평생 제공 (휴양 · 오락시설 완비)
- 천혜의 기암절벽, 경관 수려한 석굴법당에서 평생기도 (한가지 소원성취)
- 별세하시면 49제 영가천도 해 드림

연락처 : 경남 의령군 궁유면 평촌리 산 63 / ☎ (0555) 72-9990 (종무소)

일붕사 주지 혜 운 합장

법회 안내

청수사 (02)816-1290

자성일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학생법회 매주 일 오후3시

관음포교원 (02)863-9649

신중기도 매월 1~3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30분
천수용맹기도 매월 25~27일(음) 오전9시
일요가족법회 매월 셋째 일 오전10시30분
가족등산법회 넷째주 일 오전8시
전동차법우회 셋째주 수 오후2시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2시

대구 대광명사 (053)253-0514

국민·중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2시30분
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30분
청년부법회 매주 수 저녁8시

용인 동도사 (0335)33-7417

초하루·인등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정기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1시
지장재일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1시

천안 천불암 (0417)64-3223

큰스님 초청법회 매월 초 3일(음) 오전11시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인등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1시
지장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1시

평창 상원사 (0374)32-6666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일반신도법회 매월 22일 오전11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북한 수재민돕기 국민동참 호소

범종단 북한수재민돕기 추진위원회는 지난 15일 고문 및 공동대표 연석회의를 갖고 북한동포를 위한 구호활동에 국민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는 한편 북한의 피해실태 확인을 위한 방북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월주 조계종총무원장과 김수환추기경 강원용크리스찬아카데미원장 김재중천도교교령 이윤구 실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총화종 동광종정·총무원장 취임식

대한불교 총화종 제12대 동광종정 추대식 및 제13대 전남정 총무원장 취임식이 지난 16일 쉐라톤 워커힐 본관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일공(원융종 총무원장) 혜우(법륜종 총무원장) 지명(조동종 총무원장)스님과 주양자의원(신한국당)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 축하했다.

조계종 제7회 포교대상 시상식

제7회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이 지난 1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월주 총무원장, 원산 교육원장을 비롯 대상수상자인 무진장스님, 성일스님(신흥사 청소년수련원장)등 수상자와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포교원장 성타스님은 "앞으로도 전법도생의 사명을 다하는 불자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차로

신흥사 주지 진산식



도후스님은 10일 조계종 3교구 본사 신흥사에서 주지 진산식을 갖고 신임주지에 취임했다.

몽골 간단사와 교류 논의

무상스님(봉은사 주지)과 무여스님(정암사 주지)은 지난 12일~15일 몽골 간단사를 방문, 간단 승가대에 복사기를 기증.

법왕불교대학 대구분교 개원

해동스님(합천 희현암 주지)이 지난 13일 일붕 선교종 산하 해동정사 법왕불교대학 대구분교 개원식을 갖고 분교장으로 부임했다.

청소년문제 진단 세미나

법선스님(선우마을 회장)은 오는 25일 오후3시 부산 일보사 강당에서 'TV 오락프로그램이 청소년 심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원담스님초청 '맑고 향기' 법회

인경스님(천불암 주지)은 오는 24일 오전11시 수덕사 방장 원담스님을 초청해 '맑고 향기롭게' 법회를 봉행한다.

'경복고' 올해의 동문대상 수상

황수영박사(전 동국대 총장)는 지난 16일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열린 경복고등학교 총 동창회 신년 하례회에서 '올해의 동문대상'을 받았다.

대원불교대 동계 교육

허성구씨(대원불교대학 학장)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본 대학 교정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 1백70여명이 참석해 동계교육을 실시했다.

대구·경북 직장불교협회장

김주본씨(개인택시 정법회장)가 오는 25일 오후6시30분 혜림원에서 대구·경북 직장불교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다.



삼중스님 이총 환국법요식

임진왜란 당시 왜군들이 전리품으로 베어간 우리 선조의 귀를 묻은 이총(귀무덤)을 국내로 옮겨오는 작업이 지난 12일 삼중스님(자비사 주지)과 일본 이총보존회(회장 후지이 데스오)가 이총환국법요식을 봉행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올 자본금 50억·회원 1萬명 목표"

조계사 신협이사장 현근스님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것 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조합원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지난 16일 조계사 신용협동조합의 새이사장으로 선임된 현근스님(조계사주지)은 조합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신협의 운영방침임을 밝히고 신앙과 경제공동체를 이뤄내는 초석이 신협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근스님은 "올해안에 자본금 50억원, 조합원 1만명 확보가 목표"라며 "신도들의 참여로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욕을 보였다. 아울러 한국불교 포교 1번지로 불리는 조계사인만큼 신협운영도 모범적으로 꾸려 신협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찰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자본규모가 영세해 새로운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계사 주위의 불교용품점들에 신용대출 등 적극적인 도움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96 인물



미국유학 10년 예비박사 진월스님

"올 한해는 어느해보다 바쁠 것 같군요. 논문 준비를 하며 제출자격을 얻기 위한 보고서 제출과 오랄테스트(구두면접)를 통과해야 하니까요."

새해 벽두에 일시 귀국한 진월스님(미국 버클리대 박사과정)의 신년설계는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올해로 유학생활 10년을 맞는 스님은 장경연구소가 주최하는 '팔만대장경 전산입력 완료기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한 것이다.

동아시아불교를 주전공으로 하고 부전공으로 남방북교를 택했지만 스님은 준비중인 박사학위 논문의 갈래는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한국 불교사에 촛점이 맞춰졌다고 소개했다. 때문에 이번 귀국길에서도 관련 자료를 한보따리 구해갈 계획이다.

근세 한국불교사 탐구 '구슬땀'

불교·기독학회 자문…버클리대 신행회 선도

"한국 불교 현대사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16~19세기 불교사의 중요성이 아직 세계불교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우리 불교학의 세계화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스님의 탐구 이유다. 격변의 세월을 강줄기같이 흘러 온 지성사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천착하는 것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다. "지난 9년간의 미국생활이 수행자인 나에게 준 교훈은 매우 큰 것이었다"는 스님은 수행과 학자의 길을 다 가야한다는 생각에 올해를 새로운 전환의 해로 삼고자 마음을 다잡고 있다.

동국대 선학과를 나와 서강대 종교학과에서 다시 학사모를 썼던 스님은 86년 하와이 대원사로 갔다. 이듬해 하와이대학 종교학과에서 '삼가(三家·불교 유교 도교)와 휴정'을 주제로 종교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년을 더 이곳에서 역사학관련 공부를 했다. 92년 가을학기부터 버클리대학 박사과정에 들어 간 스님은 미국 종교학자들의 모임인 '불교·기독교학회'국제자문위원과 하와이국제불교도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버클리대에 불교수행모임도 이끌고 있다.

임연태 기자

가청권 넓혀 LA전역에 불음전파

미주 불교방송 신임 이사장 담오스님



"현재의 FM방송을 AM으로 바꿔 LA한인타운 교포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가청권을 넓힐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23일 미주불교방송 이사장에 선출된 담오스님(LA 달마사 주지)의 포부다.

그동안 하루 1시간이었던 불교방송 시간도 2시간으로 연장할 예정이라는 스님은 교리문답, 어린이 프로그램등을 교포불자들에게 들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님은 한국에서 큰스님, 불교학자 등을 초청해 교포불자들을 위한 법회도 열 계획이다.

한편 스님은 작년말 교포불자들이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교포불자의 밤을 LA 달마사에서 갖기도 했다.

"불교의 미주 정착은 타종교에 비해 짧지만 교포불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불음을 미국 전역의 교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스님은 말하기도.

스님은 또한 미주 불교방송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절 짓는 불사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미주 불교방송을 이끌겠다 고 밝혔다. 〈은〉



◇김호성씨 ◇이승호씨 ◇이치영씨 ◇해성스님

불이상 수상자 4명 선정

불이회(회장 홍라희)가 선정·시상하는 제 11회 불이상 수상자로 김호성씨등 4명이 선정됐다. 상금 각 3백만원.

이번 수상자는 △연구분야 김호성(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강사) △실천분야 이치영(육군교육사령부 군종실장) △장학분야 이승호(수도방위사령부 군조법사) △출가권학분야 해성스님(괄립사 연화복지학원장)등 각 분야별 4명.

김호성씨는 왕성한 저작활동은 물론 각종연구논문 발표 및 활발한 불교활동으로, 이치영 법사는 군포교에 대한 공로로, 해성스님은 농아자를 위한 헌신적 보살핌과 수화연구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불이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전11시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있다.

게시판

▲육조법보단경 강좌=정토법당은 3월 25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11시와 오후7시30분 부산 동래구 명륜동 법당에서 육조법보단경 강좌를 열고있다. 동참금 2만5천원(교재비 포함). (051)557-2746

▲불교문화강좌=부산불교교육원은 오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6시30분~8시 부산 동구 수정3동 교육원 법당에서 슬라이드로 배우는 불교문화강좌를 연다. 등참금 2만5천원. (051)466-4080

이전 불자의 집 대인정사(주지 대엽)가 지난 20일 안성군 안성읍 사곡리 232-2로 이전했다. (0334)675-7707

신년하례법회

한국불교발전연구원(이사장 월탄스님)은 지난 13일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을 예방 한자리에서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불교시민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법타스님)는 지난 23일 신년하례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신한국당불교신도회(회장 곽정출)는 지난 16일 김운환 대표등 소속의원을 비롯해 국회 정각선원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강원불교대학(학장 백운스님)과 춘천불교신도회(회장홍종구)는 지난 22일 춘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재가불지연합(상임회장 안동일)는 24일 오후6시30분 서울호텔 12층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한다.

동국불교미술인회(회장 허길용)는 지난 13일 신년 하례식을 갖고, 발전기금 마련 전시회를 오는 6월 공평아트센터에서 열기로 결의했다.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주 5일 오후 7시 ~ 8시 30분까지
연구과정-주 2일 오후 2시 ~ 4시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2월 21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 과 목 :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원전강독 I	선종사상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대승불교사상사	불교미술	천 태 론	유식철학
연구과정	1학기	구사론, 법화경, 정토3부경, 금강경, 육조단경을 매학기 2과목씩 강의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동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ㄱ.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ㄴ.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ㄷ.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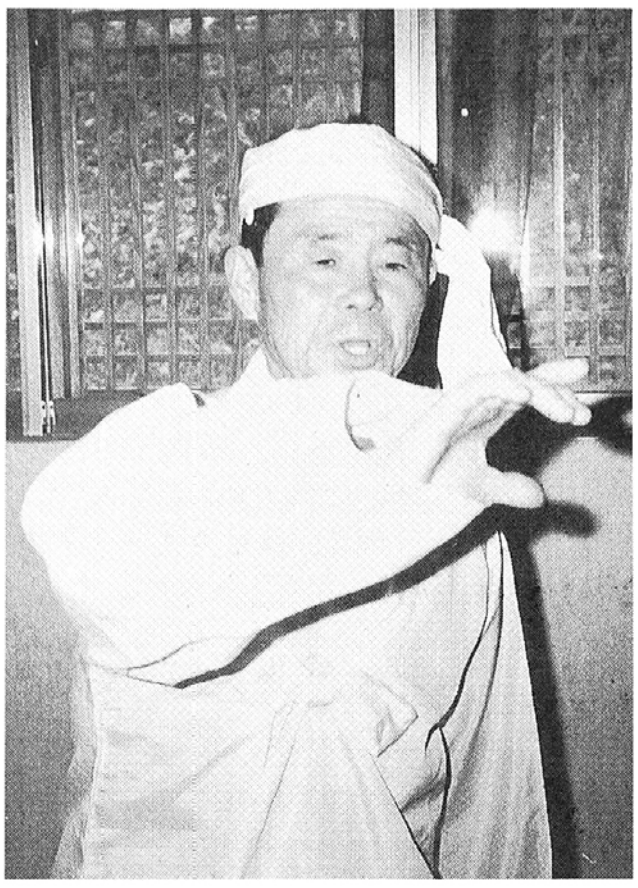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들노래에 젖으니 온세상이 '하나'

산문밖의 禪

통명농요 기능보유자 이상휴 씨



"한톨종자 싹이나서 만곡쟁이 열매맺는 슬기로운 이 농사는 하늘땅에 조화로데이"

'나' 버리고 내는 선소리에 뒷소리 조화 저절로

(선소리) 아부레이 수나 (뒷소리) 아부레이 수나 이이도 어이 수여 (선소리) 에헤 한물종자 싹이나서 만곱쟁이 열매맺는 슬기로운 이농사는 하늘땅에 조화로데이이 아부레이 수나 (뒷소리) 아부레이 수나.

이 노래는 모를 심으면서 부르는 통명농요(중요무형문화재 84호)의 한 구절이다. 옛부터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 신명이 나면 이름모를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힘들고 고달플 때면 탄식조의 가락을 내뱉았다. 그 소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농요가 됐다.

경북 예천군 예천읍 통명리는 노래로 모를 심고 노래로 논을 매고 노래로 타작을 하는 농요의 마을이다. 사시사철 들노래가 들판가득 널려 있다가 농사일에 따라 적절한 노래소리가 울려퍼졌다.

통명농요는 선소리와 뒷소리, 사물놀이에 의한 농악등 40여명의 농군이 만드는 소리로 이루어진다. 그중 선창을 담당하고 팀웍을 이끌어가는 선소리가 가장 중추적이다. 현재 통명농요 선소리 기능보유자 이상휴씨(64세).

"노래를 부르면 그냥 좋았어요. 농요관을 따라다니다 보니 저절로 되더군요."

그는 전대 보유자인 함봉준선생으로부터 배운게 아니라 스스로 체득했다. 농요는 고유한 토속적 맛과 멋이 없으면 쭉정이에 불과하다. 이 맛과 멋은 머리로는 전해지지 않는다. 그의 선소리에는 된장국과 막걸리의 구수하고 걸쭉한 맛이 느껴진다. 그의 선소리에는 모를 심자고 독촉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그저 한바탕 신명나게 놀아보자는 심산이다. 어르고 장단 맞추다 차츰 신명이 오르면 모심는 동작은 어느새 춤동작이 되어버린다. 모종도 덩달아 춤을 춘다. 들판은 순박한 농심(農心)과 흥겨운 농요로 질펀하게 젖는다.

또한 그의 선소리에는 '나'라는 것이 배제되어 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기쁨 해학 그리고 더불어 함께 돌아가는 리듬성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농군들에게 즐거움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 농요를 즐길 뿐이다. 그 강제성없는 즐거움이 농군들을 전념(全念)시킨다. 그에게 있어 화두란 따로 없다. '항상 즐겁게 사는 것'이 화두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다. 직접 노래부르고 춤추는 지휘봉없는 지휘자다.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절대경지에서 전체의 조화를 이끌어 내는 마술사다.

'에헤에 헤에헤이헤에 사람마다 선비되면 농사지을사람 누구인고 아옝헤엥헤에'

모심기 소리, 논매기 소리, 논을 다 매고 나오면서 부르는 소리, 집으로 오면서 부르는 소리, 타작 소리등 모두 5소절의 8곡으로 구성된 통명농요가 다른 농요와 다른점은 선소리와 뒷소리 사이가 끊어지지 않고 2중창과 같이 불리어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더욱 흥겹다.

통명농요는 듣고 감상하기 위한 음악이 아니라 현장에서 한사람도 빠짐없이 어우러지게 만드는 놀이다. 농사와 놀이의 구분이 없어진다. 농악과 노래와 농군의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하는 집단적 동선(集團的 動線)과도 같은 농요의 중심에 이옹의 선소리가 있다. 그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린다. 그래서 그는 '나'를 빼고 노래 부른다.

지난 70년대중반 국민학교 교사인 강원희씨에 의해 통명농요가 처음 발굴된 이후 79년 제2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처녀 출전하기까지 그는 숱한 반대와 난관에 부딪혔다. 그는 꿋꿋했다. 그의 부동심은, 그리고 그의 선소리가 지닌 즐거움은 모든 장애를 녹이기에 충분했다. 이 대회에서 통명농요는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농악·소리·농군 어울어지면 모종도 덩달아 춤추는 듯"

그의 선소리를 들노라면 엉덩이와 어깨가 저절로 들썩인다. 함께 어울리지 않고는 못배기게 만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 38명의 통명농요 회원중 2~30代는 단 3명뿐. 40代도 젊은이에 속한다. 대부분 5~60代인 이들이 부르는 농요는 삶의 갖은 맛이 배어있는 진국의 소리다.

그의 선소리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소리인 '캥마쿵쿵노세'에서 절정을 이룬다. 일이 끝난 안도감과 휴식의 기대감으로 기쁨은 배가 된다.

노세 노세 캥마쿵쿵 노오세/낙락장송 고목되니 캥마쿵쿵 노오세/눈먼 새도 돌아간다 캥마쿵쿵 노오세/좋은음식 지어지니 캥마쿵쿵 노오세/여물밖에 더되는가 캥마쿵쿵 노오세/노세 노세 젊어노세 캥마쿵쿵 노오세/우리가 놀면 얼마나 노나 캥마쿵쿵 노오세.

저녁놀이 들판을 붉게 물들이고 미류나무가지가 바람사이로 살랑거릴 즈음, '캥마쿵쿵노세'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던 그 기분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는 법열일 게다.

일이 끝나고 취기어린 얼굴색이 노을빛을 닮아있는 그때 단심(丹心)으로 부르는 '캥마쿵쿵노세'는 들판을 흥건히 적시면서 메아리쳐 나갔다.

이때 광과리는 노래부르고 장구는 춤을 추며 북과 징은 장단을 맞춘다. 상머슴은 소를 거꾸로 탄채 제멋에 겨워 삿갓을 뒤집어 쓴다. 그리고 군무와 합창의 행렬이 뒤따른다.

"온 세상이 다 내것이었지요. 매미소리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예천=이윤호 기자



삽화 · 이기선

원인 알면 결과가 보인다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⑱

예언(豫言)

자기미래 볼 수 있는 혜안 가져야

해가 바뀌면 사람들이 꼭 한번 해보는 것이 있다. 한해의 운세를 보려고 토정비결을 보는 일이다. 양지바른 길가에서 도수높은 안경을 끼고 토정비결을 보는 노인앞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사주를 불러주는 사람도 있고, 또한 지하철 어귀에 설치된 컴퓨터 운세를 보는 사람도 있다.

사실, 내일을 예견하는 사람이 세상천지 누가 있는가. 그리하여 당사주, 주역, 토정비결, 아니 OO보살, OO도사를 찾아가서 택일, 궁합, 진학, 사업 등을 물어보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다. 제 앞날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누구가 점, 관상, 사주를 보러가는 사람이 있을까. 어제의 일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오늘의 약속도 깜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 닥쳐오지 아니한 내일, 미래를 감지할 수 있을 건가. 사람의 욕심은 오늘보다 내일을 희구하는 갈망이 강하게 발동한다. 희구의 갈망이 높아가면 갈수록 내일을 미리 알고 싶은 충동이 반비례 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역술가, 점술가를 찾아나서는 마음이 요동하게 된다.

오늘날처럼 초과학시대에도 점성술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으니 웃음을 금치 못한다. 또한 일간지의 광고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언론사에서 버젓이 '심야대담' '추적60분' 등으로 예언자의 실상을 파헤치고 있으니 더욱 아연할 뿐이다.

세상이 어지러우면 혹세무민이 판을 치게 된다. 왜 대형사고,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불안이 있을라치면 예언적인 예고에 관심을 쏟아 붇고 있는가. 예언에다 사회적 운명을 해결하려는 마음자체가 미신인 것이다. 우리는 미신의 우물에 빠진 방랑자가 되면 안된다. 미신의 시간이 길면 혹세되는 시간도 길다. 혹세의 시간은 암흑의 지구이다. 우리는 미신과 혹세가 상관관계의 암수임을 환하게 깨쳐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사이 세상에서는 온갖 잡스런 일들이 야기되고 있다. 언론사가 예언적인 문제에 민감한 것이다.

이러한 미신적 요소를 공공 언론기관에서 짚어보려고 하는 것은 개인이 미신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더 가공할 오류인 것이다. 정치적 미해결점이 있으면 정치하는 사람이 치정의 방법에 잘못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검토 연구하여 민생치안의 길을 창조하여야 할 것이고, 경제가 잘못 되었다면 경제구조, 노사문제, 유통체계, 생산방법을 근원적으로 연구하여 경제적 해결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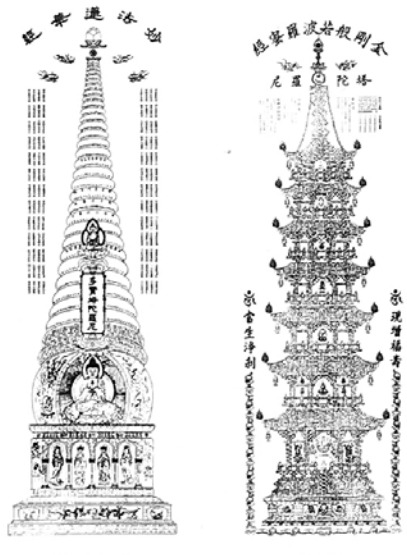
또한 사회가 혼란하면 사회가 바르게 나아가야 할 곳에 부도덕 비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초적인 오류를 진단할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언론사에서 시류에 앞서가는듯 방만한 방송을 하고 있으니 어디로 가는 배인가. 심약하고 욕심있는 자가 천운이나 운수에 매달려 보려고 온갖 물걸이를 하는데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 뿐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길밖에 없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원인의 의지에 사특한 것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 결과로 사악한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은 정칙이다. 원인의 씨앗에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이 합장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진·선·미의 세계로 배태 성숙한다는 것은 예언적 말을 들어보지 아니하여도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예언이란 맞출 수 있는 확율이 반반이다. 그 반반은 누구든지 알아맞출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반반의 수수께끼에 잠깐 잠꼬대하는 것이다. 예언을 벗어난 세계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혜안(慧眼)을 갖는 것이다. 원인에 무엇이 합장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그 확인은 남의 점술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그 원인에다 정직과 성실을 알차게 채워 놓았느냐고 반문하는 길이다. 항상 자신이 원인의 씨앗에다 삶의 참뜻을 가다듬어 기도하면서 살고 있다면 자기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거리나 지하철에서 토정비결 컴퓨터점 운명을 보는 잘못도 없을 것이고 정치도 정직하게 하면 세계의 운세를 빌어보는 어리석음도 사라질 것이다.

금년, 丙子年(병자년)부터 12년간 大運(대운)을 얻고자 하는 佛子는 실제로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받을 수 있는 !

"신비의 불탑다라니를 스님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사용해 보십시오."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을 사용하여 제작
규격 : 62cm × 160cm

■구입가격 : 불탑다라니의 공덕과 효험적 가치는 금액을 정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것은 일정한 가격이 없으며, 또한 인연따라 구해지는 것이기에 사람마다의 입장에 따라 구입가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얼마에 구하셨든 구하는 시점에서 값은 일체 논하지 마십시오. 이렵게 얻은 공덕과 효험이 사라집니다.

"조상령을 천도하고 악령을 퇴치하고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바꾸어주는 불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1996년 丙子年(병자년)은 아들 子(자)자인 쥐띠해로서 태양의 정기인 양기와 땅의 地氣(지기)인 음기를 음, 양의 조화로 맞추어 안으면 大運(대운)을 맞이할 수 있는, 12년의 運(운)에 시발점인 대세지운의 해이기에… 특별한 효험을 나타내는 음, 양의 조화속에서 더욱 吉(길)한 運(운)의 정기를 生地合(생지합)해야 하는 해이며, 나쁜 액은 물리치고 大吉(대길)한 생기는 성합해서 入財(입재)해야 하는 해이다.

그래서 모든 불자에게 96년 병자년으로부터 시작하여 12년간 액살, 우환, 잿살들이 가내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불보살님의 가피지묘력이 온 집안에 형통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원만히 성취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선 음, 양의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방편이 필요한 것이다.

스님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영험력을 스님들과 불자들을 통하여 경험한 금강경신탑다라니와 이번에 금타 대덕법사가 고증 조성하여 세상에 現化(현화)하게 된 다보불탑다라니가 불보살님의 가피력으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신비의 불경(佛經)탑다라니임을 알게 되어 이를 100% 경면주사만을 사용하여 두 쌍의 불탑다라니를 조성함으로써 여기에서 부처님의 본래의 참모습과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우주의 생명인 강력한 氣(기)의 에너지가 방출되도록 하여 인체에 氣(기)를 불어 넣어 부처님의 상주불변하는 신비의 가피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경주 불국사에 세워진 석가탑과 다보탑이 바로 부처님의 상주불변하는 조화의 이치로 세워져 천년 신라의 불교문화를 꽃피웠듯이, 현세에서 우리 불자들이 금강석과 같은 지혜를 뜻하는 금강경신탑다라니와 一佛乘(일불승)을 뜻하는 묘법연화경(법화경) 다보탑다라니를 같이 소장하거나 사용했을 때 이야말로 佛經(불경)탑다라니의 불가사의한 위신력과 더불어 완벽한 음, 양숙성의 이치융화로 병자년으로부터 시작하여 최소한 12년간은 소원하는 바가 겉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현세에서 그 복의 과보를 100% 받을 것이다. 즉 두 쌍의 불탑다라니를 스님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해보면, 금년부터 각자의 소원들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편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이것은 실로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하고도 신비스러운 영험력으로 누구나 직접 체험하리라 본다.

한시라도 몸에서 영험력과 가피력이 충만한 불탑다라니를 떼어 놓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온몸에 청칭 감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라.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리고 누웠을 때는 저절로 깔고 덮어지는 형상이 되므로 이불이나 요속에 잘 펴서 넣고 자면 자신도 모르게 두터운 엄장과 액난이 소멸되고 소원하는 바를 바로 이루는 큰 복덕을 얻을 것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스님이 제시하는 방법대로라면 틀림없이 큰 효험을 볼 것이므로 꼭 사용해보기 바랍니다"

1)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한다)
2) 사업이 어려워졌다거나 실패한 사람 (귀인이 나타나 큰 도움을 받게 되고 사업이 활발히 운영되기 시작한다)
3) 삼재든 사람 (삼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게 된다)
4) 무엇이든 꼭 이루어져야만 할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도와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루어진다)
5) 정신질환자는 완치된다.
6) 대학입시생이나 수험생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생기면서 실력이 급격히 향상되고 시험일에 실수율이 적어 원하는 대학에 거의 다 합격하게 된다)

※ 상기 사례는 스님이 그동안 금강경신탑다라니(陽)만 가지고 실제로 효험을 본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구입시 자세한 사용방법 및 실증사례집을 보내 드립니다.)

■상기 두 쌍의 불탑다라니는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보는 앞에서 氣(기) 테스트 결과, 그 자체에서 각각 엄청난 우주의 기(氣)에너지가 방출됨이 입증되어 놀라운 가운데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용해도 큰 효험이 있으나 같이 사용했을 때는 음, 양의 조화이치인지 더욱 강한 氣가 발산되었습니다. 이 기(氣)가 우리 인체에 큰 영향을 주면서 여기에 불보살님의 위신력이 함께 작용하여 나쁜 운세를 몰아내고 악한 운기를 강하게 해주고 영가를 천도시키고 악령을 퇴치시키는 영험력이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불탑다라니 영험력 = (자체에서 발산되는 강력한 氣에너지) + (불·보살님 위신력·가피력) + (스님들의 기도법력)

특별보급계획

① 스님들께만 본 불탑다라니에 대한 기(氣)테스트방법, 운기(運氣)의 강·약 체크방법, 영(靈)의 관계 체조방법을 상세히 서술한 책자를 드립니다. 이 방법을 잘 익히셔서 신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면 실제 영험이 있음을 확인시켜주므로 확신심을 가지고, 모두 사용하게 되어 큰 공덕과 복덕을 주시는 씸이 되며, 스님들께는 이것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의 원가선으로 보급코자 합니다.(구입시 신도수대로 불탑다라니 영험력 사례집도 같이 드립니다)
앞으로 본회에서는 바라밀전강연구원 원장님이신 각광스님을 모시고 각 道(도)별로 사찰을 방문하여 스님들께 기(氣)테스트 방법 등을 각광스님이 직접 전수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② 홍보기간 동안 구입을 원하시는 불자님에게는 특별법보시가격으로 드립니다. (4매 이상)

구입문의 및 상담 : 성지관음회
부 설 : 불교바라밀건강연구회
주 소 :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 34-9490, 39-1906 / 야간 (0342) 706-3060

"불교 사회참여 바람직한가"

최근 영·미학자 논문서 비판·타당성 제기

해 리 스교수 환경운동 불교이론 제시 필요

크라프트교수 사회활동 강조 '수행의미' 퇴색

미국, 영국 등지에서 최근 사회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불교에 대해 비판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진단하는 연구들이 진행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안 해리스(영국, 성 마틴대)교수는 논문 '불교 환경주의의 비판: 잠정적인 유형학'(Getting To Grips With Buddhist Environmentalism: A Provisional Typology)에서 환경에 대한 불교 이론적 배경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담론회를 주장하고, 케네디 크라프트(미국, 리하이대)교수는 사회참여가 바로 대승(大乘)의 자비정신이라고 자신의 논문 '종교의 가르침이 실현되는 평화: 서구 불교의 사회적 연대성'(Practicing Peace: Social Engagement In Western Buddhism)에서 역설해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우선 '불교 환경주의의 비판'에서 이안 해리스는 불교가 사회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는 이유로 불교사상·불교전통·불교정의 등의 독특한 종교적 배경을 꼽고 있다. 그러나 해리스교수는 "다양한 종교적 배경이 환경 운동에 이질성과 특이성을 심어줘 단일화 된 힘을 저해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불교는 인내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취시키고 불교의 요소가 환경에 더 적합해지도록 환경에 대한 불교의 담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라프트교수는 '종교의 가르침이 실현되는 평화'에서 해리스 교수와는 다르게 "현재 불교의 사회 운동 참여는 불교의 폭넓은 전통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전제한다. 그리고 "불교의 대사회 참여 경향은 대승(大乘)의 정신인 '자비'로써 동기를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구에서의 불교 경향이 수행보다는 사회적 실천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불교 고유의 근본적인 실천 윤리인 '깨달음'이 점점 퇴색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처럼 전통적인 불교에 비추어 서구 자체적인 불교 윤리, 즉 '참여불교'를 비교·평가하는 경향에 대해 영국 출판 관계자는 티벳의 고승 티송카파의 말을 빌려 "부처가 비록 깨달음을 얻었다지만 사부대중을 구원할 방편을 세우지 않았다면 지금의 불교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불교의 사회참여는 서구 불교의 방향을 더욱 뚜렷이 하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했다.

오증욱 기자

"구운몽은 빼어난 禪소설"

국학연구발표회 설성경교수 주장

반야계의 경을 대표하는 금강경의 핵심진리를 소설이라는 형태로 형상화한 구운몽이 세계최고의 선(禪)소설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문학의 해'와 '김만중의 달'을 맞아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원장 박영신)이 주최하고 문화체육부와 한국문예진흥원의 후원으로 지난 19일 열렸던 제258회 국학연구발표회에서 설성경교수(연세대)는 '구운몽의 작품세계-금강경과 선, 그 소설화의 세계적 묘기(妙技)'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설교수는 구운몽에는 불법의 전수는 지식에 의해서가 아닌 지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참선 못지 않게 돈오(頓悟)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등

선의 원리 여러 일화 통해 서술
금강경 바탕 지혜·돈오 강조

선의 원리와 기능이 여러 일화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교수는 스승 육관대사와 제자 성진의 선문답을 통해 '마음 자리의 깨침'으로 바른 진리를 찾아나가는 과정, 보리심을 발한 성진이 어떻게 정등정각(正等正覺)의 지혜를 얻는가에 대한 과정 등에서 구운몽이 어떻게 금강경을 수용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구운몽은 산사의 삶과 세간의 삶을 비교하고 '부귀공명은 일장춘몽'이라는 선사의 화두를 풀어 가는 과정을 '금강경의 전수과정'이라는 골격을 통해 선의 원리와 돈오득도를 보여주고 있음도 설명했다. 따라서 금강경을 서사적 전개의 골격으로 삼고, 경의 전수 과정을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구운몽이야말로 포교적 불교소설과는 다른 빼어난 선소설이라고 설교수는 강조했다.

한명우 기자

"천태사교의 5時8敎 사상 함축"

지창규씨 박사논문, 신타로·사토오 20년 논쟁분석



◇ 지창규씨

〈천태사교의〉 '5時8敎'는 천태지의가 조직한 교판이 아니라고 주장한 일본 불교학자 세키구찌 신타로(關口眞大)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한 논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표됐다.

지창규씨(동국대 강사)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95년도 박사학위 논문인 '〈천태사교의〉의 5시8교연구'에서 〈천태사교의〉 폐기를 주장하는 신타로와 가치인정을 주장한 사토오(佐藤哲英)의 20여년간에 걸친 '5시8교' 논쟁을 분석하고, '5시8교'의 조직이 〈천태사교의〉에 존재함을 입증했다.

지씨는 논문에서 천태지의에 있어 5시8교라는 용어와 조직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개념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천태교관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의의 사상을 이어받은 관정이 돈·점·부정·비밀을 무시하고 장·통·별·원의 사교(四敎)와 오시(五時)를 인증하는 오미(五味)로 교상을 구성하고, 담연과 그의 제자 명광이 8교라고 하는 교판체계를 구성하면서 5시와 화의4교(化儀四敎), 화법4교(化法四敎)를 병렬적으로 배치한 것에서 천태교관이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성립됐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 명광의 '팔교대의(八敎大意)'를 답습하고 있는 제관의 〈천태사교의〉가 5시8교라는 용어와 조직을 명확히 정립한 사실도 부연하고 있다. 따라서 5시8교는 지의-관정-담연-명광으로 이어지면서 사상적으로 많은 변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개념정립이 이루어졌다고 이씨는 분석했다.

결국 〈천태사교의〉에 대한비관은 5시8교의 사상적·사상사적 측면을 간과한 것이며, 5시8교는 사상적으로 많은 변모를 거쳤기 때문에 인습적 이해로는 〈천태사교의〉에서 완성된 5시8교의 의미를 올바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

법주사

종각 〈북면〉

願此鍾聲遍法界
(원차종성편법계)
鐵圍幽暗悉皆明
(철위유암실개명)
三途離苦破刀山
(삼도이고파도산)
一切衆生成正覺
(일체중생성정각)

종각 〈남면〉

靑山疊疊彌陀窟
(청산첩첩미타굴)
滄海茫茫寂滅宮
(창해망망적멸궁)
物物拈來無掛碍
(물물념래무괘애)
幾看松亭鶴頭紅
(기간송정학두홍)

원컨대 이 종소리 법계에 두루 퍼져
철위지옥의 모든 어둠 다 밝아지소서
삼도와 도산지옥의 고통에서 떠나
일체 중생을 바로 깨닫게 하여주소서

첩첩으로 깊은 청산 미타굴이요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망망한 푸른 바다는 적멸궁일세
물물이 오감에 걸림 없는데
소나무 정자에 학의 머리 붉음 몇번이나 봤는가

일체 중생의 해탈성불을 염원

해설 법주사 종각은 남쪽과 북쪽에 각각 다른 뜻의 주련이 걸려 있다.

우선 북쪽 주련의 내용은 '종송'의 일부이다. 종송이란 종을 치면서 읊는 게송이다. 그런 까닭에 이 주련의 내용 자체도 종을 치는 신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철위지옥이나 도산지옥 등이 등장하는 것은 종이 지옥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법물(法物)이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불교에 있어 4물은 법고, 운판, 목어, 범종이다. 범종은 지옥 중생을, 목어는 물밑(水中) 중생을, 운판은 날짐승을, 법고는 축생을 제도하기 위해 두드린다. 종각에는 이 사물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게송은 특히 종송이란 점에서 지옥중생의 제도와 일체중생의 성불을 염원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음미해야 할 것이다.

남쪽에 걸린 주련의 내용은 매우 웅장스럽다. 첩첩산중을 미타굴로 망망히 푸른 바다를 적멸궁으로 표현한 것이 장엄의 극치라면 극치일 것이다. 거기다가 아무런 걸림없이 오고가는 경지와 소나무 정자에 조각된 학의 머리에 붉은 노을이 수없이 수없이 물든다는 것. 이것은 길고 긴 시간의 무상함을 매우 문학적인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우주 법계에 무엇 하나도 집착할 것이 없음을 웅장스런 용어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주련의 맛이다.

〈안동 경안중 교사〉

인연을 보다 좋게 맺고 싶은데…

문 불법의 가르침에서 보면 우리들 살아나가는 게 모두 인연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기에 나로 인한 원망과 미움도 생긴다고 합니다. 인연 맺어지는 모든 이를 좀더 좋은 방향으로 제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심웅섭·서울 강남구 개포3동〉

답 마음이란 체가 없기에 지구 밖이라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생각 일으키면 즉각 통신이 되어서 응신으로 나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하면 약사가 되어주기도 하고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해결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왜 군인들이 통신을 하면서 즉각즉각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와같이 마음은 빛보다 더 빠르게 법계로 통신이 됩니다.

우리 주변엔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많고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꼭 물질과 말로써가 아니라도 마음을 보배처럼 써서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사께서는 갸륵한 마음을 보이니 그 마음씀이 보배처럼 빛나는군요. 이웃을 제도하고 싶다하셨는데 무엇보다도 둘로 보지 않는 마음자세가 중요합니다. 이웃을 이웃으로 보고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라고 인식한다면 내가 될 수 없지요. 이웃이 나일때 내가 나를 아끼듯, 나를 사랑하듯 그렇게 똑같이 응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바로 무주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주상일때 한 생각 떠오르면 그게 그대로 한마음이 되는 것이고 한마음인 이상 바로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마음을 좋게 써서 모두를 둘로 보지 않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공부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겁니다.

참다운 '역사 바로세우기'란

문 스님, 요즈음 정치권에서 '역사 바로세우기'란 말이 유행하는데 사실 역사를 바로 세우려 한다면 먼저 우리가 단군의 자손으로서 슬기로운 배달민족이라는 점과 1천6백여년 불교의 전통속에 살아왔다는 점을 바르게 인식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통일조국을 앞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님께서는 우리가 민족통일을 이루어 내고 세계속에서 발전된 국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차웅진·서울 노원구 공릉2동〉

답 배달민족이 따로 있어서 배달민족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실은 배달민족입니다. 말하자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민족의 통일도 그런 생각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또한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마음의 도리를 알고 일체중생이 평등하다는 것을 알아 공용·공생하는 이치를 생활화해야 하겠지요.

흔히들 무언가 성취하려하면 물질세계, 즉 눈에 보이는 유위의 세계에 치중하는데 마음과 마음이 교감하는 정신세계 즉 안보이는 무위세계를 겸해서 중용을 하지 않는다면 일이 원만히 성취되기 어렵습니다. 큰일 작은일 다 마찬가지 입니다.

마음과 '혼'의 차이는

문 사람마다 육신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다 혼백이다 하는 말도 있는데 영·혼백이란 마음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요. 〈박은순·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답 그게 다 같은 말이요 이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흩어져 사대로 돌아가고 혼만 남는다고들 하지요. 그걸 영혼이라고 불러도 좋고 신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영혼이 뭐냐,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식이라고도 해도 좋지요. 다 이름입니다만.

아무튼 사람이 태어나려면 부모의 정혈을 빌리고 업식과 영원한 생명의 불씨인 불성이 삼합으로 어우러져야 하는데 흔히 사대 육신과 마음의 계합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마음!하면 업식과 생명에너지, 그리고 그 작용을 다 뭉뚱그려 말하게 됩니다. 마음이 무한량이고 빛보다도 빠르고 체가 없으니 못미치는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본성, 쓰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픔도 '주인공'에 맡기라 하시는데

문 저는 몸이 아플때 우선 약을 생각하고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그 아픔까지도 주인공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좀 더 자세한 가르침 바랍니다.

〈김효분·대구 서구 중리동〉

답 자기 몸의 병은 자기가 가장 잘 압니다. 아프게 만든 것도 자기가 한 것이지요. 기계를 만든 사람이 그 기계의 상태나 고장난 곳을 잘 알고 제일 잘 고칠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맡긴다 안맡긴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기에 고쳐놓는 것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프니까 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약에 의지하는게 되니까 안으로 통신이 되질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도리를 진짜 알고 믿는다면 밥은 왜 약이 되질 않고 물인들 또 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약을 먹어도 먹은 사이가 없을 수도 있지요.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약에 기대고 약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이지요. 내가 몸에 좋아서 먹는 것이라면 밥도 약이고 물도 약이고 약도 약이고 모두가 약 아닌게 없겠지요. 요컨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먼저 나를 형성시켰고 지금 작용을 하고 나가는 그 주처를 믿고 맡길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1996학년도 신입생 모집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교

"영연방 대학소속의 스리랑카 세계적인 명문 불교 정규대학교의 학위 과정을 국내에서도 이수하게 됩니다."

강의는 국내에서, 졸업은 스리랑카 본교에서
수능시험 응시계열 구분없이 지원 가능

수업연한	학 과	과 목 명	특 전
	불교사회철학 (Studies in Buddhist Social Philosophy	① English ② Pali ③ Philosophy(Ⅰ Ⅱ Ⅲ Ⅳ) ④ Buddhist Social Philosophy ⑤ Emergence of Buddhism ⑥ Buddhist Social Institutions ⑦ Early Buddhism ⑧ Buddhist Education ⑨ Buddhist Aesthetic concepts and Arts ⑩ Expansion of Buddhist Culture (Ⅰ Ⅱ) ⑪ History of Indian Buddhism ⑫ History of Korean Buddhism. etc.	①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교 커리큘럼과 학사일정에 따름 ② 졸업후 영연방 및 외국의 모든 대학원에 유학 가능함. ③ 지방에서도 통신에 의해서 학위과정 이수가 가능함. ④ 어학 연수 가능 ⑤ 숭려는 장학금 지급

- 모집인원 : 80명(주간 : 40명 야간 : 40명) 통신생 약간명
- 입학자격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타종교인도 가능)
- 전형방법 및 일시
  ①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무시험 전형) ② 면접 : 1996년 3월 2일 13시
- 원서접수 및 교부 (우편도 가능)
  ① 96년 1월 19일 (금) ~ 96년 2월 26일 (월) 17시까지
  교부 및 접수 : Buddhist and Pali University of Sri Lanka 제1학사 관리처 2층
- 문의전화 : (02) 424-6637~8 / FAX : 424-6639

Buddhist and Pali University of Sri Lanka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17기 佛敎儀式(범음,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업 반: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 작법(나비춤) 등
■ 모집인원 : ○○명
■ 교육기간 : 3개월(각 과정)
■ 구비서류 : 본대학 소정원서 사진 1매
■ 원서접수 : 1996년 1월 8일 ~ 2월 15일
■ 개강일시 : 1996년 2월 15일 오후 5시 정각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10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에서 종묘방향
구산빌딩 앞 경한빌딩 2층
전화 : 741-0495~6 / 팩스 : 763-4603

海東佛敎大學
儀式敎育院
學長 張二斗
院長 鄭大隱

海東佛敎大學

-통신 수강생 모집-

◉ 법사(法師) 과정
고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신심이 돈독하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로서 20세 이상의 남녀.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단기간 내에 과정을 수료하여 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삼장법사(三藏法師) 과정
대졸 학력 이상의 불자, 불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 포교원 또는 암자를 설립·운영하실 분으로 불교지도자로서 자질에 손색이 없는 25세 이상의 남녀 불자.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 단기간 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국제 포교사(國際 布敎師) 과정
승속·성별·연령·학력 제한 없이 해외포교를 원하시는 분이거나 해외거주 동포로서 불심이 돈독한 분이면 가능.
■ 과목: 영어(필수)·해당지역언어·불교 전반
■ 시간: 매주 火·木·金 오전 10시~12시, 오후 5시~7시
※ 통신도 가능

※ 본 대학에서는 87년부터 95년까지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불교관계 고수님과 석학 승려들의 강의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통신강의 수업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통신 과정 수업은 시간·장소에 구애를 받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지금은 타계하셨거나 은퇴하신 원로 교수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법사나 삼장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서신 주시면 자세한 안내서·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시 입학 가능※
문의처 : 110-320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10 경한빌딩 2층
해동불교대학 교무처 전화 : 741-0495~6 / 팩스 : 763-4603

海東佛敎大學
학 장 장이두
대학원장 김지견

'苦의 원인' 직시…연기론 중시

보르헤스의 ② 불교강의

보르헤스의 불교사상

이성 집착하는 서구사상 대안 제시

색즉공 기초 '환상적 사실주의' 추구

편역자

김 홍 근
〈외대강사 · 문학평론가〉

20세기가 저무는 지금 보르헤스가 인구에 회자되는 이유는 그의 작품이 서구의 지성들에게 끼친 영향력 때문이다. 이성을 중시하는 헤레니즘과 계시를 중시하는 헤브라이즘 사이에서 사상적 변전을 거듭해왔던 서구사상의 흐름이 18세기 이후 계몽주의와 과학주의에 의해 이성 중심의 극단적 지적 편향을 보였을 때, 편협한 이성주의의 한계를 누구보다 먼저 예리하게 지적하고 그 극복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 보르헤스이다.

상호텍스트 이론 정립

20세기 후반부에 세계 지성계를 리드하는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모리스 블랑쇼, 쥬네트 등 프랑스 후기구조주의 철학자들과 평론가들 그리고 존 가드너, 토마스 괸천, 존 바스 등 미국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사상적 원천으로서, 정신적 아버지로서 보르헤스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보르헤스가 그들에게 끼친 공통된 영향은 그가 보여준 '이성주의적 이분법-주체와 객체, 자아와 타아등-의 붕괴'이다. 보르헤스의 이런 사상은 물론 불교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불교에 대한 보르헤스의 관심은, 〈알레프〉에서 보여준 불타가 깨달음에 도달한 순간에 직관했던 시공을 초월한 세계의 모습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 '깨달음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불타가 녹야원에서 처음 법륜을 굴렸을 때의 설법이 그 '깨달음'의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고, 집, 멸, 도의 사성제와 그 바탕이 되는 삼법인 즉 제행무상(諸行無常), 일체개고(一切皆苦), 재법무아(諸法無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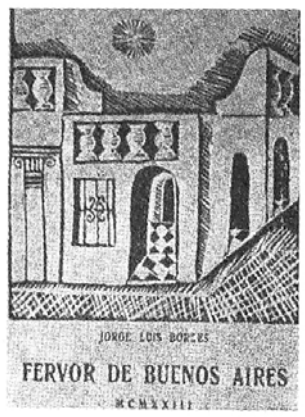
석가가 깨달은 내용의 핵심을 전하는 사성제와 삼법인은, 현실의 실상을 직시한 결과로 보게된 인간 존재의 참된 모습을 보여준다. 인간을 구성하는 오온은 실체가 없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이며, 고의 원인은 인간의 집착에서 오며, 집착은 인간의 무지에서 온다. 여기서 보르헤스는 서구의 이성주의가 안고 있는 고를 깨닫고 그것이 신, 로고스 혹은 제일원인 같은 '근원'과 '중심'에 대한 집착에서 온 것이라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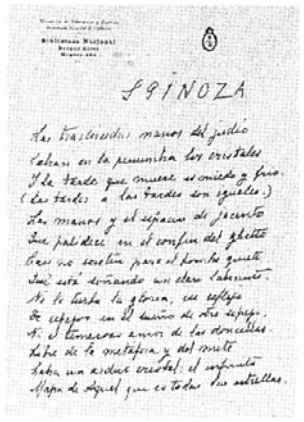
보르헤스는 근원과 중심을 추적해 보았다. 그것은 형이하학적, 공간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었다.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의 중심은 바티칸에도, 예루살렘에도, 메카에도 없었다. 따라서 형이상학적인 중심을 추구할 수 밖에 없고, 그때 그가 만난 세계의 중심은 '한권의 신성한 책' 혹은 '도서관'이었다. 이때부터 보르헤스에게는 '도서관'의 이미지가 항상 따라다녔다. 그는 도서관에서 태어나, 도서관에서 살다가, 도서관에서 죽고, 도서관에 묻힌 작가였다.

그러나 그는 그가 추구했던 책과 도서관을 영원히 만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담고 있고 모든 것의 근원을 담보하는 한권의 신성한 책을 상정하면, 그 순간 그 책은 이미 다른 '책'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즉 어떤 책도 고유의 실체를 가진, 자성을 지닌 책이 될수 없기 때문이었다.

책이 성립하려면, 언어의 체계가 사전에 필요하고, 언어의 체계는 인간의 사회가 형성되어야 하고… 즉 모든 책은 끊임없이 이전의 다른 책의 존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그가 깨달은 것은 '제법무아'였다. 모든 책은 고유한 자성을 가질 수가 없다. 모든 책은 다른 책들과의 인연소기(因緣所起)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이었다. 중심이 해체되고, 근원이 부정되자, 그의 관심을 끈 것은 텍스트들의 관계성이었다. 이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이론인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다.

현상적인 모든 사물은 모두 인(직접원인)과 연(간접원인)에 따라 생긴다고 보는 연기론에 텍스트를 대입하면 그대로 상호텍스트성 이론이 되는 것이다. 모든 사상(事象)이 서로 관계되어 성립하는 것처럼, 모든 책은 이전과 이후의 다른 책들과 밀접한 연관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결국 근원적인, 세계의 중심이 되는, 오리지날한 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중심의 부정은 '다원(多元)'을 낳고, 실체의 부정은 '상호관계성'을 낳는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개념중의 하나인 '다원주의'는 이렇게 '상호텍스트성'과 동전의 앞뒤면같은 관계를 가진다.


JORGE LUIS BORGES
FERVOR DE BUENOS AIRES
MCMXXIII
◇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열정' 초판본 표지


SPINOZA
◇ '스피노자'란 소네트 형식을 가진 시의 원본

부정의 극복은 대긍정

한편 한권의 책이 다른 책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성립된다면, 독창적인 작품을 생산하는 작가라는 개념도 의심받게 된다. 과연 그만의 오리지날한 작품을 쓰는 '작가'가 존재할 수 있는가? 제법무아는 '작가'에게도 어김없이 적용되고, 작가도 연기법-상호텍스트성을 벗어날 수 없다.

여기서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개념인 '작가의 죽음'이 탄생한다. 색과 공 사이의 경계를 허물리고, 다른 텍스트들과 대화를 시작하게 된다. 여기서 종교다원주의적 발상이 싹트게 된다.

제법무아의 시각에서 세계가 공이라고 하는 사상은, 객관적 현상을 실체로 인정하고 그 드러난 모습에 충실하려는 리얼리즘 문학과는 양립하기가 어렵게 된다. 보르헤스는 리얼리즘 작가들과는 달리 현실을 공(空)으로 보았다. 그는 '공'을 서구적인 용어 내에서 '환상(幻想)' 혹은 '환영(幻影)'으로 표현했다. 만일 현실 자체가 환영(마야)이라면, 그 현실을 충실하게 그려낸 문학작품은 '환상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면 할수록, 그 작품은 더욱 환상적이 된다. 그는 자신의 문학을 '환상적 사실주의'라고 부른다. 환상적 사실주의는 '색즉시공'의 문학적 표현이기도 하다.

제법이 무아라는 것, 제행이 무상이라는 것, 세상의 중심이 없다는 것 등의 생각은 현실에 대한 정직한 직시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것은 결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다. 오히려 무아이기 때문에 모두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 무상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세계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보르헤스의 글들은 서구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의 씨앗을 제공했다.

나의 수행일기

맹란자 〈역문관서우회 회장〉



물고기가 물을 만난듯 용솟음치는 기쁨으로 나는 그때 들떠 있었다. 심기일전하라는 뜻에서 광우스님께서는 기차표와 용채까지 내주셨다. 부산일대에 소문이 자자하던 경봉스님이 뵙고 싶어 초행인 극락암을 찾기로 하였다.

우연히 같은 버스에서 동행이 된 효봉스님과 소달구지를 타고 짙푸른 녹음속으로 들어갔다. 전생(前生)에 와 본듯, 낯설지 않은 길이었다. 스님은 글씨를 쓰고 계셨다. 묵향이 확 끼쳐왔다. 삼배를 드리고 나니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다. 서울서 왔다는 것과 광우스님, 김동화선생님, 그리고 〈금강경〉공부를 하고 있다고 차례로 말씀드렸다. 스님은 넌즈시 안경넘어 나를 건너다 보시더니 내 앞일이 보이시는 것처럼 몇마디로 말씀을 요약해 주셨다. 그리고는 처음보는 질푸른 잎즙을(말차였음) 먹으라고 내주셨다. 옆에는 먹이 아직 덜 마른 글씨가 놓여 있었다. 한번 새겨보라고 하셨다. 지금 우리 아이방에 걸려 있는 '관세음보살 대의왕, 대자비 구고구난 현일체색신 영득해탈(觀世音菩薩 大醫王 大慈悲 救苦救難 現一切色身 令得解脫)'이 그 때 받아온 글씨이다.

그 후 나는 경봉스님 말씀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계속해서 불교 일을 하게 되었다. 울타리 없는 고아처럼 결혼을 하여 첫아이를 갖고 힘이 들었던지 한달 반가량을 남겨놓고 조산(早産)을 하게 되었다. 인큐베이터에서 한달을 남겨놓고 집에 돌아온 아이는 그날밤 열이 40도를 오르 내리며 밤새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보채는 아이를 안고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부처님께 약속을 드렸다. '부처님이시여, 10년동안 부처님을 위해 무엇이던 하라는대로 종질이라도 할 터이니 이 아이 목숨만 살려 달라'고

부처님 그늘 30년…모든 인연 소중

살아온 날들은 나를 찾고 조절한 정진의 시간

감로병중법수향, 세탁마운생서기 소제열뇌 획청량'의 댓구(對句)였다.

거기서 있었던 아름다운 일 극락지일야(極樂之一夜)를 기행문으로 쓰자 박경훈선생께서 불교신문에(66년 9월) 전문(全文)을 실어주셨다. 경봉스님께서 하룻밤 재워보내라는 말씀이 계셨다기에 추억에 남는 일야(一夜)를 만들었던 것이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내가 머무른 방이 삼탁자(三樂子) 석정스님의 방이었고 그때 스님께서는 출타 중이셨다.



내 나이 스물다섯이었다. 그후 법련사 현호스님이 주관이 되어 서울 신문회관에서 있었던 전시회에서 석정스님을 직접 뵙게 되었으니 그로부터 5년뒤의 일이었다. 결혼을 하여 두 아이를 데리고 남편의 전근지를 따라 부산에 가게 되었는데 온천장 길거리에서 스님을 또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부산대학교 뒷마을에 살았고 스님은 금어암에 계셨는데 같은 동래구 장전동이어서 자주 찾아뵙게 되었었다. 그러니까 1973년도부터 석정스님께서는 〈신행회보〉의 글을 연재해 주시게 된 것이다.

작년 겨울호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신행불교〉지에 스님은 '신행불교회향송'을 지어 보내셨는데 거기에 광우스님과 맹보살의 字를 넣었다면서 "천우감로지기윤(天雨甘露地己潤) 난무직장향부진(蘭茂直場香不盡)"이라고 쓰셨다. 얼마나 또 깊은 불연이(佛緣)이던가.

차길진씨가 내 전생을 일러 비구니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숙세에서 영산회상의 인연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후, 나는 경봉스님 말씀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계속해서 불교 일을 하게 되었다. 울타리 없는 고아처럼 결혼을 하여 첫아이를 갖고 힘이 들었던지 한달 반가량을 남겨놓고 조산(早産)을 하게 되었다. 인큐베이터에서 한달을 남겨놓고 집에 돌아온 아이는 그날밤 열이 40도를 오르 내리며 밤새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보채는 아이를 안고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부처님께 약속을 드렸다. '부처님이시여, 10년동안 부처님을 위해 무엇이던 하라는대로 종질이라도 할 터이니 이 아이 목숨만 살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이는 이틀이 지나자 점점 나아졌고 며칠 있다가 정각사 광우스님께서 우리 집으로 건너 오셨다. 청년법회를 지도하던 서윤길선생이 학생들과 '소식지'를 만들어 왔는데 그것이 끊어지게 되었으니 해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다. 나는 마음속으로 '아! 부처님의 응답이시구나' 하고 그자리에서 약속을 드렸다.

10년을 채우고 나니 정수직업훈련원에 발령을 받게 되었다.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여 6년간 국어교사로 재직했으니 형편이 어려워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의지처가 되어주라고 아마 부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더니 홍정식선생님께서 "이것도 불은(佛恩)이렸다"하시며 격려해 주시던 모습이 오래전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벌써 26년이나 되었다.

1969년 월간 〈신행불교〉를 만들면서 나는 늘 부처님 말씀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 작업은 내 마음을 여과 시켜주는 수행의 시간이었으며 부족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정진의 시간이기도 하였다.

돌이켜 보면 나를 조절하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아 들어가는 일에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목동청소년회관에서 광우스님을 모시고 함께 지낸 3년동안도 불사아닌 것이 없었다. 너무나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생각된다.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6 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개설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 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성철스님의 백일법문(上, 下)을 부교재로 선택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8기생**을 모집함.

2.교과목 및 강사

1년 교과목	불교학개론, 선종사상, 밀교사상, 불교미술, 포교방법론, 근본불교, 대승불교, 비교종교론	무진장스님(전포교원장),종범스님(승가대교수),인환스님(동국대교수),최봉수(동국대교수),성본스님(동국대교수),서윤길(동국대교수),한정섭(불교화교원장),정병조(동국대교수),홍윤식(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정토사상, 법화사상, 화엄사상, 반야사상	정락스님(전포교원장),권기종(동국대교수),한보광스님(동국대),암도스님(전포교원장)오형근(동국대교수),김영태(동국대교수),박종(불교통신대학장),이만(동국대교수),정승석(동국대교수),권탄준(동국대교수)

3.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1996년 1월3일~1월31일·입학금 150,000원 (교재제공)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6시 총무원 불교회관 1층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자만 가능

4.개강일시 1996년 2월3일(토) 오후 6시(총무원 1층 불교회관)

5.원서교부처 ◎본대학 및 동산반야회 사무국(732-1206~8, FAX:732-1207)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733-0333) ◎부산 : 불서보급사(246-4321)
◎대구 : 삼영불교서림(425-4097) ◎대전 : 보문서점(257-0151)
◎광주 : 금강불교백화점(671-0451)

6.원서접수처 본대학 사무국(110-170 :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총무원 1층)

※특전사항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 포교사자격을 수여함.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대한불교 정토회 포교사양성 전문기관
제1회 1996학년도 입문반 및 연구반 1학기
본원포교사양성소 신입생 모집

신입생 모집 취지

한국불교의 전통인 원효스님의 통불교는 불교적인 모든 요소를 모아놓은 잡불교가 아니라 본원으로써 팔만사천 경전을 회통시킨 불교입니다. 그리고 본원이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본원을 모르면 불교를 알 수는 있어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본원을 포교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1996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교 과 목

*입문반(전후 각 3개월씩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주 2회 강의)

전반	불교사입문, 불교교리입문
후반	불교경전입문, 불교신앙입문

*연구반(4학기 6개월씩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주 5회 강의)

1학기	*무량수경 *금강경 이행품 *십문화쟁론 유식사상
2학기	*정토경전 *화엄경 정토론 *무량수경종요 중관사상
3학기	*법화경전 *정토론주 *금강심매경론 선택집 여래장사상
4학기	*법회경 안락집 *대승기신론소 최사론 교행신증

강 사 진

釋晩鎭 스님 (전대학 교수, 현 대한불교정토회 회장)
釋雲齊 스님 (전대학 교수, 현 往山寺 조실)
석한탑 스님 (전불광회 회장, 현 安國寺 조실)
釋道賢 스님 (현 光明寺 주지)
劉明鍾 박사 (전 동아대학교 교수 현 명예교수)
이종후 박사 (전 영남대학교 교수, 현 명예교수)
사또시게끼 박사 (현대불공과대학교 종교학 교수, 승려)
후지요시나리 박사 (현 일본용곡단기대학교 불교학 교수, 승려)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 입문반(6개월 과정) ○○명
입문통신반(6개월 과정) ○○명
연구반(2년 과정) ○○명
연구통신반(2년 과정) ○○명

*지원자격
• 입문반은 불자로서 본 강의를 수강할 능력이 있는 자.
• 연구반은 입문반 수료자 또는 동등한 실력이 인정되는 자
• 통신반은 지방에 거주하거나 강의에 참석할 수 없는 자에 한함

*접수방법 : 이력서 1통을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함.
우편 142-071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56-58
본원포교원 서원사
팩스: (02) 983-8017

*교부마감 : 1996년 2월 20일

*전형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접수마감 : 1996년 2월 28일 (마감일 소인 유효)

*특전 : 1) 연구반 수료후 소정의 시험을 거쳐 본원포교사로 임명
2) 본원포교사가 되면 서원사를 중심으로 포교사 활동
3) 사찰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2년간의 연수기간을 거쳐 서원사의 지원하에 사찰운영 가능

*문의 : 907-6003, 997-6905, 906-6082, 988-7484

*개강 : 1996년 3월 2일

*수험료 : 입학금-3만원, 입문반-각 과목 당 10만원
연구반-각 과목 당 20만원

대한불교 정토회 본원포교원 서원사 부설 본원포교사양성소

새로나온 책.....

▲대승불교(문을식 옮김)=초기 대승불교의 사상과 그 전개를 주요한 경전을 들어 해설하고 인도 대승불교의 2대 학파, 중관과 유식에 대해 설명해 놓았다. 〈여래, 8천원〉



▲콧물은 달다(이종웅 지음)=소타다 장 발라 동여 매고 모닥불 헤적이며 메뚜기 구어먹던 소년, 지금 나는 누구인가. 얽매임없이 천진난만하게 살고 싶은 50대 저자의 수필집.〈창문가, 7천원〉



▲아기잠자리(김종상 지음)=불교아동문학회 회장 김 종 상 시인의 동요 작곡집. 95 대 한 민 국 동 요 대 상 수상을 기념해 나온 이 책은 125명의 작곡가들이 지은 4백여곡의 노래가 수록돼 있다. 〈한국음악교육연구회, 8천원〉



▲자연, 사람, 그리고 한의학(김명호 지음)=우리 한의학은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심신의학'이다. 지구와 자연과 사람, 한의학의 이치 등이 '생명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논리.
〈역사비평사, 8천5백원〉

탱화 5천여점 집대성
'한국의 불화' 발간



한국 전통회화의 정수인 탱화(幀畵) 5천여점을 집대성하는 〈한국의 불화〉 간행 대작불사가 본격화됐다.

사단법인 성보문화재연구원(이사장 정우·원장 범하)은 최근 〈한국의 불화〉 제8권 '직지사 본말사편(上)'을 첫권으로 발간(불지사), 2005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41권을 간행하는 〈한국의 불화〉 시리즈 편찬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석정 스님



◇범하 스님

이번에 첫 결실을 본 〈한국의 불화〉(전 41권)는 타블로이드판 규격의 각권 260~280쪽 내외의 분량에 130여점의 탱화를 수록, 전체 약 5천여점의 탱화를 집성하게 된다. 수록내용은 전국 사찰과 국내외 소장 탱화로 후불탱 보살탱 신장탱 괘불 각부탱(各部幀) 영탱(影幀) 도량장엄 등의 종류를 담게 된다. 또 부록에 탱화 조성 인연 및 조성자·시주자 등을 수록한 화기(畵記)와 한국불화에 관련된 주요 논제를 선정 수록하게 된다.

이 편찬사업의 특징으로는 찰소장 주요 탱화류 및 국내외 소장 탱화로 후불탱 보살탱 신장탱 괘불 각부탱(各部幀) 영탱 전국 사찰과 국내외 소장 탱화의 80% 이상(일제시대 이후 제작물 제외)을 수록하는 거대한 사업이란 점과 원본과 부분도를 각각 수록, 불모(佛母:탱화를 조성하는 이)들이 전통 탱화의 조성법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지난 89년 12월 전국사찰 불화조사단의 회주를 맡으면서 이 불사에 원력을 쏟아온 성보문화재연구원 총재 석정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은 편찬사업 추진의 동기를 "성보의 도난과 인위적 또는 자연훼손에 대비, 기록을 남기고 후손들에게 연구자료를 물려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미 확보한 조사필름만도 7만여컷에 달하는 방대한 연구성과를 집적해 온 성보문화재연구원장 범하스님(문화재위원)은 "조계종 지원아래 교구본사별로 전국의 사찰불화를 연차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아울러 국내외(북한포함) 박물관 및 개인이 소장한 고려불화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 1차분(제1~20권) 간행의 완료와 함께 고려불화도 집대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달말까지 '직지사 본말사편(하)'을 완간하고 '통도사 본사편(상·중)'을 3월에, '통도사 말사편(하)'을 7월에 각각 출판한다. 동시에 해인사·월정사 본말사 탱화에 대한 촬영 및 편집을 연말까지 완료, 책을 낼 예정이다. 또한 편집되는 모든 자료를 전산화 해 CD롬제작도 동시에 준비하고, 연1회 학술회의를 열고 학술지 〈성보문화〉를 펴낼 계획이다.

한편 석정스님은 오는 3월20일과 4월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과 부산 국제문화회관에서 출판기념회 및 사업기금조성을 위한 개인전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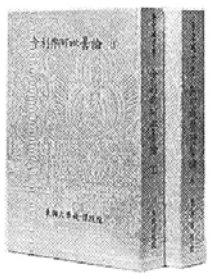
김재경 기자

'직지사 편' 첫선 2005년까지 총 41권 완간
북한·해외자료등 조사정리 CD롬 제작도

역경원 '발지론' '아비담론' 국역

동국역경원(원장 월운)의 새 한글대장경 〈아비달마발지론外〉와 〈사리불아비담론 1〉이 나왔다.

〈아비달마발지론〉은 부파불교의 일파인 설일체유부 교학의 기초를 체계화한 논서다. 모두 8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다연니자(迦多衍尼子)를 비롯한 성문들이 결집했다. 아비달마라고 하는 말은 뛰어난 승의의 법(勝法), 혹은 법에 대한 논의(對法)으로 해석되어 전자는 팔리 상좌부의 경전으로, 후자는 〈구사론〉을 중심으로 한 유부계의 전승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리불아비담론〉은 4부 33품으로 이뤄진 논서로 제법(諸法)의 체성(體性)을 밝히고 제법의 상호관계와 원인을 밝혔다. 사리불의 불교사상에 입각해 저술된 아비달마 논서.

최초 寺報 '신행불교' 종간
광우스님 1961년 등사본 발행

'불교계 최초의 사보'로 기억되고 있는 '신행불교(信行佛敎)'가 지난 겨울호를 내고 종간해 아쉬움을 크게하고 있다.

교계에 이렇다 할 만한 신문이나 잡지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1960년대 초 불교의 생활화·대중화·현실화를 널리 뿌리내리고자 신행의 계몽지로서 발을 내디딘 '신행불교'의 처음 이름은 '신행회보'.

1961년 청년법회의 소식지로 제작된 '신행회보'는 철필로 긁어서 만든 등사본으로 시작했다. 1969년부터는 월간(月刊)으로 86년까지 이어오다 86년부터 제호를 계간 '신행불교'로 바꾸었다.



변변한 포교지가 없어 불교지식에 목말라하던 시절 '신행불교'는 대은·석정스님 김동화 홍정식 원의범 박선영 서윤길 교수등이 필자가 되어 문서포교에 앞장섰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35년간을 '무가'로 발행해 오며 문서포교에의 원력을 보여온 발행인 광우스님(정각사 주지)은 "많은 회·사보가 발간되고 있는 지금 '신행불교'가 그 밑거름이 됐을 것이라 자부하며 아쉽지만 '신행불교'지의 문을 닫는다"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문체부 추천도서 중 불서 86종
68년~95년 목록 분석

68년부터 95년까지 선정된 문체부 추천도서 2,282종 가운데 불서는 3.76%인 86종이다. 이중 문학분야의 불서는 8종으로 전체 선정도서(521종)의 1.5%를 차지했다. 또 아동불서는 아동부문 선정도서 501종의 1%에 불과한 5종으로 드러나 종은 불서 만들기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가 '문학의 해'와 더불어 '불교청소년의 해'로 지정됐음을 감안할 때 문학·아동분야 양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문체부 추천도서로 선정됐던 86종의 불서를 소개한다.

◇68년~95년 '문체부 추천도서' 불서목록

분류	도 서 명	저·편·역자	출 판 사
종교·철학 (37종)	신라신종의 연구	정성본	민족사
	운주사	이태호 외	대원사
	불교를 알면 21세기가 보인다	한국불교사회연	정토출판사
	의상 화엄사상사 연구	김혜주	민족사
	진각조사어록	김달진	세계사
	동양의 논리는 어디에 있는가	박동환	고려원
	한국종교 사상사(Ⅰ~Ⅴ)	정병조 외	연대출판부
	계담집, 돈오점수인가 돈오돈수인가	장건기 외	민족사
	미리내뼈	예반스윈츠/이정심	고려미디어
	한국선사상연구	한기두	일지사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별기	은정희 역주	일지사
	동사열전	김은세 역	광제원
	불교목공예	박천수 글, 윤영수 사진	대원사
	불교사상과 서양철학	에드워드콘즈커/김종욱	민족사
	한국불교사의 연구	홍윤식	교문사
	불교-그 현대적 조명	박용길 역	고려원
	붓다차리타	마명/김달진	고려원
	보조국사전서	지눌/김달진	고려원
	한국고대종교사상	이은상	집문당
	인도철학사	길희성편	민음사
	탑타의 세계	中村元/김지견	김영사
	신원오천추국전	김종욱	한국방송사업단
	한국불교사연구	인계현	동화출판공사
	조선시대 사원경제 연구	김갑주	동화출판공사
	한국이북신앙의 연구	김상룡	동화출판공사
	고려화엄사회의 연구	장충식	아세아문화사
	반야심경	석지한 역	일지사
	법화경	이완섭 주해	삼중당
	탑타의 말씀-수따니 빠따	원의범 역	삼성미술문화재단
	탑교와 현대사상	김용정 외 6인	동화출판공사
	한국불교사상연구	한기두	일지사
	불교대전	한용운 편/이원섭	현암사
	신역금강경오가해	김운학	현암사
	부처님 말씀	은재영	왕산법화사출판부
	한국의 탑교	이기영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석가여래 일대기	김대은	삼장원
	한용운일대기	임중빈	정음사
예술 (28종)	강로탱	강우방 외	예경산업사
	한국의 석조미술	진홍섭	문예출판사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서서	최순우	학고재
	한국미술사	김원룡	서울대출판부
	한국의 전통건축	장경호	문예출판사
	원융과 조화	강우방	열화당
	한국의 탑상	황수영	문예출판사
	한국고대탑교조각사연구	김리나	일조각
	한국회화의 전통	안휘준	문예출판사
	한국미술사연구	김원룡	일지사
	문화재대관(전 8권)	한국문화재보호협	문화당
	한국미술사자료집성(Ⅰ)	진홍섭	일지사
	동양의 미화전 6권)	안휘준 외	등불
	국보(4, 5, 11, 12)	신영훈 외	예경산업사
	고려탱화의 연구	홍윤식	동화출판공사
	국보(1, 2, 3, 6, 7, 8, 9, 10)	신영훈 외	예경산업사
	한국미술사연표	진홍섭	일지사
	한국고미술의 이해	김원룡	서울대출판부
	탑교음악연구	한만영	서울대출판부
	정종 동양화기법(전 10권)	안동숙	이조사
	한국조각사	문명대	열화당
	도설한국미술오천년	최순우	한양사
	중앙아세아회화	권냉뷔 역	일지사
	한국의 탑화	문명대	열화당
	한국의 탑상	진홍섭	일지사
	한국의 탑교미술	황수영	동화출판공사
	한국미술사	김원룡	범우사
	한국회화사	안휘준	일지사
문학 (8종)	인도기행	강석경	민음사
	한국선시	김달진	열화당
	연(蓮)과 바람	정원영	가람출판사
	한용운문학연구	김재홍	일지사
	탑교문학의 이론	김운학	일지사
	금수회자와 인생길	송보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정진 님의 침묵	송욱	과 학 사
	한용운전집(전 8권)	박종홍 외권	신구문화사
역사 (5종)	역사로 읽는 원효	김상현	고려원
	유교정치와 탑교	한우흔	일조각
	신라사상사 연구	이기백	일조각
	신라사	신형식	이대출판부
	혜초의 길 따라	고병익	동아일보사
아동 (5종)	신라이야기 1, 2	윤경렬	창작과 비평사
	어린이 삼국유사	일연	민족문화문고간행회
	부처님이 지으신 동화	이종기	법법출판사
	삼국유사 이야기	박양은 역	자유교양추진회
	석가의 교훈	최인욱	을유문화사
기타	화엄경	홍정식 편저	삼성미술문화재단
	한국전통목조건축도집	한국건축가협	일지사
	한국고고학개설	김원룡	일지사

화제의 책

한중불교문화교류사 — 권오철 옮김



4세기 삼국시대 중기부터 15세기 조선초까지 1천여년에 걸친 한·중간의 불교문화교류사를 전체적으로 조명한 〈한중불교문화류사〉가 번역됐다.

중국 조선족 출신 황유복(중앙민족학원 한국문화연구소장)교수와 중국인 학자 진경부(협서성사회과학원)교수가 공동저술한 이 책은 특정 시기나 종파, 인물, 전적에 국한됐던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달리 두나라 불교문화교류를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책은 또 양국간 전적과 종파·사상의 교류의에도 건축·탑파·음악 회화등 불교예술분야의 교류사까지 포함, 한·중 불교문화교류의 모든 것을 집대성하고 있다. 특히 한국승려들의 중국에서의 구법활동이 중국불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혀 눈길을 모은다.

〈까치, 1만5천원〉

한중 사상·문화등 협조관계 조명

출판 단신

'실상과 문학' 겨울호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김문숙)의 계간지 〈실상과 문학〉 겨울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는 김용구씨의 '삶의 용기'등 수필 15작품을 비롯, 시 시조 동시 에세이 소설 동화 등 40여편의 작품이 발표됐다.

(051)628-0830

'우리의 전통예절' 발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우리의 전통예절을 알기 쉽게 풀이한 〈우리의 전통예절〉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은 가정과 직장, 예절과 관혼상제, 명절음식과 음식먹는 법도 등 누구나 지켜야 할 예절 전반을 담고 있다.

'도서관 운영 사례' 모음

문체부는 지난 한해동안 도서관과 문고 등에서 제각기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대민봉사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운영사례를 모은 〈도서관·문고 운영사례〉 책자를 발간했다.

(02)722-9181

◇기사넘쳐 '명사추천 불서 100선' 쉽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저자	출 판 사
1	기도	일 타	효 림
2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3	도가 본시 없는데 내가 무엇을 깨쳤겠나	이 청	등 지
4	신몽	혜 윤	청 마
5	그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6	방한암 선사	김 호 성	민 족 사
7	소설 등신불	석 용 산	문학수첩
8	금강경 이야기	법 륜	정토출판
9	한글아함경	고 익 진	동대출판부
10	티벳 사자의 서	파드마삼바바	정신세계사

구입문의:(02)737-0695

1996학년도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통신 출강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 부처님 교법 따라 포교·정진·행동하는 대승의 법사!

■ 모집과정 : 법사과정 · 오종대법사과정
■ 수업안내 :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오종대법사과정 = 2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1월 5일 ~ 3월 15일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 품수와 소정의 법사자격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법사불교신문에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자격고시 거쳐)

법사교육목적
본 대학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불교학문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불교발전과 정토사회구현을 위해 포교활동하는 불교지도자적인 대승의 법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韓國佛敎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02) 720-1836 · 733-1959 · 737-5305
FAX : (02) 720-1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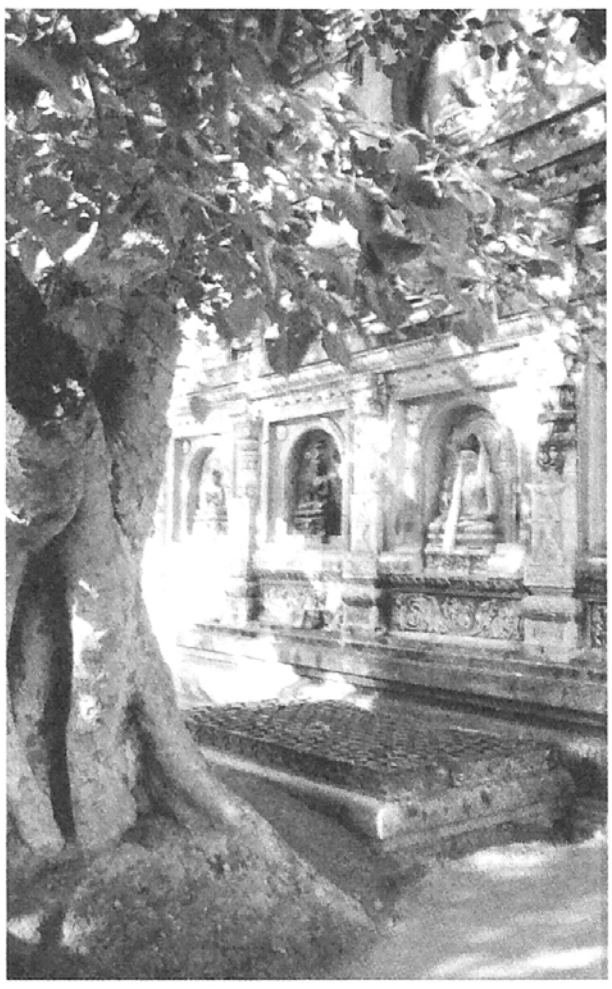
아봐타 코스 : 깨달음의 향연
—아봐타 씨리즈 제1편—
一切唯心造
(뜻대로 사는 길)
Avatar®
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부처님께서 역대 큰스님들에게 거짓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을 테이고 그런 경지를 실지로 확인하고 체득하여 活用할 수 있다면……
수십년간 구도생활을 하시고도 또 몇년 동안을 어떤 방편을 드시고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또 구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말해 근원(본래 면목, 참나, 주인공)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찾았다고 하더라도 습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셨다면 아봐타 코-스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요.
지금 국내외에서 구도자들은 물론 정신세계(심리학, 철학, 4차원 세계)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막연한 것이 아닌 확실한 방편이 여기 있습니다. 아봐타 코-스는 어떤 신념이나 이념도 요구하지 않으며, 더구나 외울 것은 하나도 없다. 마스터와 참가자 사이에 대화도 거의 필요없다. 이 코-스는 제시된 방편을 즐기는 가운데 근원을 체험하며, 자신이 이미 무한 가능성 자체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여행을 떠나듯이 충분한 기분으로 8박 9일(10일 정도)동안만 여행하는 기분으로 모두를 잊겨버리고서 참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그리고 참 나와 하나 되어 일체 유심조가 될 수 있는 확실한 방편을 접해 보십시오. 이렇게 쉬운 방편도 있었구나 하고 탄복을 하실 것입니다.
아봐타 코스 문의
☎(0631) 78-5161
호출 012-634-5161
전남 목포시 용해동 산8 대한불교조계종 일승사 한가운 이해타마스퇴 등준원장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 사 • 대표 02-737-8381
• 팩스 02-737-0697
• 광고국 02-737-0692
•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 전화 051-634-5114
•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 전화 062-375-9986
•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 전화 053-427-8008
• 팩스 053-425-8356
경기지사 • 전화 032-613-4027
•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 전화 0416-55-0020

"부처 이루었네… 꽃비 뿌리자"

성도절 특집—'깨달음의 성지' 보드가야 사진순례

"자아 꽃비를 뿌리자 부처를 이루었도다" 시인 고은씨의 순례기가 말하듯 '깨달음'은 불자들이 추구하는 정점(頂點)이다. 1월27일(음 12월8일) 성도절을 맞아 깨달음의 성지 보드가야(佛陀伽耶)를 사진화보로 순례, 부처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정각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편집자 주〉



진리의 자리

보리수와 금강보좌는 부처님 성도의 상징물이다.

음력 12월8일 샛별을 보고 싯다르타가 부처를 이루었을 때 대지가 진동했는데 길상초를 깔고 앉으셨던 자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자리를 기념하여 장방형 대리석에 마름모·세모 등 문양과 연꽃을 새긴 금강보좌가 안치되었다. 보좌에는 공양물이 차려지기도 한다. 금강좌 바로위 대탑 감실에는 부처님의 항마성도상이 모셔져 있다.

무성한 가지를 펼치고 있는 보리수는 스리랑카에서 묘목을 가져온 손자라는 설이 있으나 대보리사 보수때 폭풍우에 쓰러져 죽은 원뿌리에서 2개의 새싹이 나왔다는 기록이 있다.

보리수와 금강보좌 주위는 돌기둥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보리수의 원이름은 피팔수. 부처님이 그 나무아래서 보리를 이루었다해서 보리수가 됐다.

6년간의 극단적 고행이 최선의 수행이 아니라고 생각한 싯다르타는 전정각산 유영굴에서 내려온다. 마을처녀 수자타의 우유죽 공양을 받고 나이란자나강(니련선하)에서 목욕을 한다. 그리고 강가 언덕 가까이 한그루 무성한 피팔수(보리수)를 보고 합장한후 나무아래에 길상초를 깔고 앉았다.

"바른 깨달음에 이르기 전에는 이 자리를 결코 뜨지 않으리라."

"육체의 쾌락에는 고뇌가 따른다. 내가 자유롭게 되면 세상사람들도 자유롭게 해주리라. 바람처럼 자유롭고자 하는 나를 무엇으로 잡아 맬 수 있겠는가."

음력 12월8일 새벽 싯다르타는 금성을 바라보는 순간 우주와 자아의 실상을 깨달아 부처를 이루었다.苦의 원인을 밝혀 道에 이르는 길을 깨달은 부처님 성도를 기리기 위해 기원전 254년 아쇼카왕은 보드가야에 대보리사를 세웠다. 최초의 모습은 금강보좌와 3개와 승가람 등 간단한 형태였다.

높이 52m의 9층탑으로 위용을 자랑하는 현재의 대탑은 5~7세기 굽타왕조때 건립됐다. 12세기중반 이슬람교도들의 침략으로 황폐된채 방치되었다. 1590년 힌두교 수행자가 탑 인근의 땅을 소유하면서 힌두교 마한타들은 대탑을 관리해왔다. 19세기 초부터 미얀마의 왕들이 이곳에 공양을 올리고 보수를 요청하면서 1880~1881년 커닝햄에 의해 대대적으로 발굴 보수됐다. 그후 불교도와 힌두교도간의 소유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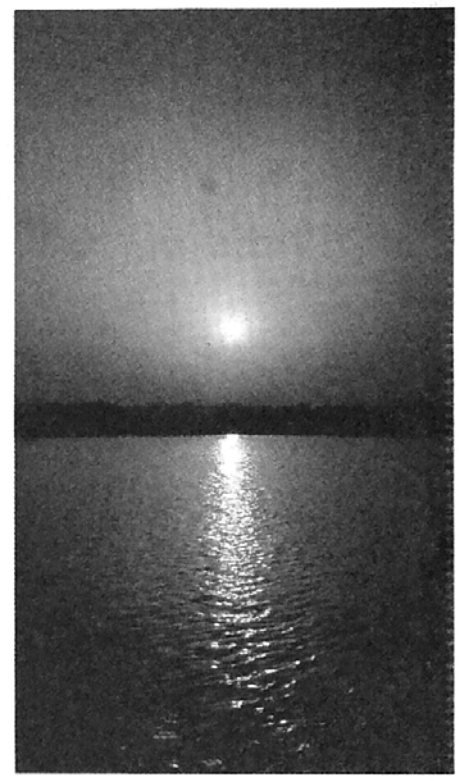
1949년 대보리사 조약이 체결됐다. 4명은 인도불교도, 4명은 보드가야 마한타 포함 힌두교도, 1명은 비하르주 정부가 임명한 힌두교도등 9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53년 마한타로부터 운영권이 운영위원회로 넘어왔고 56년 다시 대대적으로 수리하여 오늘의 성지로 가꾸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불교도의 손에 넘어오지 않아 소유권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깨달음의 성지 그곳이 없다면 오늘 불교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듯 거룩한 불교의 성지가 하루속히 불교도에게 넘어오길 성도절을 맞아 기원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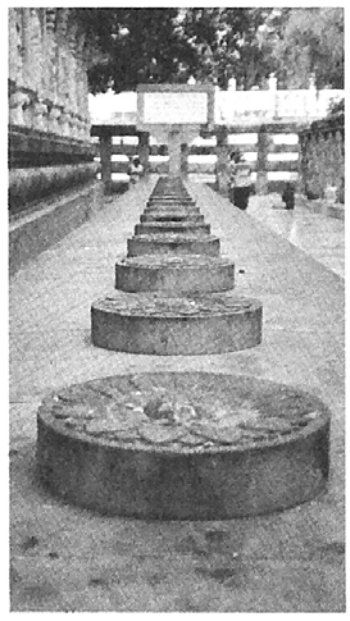
經行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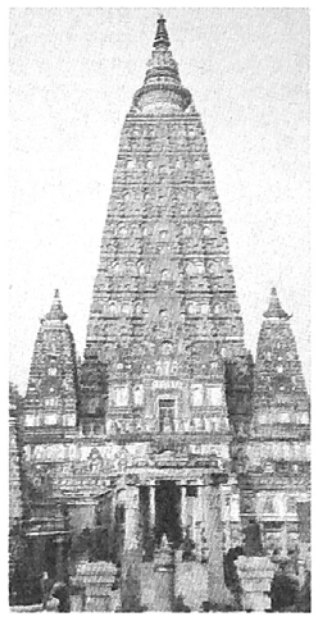
부처님이 성도한 일주일후 산책한 곳이다. 걸음을 걸을때마다 발밑에서 연꽃이 솟아 올라 부처님의 발을 받쳐주었다고 한다. 이 전설의 연꽃을 돌에 새겨 땅바닥에 심었는데 파괴돼, 그 곁에 단을 설치하고 돌연꽃 19송이를 조각해 놓았다.

나이란자나강의 일출

싯다르타 태자가 정각을 이루기 전 마을처녀 수자타에게 우유죽을 공양받고 기력을 회복한후 이 강(니련선하)에서 목욕을 했다. 대보리사탑에서 동쪽으로 500m 위치에 있다. 강건너 전정각산 수자타마을 쪽에서 떠오르는 해가 진리의 빛인양 강심을 비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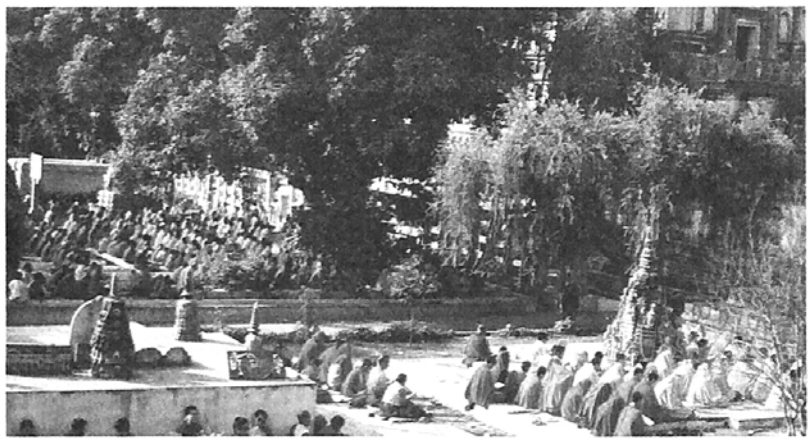






대보리사탑

우뚝솟은 이 탑(높이 52m, 9층)의 위용은 보드가야 어디서나 볼 수 있다. 보수이전 1850년경에 찍은 사진이 발견돼 커닝햄이 땅속에서 발굴했다는 그간의 설에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호진스님저 '인도불적 답사기' 참조)



보드가야의 성도절

인도에는 성도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티벳이나 한국 일본 등의 불자들이 자기나라 성도절에 맞춰 이곳을 참배, 정각의 의미를 기리고 있다. 그래서 보드가야의 성도절 축제는 여러날 진행된다. 티벳스님과 불자들은 보드가야에서 성도절을 보내기 위해 인도 각지와 부탄·시킴에서도 올 정도다. 티벳스님들이 대탑 주위에서 성도절기념 독경을 하고 있다.

전국 사찰 성도절 법회·공연등 '풍성'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성도절. 전국 각 사찰은 오는 27일 성도절을 맞아 철야정진기도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조계사(주지 현근)는 20일부터 27일까지 '생활불교 포교'와 '신행단체간의 단결·화합'을 목적으로 대대적인 성도절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20일부터 일주일간 계속될 '고승초청법회'를 시작으로 21일 대학생회의 논산 연무대 군법당 위문공연, 23일 청년회의 시낭송회와 26일 청년회의 연극 '촛불' 공연이 펼쳐진다. 또 27일에는 어린이회 반야회등 9개 신행단체의 국악, 관소리등 전통민속공연과 제등행렬 등이 이어진다. (02)720-6742

구룡사(주지 정우)는 27일 오전 법회에 이어 어린이회, 학생회의 연극공연, 구룡사 다라니 합창단 공연과 사물놀이패 '산따라 물따라', 입이조(춤꾼), 오정숙(관소리) 초청공연 등 '봉축 구룡한마당'을 펼친다. (02)575-7766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영조)도 22일 광주시민회관서 '성도절 기념법회'를 개최하고 가야금병창과 관소리등 국악공연 한마당을 펼친다. (062)376-3223

원각사(주지 법현)는 26일 김승화(찬불가 가수),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를 초청 '성도절기념 특별법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27일에는 안산 대부도 '등지 소년의 집'을 찾아 위문법회를 갖는다. (02)763-5214

정광사(주지 송암)는 27일 임동창(연주가 및 작곡가)씨 초청 구도음악 '화두 이 뭐꼬' 등이 펼쳐질 '성도봉축음악회'와 성공회 김경일 신부 초청 '21세기와 불교'라는 주제의 강연회를 개최한다. (02)598-5291

제주 죽림정사도 같은날 어린이, 중·고법회의 장기자랑 및 연극발표와 온 가족이 참여해 전통불교놀이인 성불도 놀이를 개최하며, 김제 금산사는 정락스님초청 보살사상 강연회를 개최한다. (064)56-1345, (0658)43-4441

봉은사(주지 무상)와 **관음사**(주지 종하)는 이날 미륵대불 점안식 및 십만등 불사 점등식과 지하법당 부처님 점안식을 각각 봉행한다. (02)511-6070, (02)582-8609

도선사(주지 동광)가 성도일 일주전부터 '석가모니불 칠일정근기도'를 봉행하는 것을 비롯, **무진법장사**(주지 법장)와 **사천왕사**(주지 성덕) 역시 같은 기간동안 촛불의식과 참선기도 및 금강경 법회를 각각 개최한다. (02)993-3161, (02)932-2333, (02)939-3900

이밖에도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는 '성도절 대법회'를 , **광주 관음사**(주지 도성)가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53)741-1441, (062)223-7666

다이어트 특효감비식품 국씨전영양소

— 다른 다이어트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국씨전영양소 —

단, 5일 복용으로 2~5kg 이상의 감량!!

국씨전영양소(특효감비)의 특징

- 세계최초로 완전한 천연 영양식의 감비방법으로 다이어트의 신개념을 창조
- 인체의 내분비 기능을 조절하고 지방질의 신진대사 기능을 변환
- 하루만에도 효과를 볼 수 있고 하루평균 0.5kg의 체중을 감량
- 표준체중까지 감량되고 감량된 체중은 재차 늘지 않도록 유지
- 맛이 좋으며 비만으로 인한 각종 질병을 치료
- 완전한 천연식품이고 어떠한 독성, 부작용이 일체 없다

이런 분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 남·녀·노·소 누구나 비만으로 고민하시는 분
- 다이어트를 시도,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 분
- 고혈압·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
- 지방간이나 어지러움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다한증(땀이 많이 남)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변비나 치질로 고생하시는 분
- 노화지방이나 피부미용을 원하시는 분
- 수험생의 지능향상을 위하여
- 성장발육이 부진하여 성장발육을 원하시는 분
- 체중조절이나 체형유지를 원하시는 분

성분 및 배합 비율

쌀가루 3%, 밀가루 0.8%, 보리가루 3%, 완두콩분말 3%, 콩분말 50%, 대추분말 2.5%, 연뿌리분말 1%, 호두분말 4%, 땅콩분말 1%, 다시마분말 2%, 김분말 3.5%, 굴분말 0.7%, 계란노란자건조분말 0.5%, 기타 25% → (계:100%)

중국 양귀비시대의 궁중요리「약선」의 이론을 응용한 미용, 건강, 장수를 위한 다이어트 건강식품「국씨전영양소」

비만의 원인은 지방대사의 불균형

제가 감비에 관해 연구를 시작한 것은 중남해(중국 정부고위간부 전용숙사)에서 몇명인가의 정부 고관이 비만으로부터의 병으로 사망하는 것을 본 이후 건강을 유지하면서 장수하기 위해선 우선 비만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 저는 고대 중국의학의 처방을 채용해 영양학의 관점에서 비만의 원인을 영양의 과잉섭취가 아닌 영양의 부조화와 내분비 실조, 특히 지방대사 불균형에 의한 것임을 이론으로 확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직접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지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약선의 이론을 응용한 건강식품「국씨전영양소」를 개발한 것입니다.

국씨전영양소는?

국씨전영양소는 일종의 특효 다이어트 식품이다. 중국 모택동, 등소평 및 고급 간부들의 주치 영양사이며 **저명하신 다이어트 전문가인 북경대 국민원 교수가 주관하고, 의학과 운동생리 전문가들의 협조하에서** 비만자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특수한 한방비법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연구, 제조하여 "중국의 여자역도" 선수들의 체중조절 및 영양식품으로 복용,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은 **완전한 천연, 영양 다이어트 식품**이다. **국씨전영양소**는 중국과 미국의 합자된 회사제품이며 **복용 5일이면 최저 2kg에서 최고 5kg 이상** 체중이 감량되며 인체에 필요한 영양은 공급되면서 불필요한 비만과 몸의 노폐물을 제거함으로써 혈액순환은 물론 혈압과 당뇨 등 각종 질병의 신비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감량되면 다시 비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개발자 국민원 교수(박사)약력



1973년~1978년 북경대학에서 식물학 연구
1978년 북경 영양연구소 입소
1978년 中南海(중국 고위 간부 주거지/모택동, 등소평 등 역대 중국고위관리) 食品營養 고문 임명 현 재임중
1985년 감비식품 연구 착수
1992년 8년 만에 국씨전영양소 개발완료
현 북경대 교수

문의전화
서울·기타지역 : 02-929-0211
부산·경남지역: 051-817-0337
(동원당)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43⟩

勸參禪文 (권참선문)

忽若心光 透徧 凝滯冰消
홀약심광 투루 응체빙소
直下分明 豈昧三祇之極果
직하분명 기매삼지지극과
本來具足 何放萬行之因華
본래구족 하방만행지인화
由是 宗說兼通 若果曰 廓虛空之界
유시 종설겸통 약고일 려허공지계
心身俱靜 如琉璃 合寶月之光
심신구정 여유리 합보월지광

홀연히 마음의 빛이 유루(번뇌)를 뚫어 응어리가 얼음녹듯 녹는다면
곧 바로 분명할 것이니 어찌 삼아승지겁의 극과(부쳐자리)에 어둡다 할 것이며 본래부터 구족하니 어찌 만행을 닦아 이루는 성불의 꽃이 방해를 받을 것인가. 이러므로 종통·설통함이 밝은 해가 허공에 뚜렷함과 같을 것이며
심신이 함께 고요하기를 마치 유리구슬에 보배 달의 빛이 비춤과 같으리라.

可謂 蓬生麻中 不扶自直
가위 봉생마중 불부자직
衆流入海 總號天地
중류입해 총호천지
反觀前非 方知大錯
반관전비 방지대착
忠言逆耳 敢覺逆心
충언역이 감기명심
此世他世 同爲法侶
차세타세 동위법려

불무경상 현성리양 위편
不奉君親 免事征役 爲安
불봉군친 면사정역 위안
假名服窮世緣 以靜淨 作佛事
가명복절세연 이투쟁 작불사
老不知悔 死爲猛蕾 良可悲大
로부지회 사위맹균 양가비대

농사와 길쌈에 힘쓰지 않으면서 당장의 이익과 양생으로 편안코자하며,
임금(나라)과 어버이를 받들지 않으면서 병역을 면해 편안코자하고,
법복에 빗대어 세상인연을 도둑질하며 옳으니 그르니 다투는 일로 불사를 삼고, 늙도록에 뉘우칠줄 모르다가 죽어서 원균(버섯)이 되나니(한 비구가 남의 시주물을 많이 받고 죽어서 버섯으로 태어나 갚았다함) 참으로 크게 슬퍼할 일이로다.

汝輩出家 當思齊草座之前
여배출가 당사제초좌지전
自省園菌之下 可爾
자성원균지하 가이

그대들 출가했을진대 마땅히 부처님께서 풀섶자리에 앉아 수행 정진하신 일을 생각해보고 죽어 버섯이 되어 시주 갚음한 인연도리를 스스로 살펴야 옳을 것이다.

白楊順禪師示衆 (백양순선사시중)

染緣易就 道業難成
염연이취 도업난성

중생제도 근본 잊고 입·몸만 위하는가

차세타세 동위법려

가위 쑥이 삼대 밭 가운데 나서 버팀목없이도 곧게 자라이라 이를만하고 여러 물줄기 바다에 들어 가매 모두 큰 바다라 함과 같다. 돌이켜 전비를 관하면 바야흐로 크게 그르쳤음을 알리라.
바른 충고가 귀에 거슬릴 것이나 감히 (내 말) 명심하기를 바라노라. 이 세상 저 세상에서 한가지로 도반이 될지어다.

東林混融禪師示衆 (동림혼융선사시중)

遊萬乘尊榮 受六年飢凍
피만승존영 수육년기동
不離草座 成等正覺 度無量衆
불리초좌 성등정각 도무량중
此 黃面老爺 反爲口體
차 황면노야 반위구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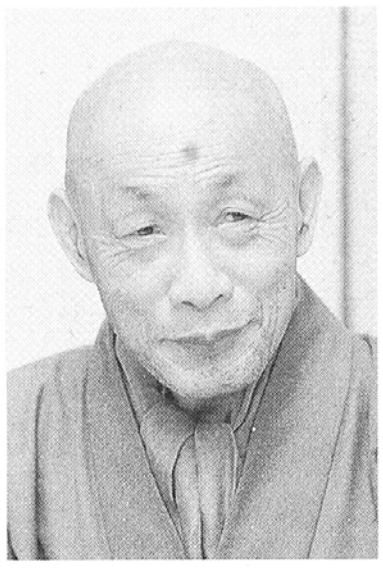
임금의 높은 영화를 마다하시고 육년간의 굶주림과 추위를 겪으시며
풀섶을 자리삼아 떠나지 않고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사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시니 이것이 부처님의 출가하신 모습이거늘 후배들은 근본을 잊고 도리어 입·몸만을 위하는가.

不務耕桑 現成利養 爲便
不了目前萬緣差別 只見境風 浩浩
불료목전만연차별 지견경풍 호호
滯殘功德之林 心火炎炎 燒盡菩提之種
조잔공덕지림 심화염염 소진보리지종
道念 若同情念 成佛多時
도념 약동정념 성불다시
爲衆 如爲己身 彼此事辦
위중 여위기신 피차사변
不見他非我是 自然上敬下恭
불견타비아시 자연상경하공
佛法興時現前 煩惱塵塵解脫
불법시시현전 번뇌진진해탈

세속인연에 물드는 것은 쉬운일이요 도업 이루기는 어려운 일이다. 눈 앞의 만가지 인연차별을 알아 마치지 못하고 다만 경계의 바람이 호호하여(경계에 걸잡을 수 없이 끄달림) 공덕의 숲은 말라 시들고 마음의 불은 크게 타올라 보리의 종자가 태워 없어지는 것을 볼 뿐이니 도념이 만약 정념같았으면(정념 일어나듯 그러하였다면) 진작에, 벌써 성불했을 것이며, 대중 위하기를 제 몸 위하듯 하면 피차 일에 힘썼을 것이다.
남의 잘못과 나의 옳음을 가려보지 않으면 자연히 상하로 공경할 것이요 (아래 위로 상응할것요) 불법이 때때로 나타나면 번뇌도 티끌마다 해탈일 것이다.(불법이 시시각각 끊이지 않으매 번뇌망상이 그대로 깨달음이니라.) **龍眼**

성도 절 특집 — '깨달음' 주제로 한 지상법석

"삼독심 정화되는 찰나



운 제 스님
⟨전 태고종 총무원장⟩



진 제 스님
⟨해운정사 조실⟩

음력 12월8일은 부처님께서 도를 깨달으신 거룩한 날입니다.
부처님의 일생은 거룩하시기에 역사가들이 대개 팔상(八相)으로 말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불가에서는 네가지의 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4월 8일이요, 둘째는 출가하신 2월 8일이요, 셋째는 도를 깨달으신 12월 8일이요, 넷째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2월 15일입니다. 이 날들은 다 기념해야 하는 중요한 날이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기념해야 하는 날이 성도절입니다. 그것은 수없는 중생들이 탄생하였고 수없는 수행자가 출가하였고 수없는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다 갔지만 부처님만이 성도하셨으니 부처님은 성도를 통하여 탄생을 더욱 값지게 하였으며 출가를 더욱 보람되게 하였으며 열반을 더욱 의의있게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의 성도는 우리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새벽하늘의 샛별로 높이 평가받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성도로 우주의 올바른 이치와 인생의 참다운 큰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성도를 이해하기 위해

"인연 연기법 아는 길 나와 남 함께 동참"

우리는 6년동안 도를 닦으신 직접적인 동기와 사문유관(四門遊觀)이라는 간접적인 동기를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법을 위하여는 몸을 잊는 철저한 구도의 마음과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절대적인 중생구제의 종교적인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학자들은 부처님의 성도를 인연법(因緣法)의 깨달음으로 보았고 중국의 학자들은 마음의 깨달음으로 보았습니다.
일본 학자들은 인연법으로 이루어진 현상계를 중요하게 보았고 중국 학자들은 현상계를 이룬 것이 마음이라고 보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불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성도의 내용을 마음의 깨달음으로 보는 이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성도를 위해 6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도를 닦으셨고 최후에는 설산계(雪山偈)의 이야기처럼 인생의 가장 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몸까지를 잊으셨기에 그뒤의 불교수행인에게 큰 유훈을 남기셨습니다. 달마의 제자 혜가스님은 입설삼척(立雪三尺) 단비구도(斷臂求道)로 끝내 달마의 인허(印許)를 받으셨으며 우리 나라의 왕화상(王和尙)은 불공삼장(不共三藏)의 밀에서 도를 구하기 위하여 불이 이글거리는 화로를 머리에 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뚜이 박사는 인생의 큰 문제를 3가지로 보았으니, 첫째는 인간의 존엄성 확보요 둘째는 문제의 해결이요 셋째는 행동의 변화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성도하신 내용과 똑같은 말입니다. 성도절에 다시한번 부처님의 삶을 돌아봅시다.
부처님의 성도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왕궁을 버리고 태자의 지위를 버리는데는 그보다 더 큰 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종교계는 수정주의(修定主義)와 고행주의(苦行主義)가 유행했습니다. 부처님의 성도는 수정주의보다 고행주의보다 더 위였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보편적인 문제에 착수하고 나와 남이 함께 진리의 길에 동참한다는데 뜻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야 하고 인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신 뒤 최초의 말씀인 〈화엄경〉이나 최후의 말씀인 〈법화경〉과 〈열반경〉의 말씀이 모두 인간의 자각을 일깨우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윤회 굴레 벗어남은 자기수행 여하따라"

(주장자를 들어 법상을 한 번 치시고 말문을 여신다)

맑은 바람이 항상 불고 있고
밝은 달이
항상 빛나고 있음이라.
그러면 맑은 바람이 좋으냐 밝은 달이 좋으냐.
(다시 주장자를 한 번 내려 치시고)

돌로 만든 사람이 피리를 부니
나무로 만든 여자가 춤을 벌렁벌렁 춤이로다.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의 경계는 어떠한 진리를 표현한 것입니까. 돌사람이 피리불고 나무여자가 춤을 추는 것은 어떠한 진리를 표현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연명백(確然明白)할 것 같으면 모든 성인과 더불어 어깨를 같이하고 억만년이 다하도록 진리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문을 바로 알지 못할 진대는 선(善)도 있고 악(惡)도 있고 천상(天上)도 있고 지옥도 있어서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성도절이건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깨달아야 할지조차 막막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또한 윤회의 괴로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로 부처님께서 오셔서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근본고(根本苦)로부터 영구히 벗어 날 수 있는 수행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인생은 왔기 때문에 결정코 가게 되어 있지요. 가면 어느곳으로 가는가. 가는 그곳을 모르니 죽음에 이르러 공포,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상승의 법문을 착실히 듣고 시간시간 하루하루 자기사(自己事)를 밝히는 선수행을 꾸준히 쌓아갈 것 같으면 그 복잡한 세간살이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에 이르러서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공포, 불안이 일어나지 않게되는 것입니다.
부처님법에서는 과거·현재·미래·전생·금생·내생이 항시 연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들께서도 "전생사를 알고자 할진대는 금생에 자신이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내생사를 알고자 할진대는 금생에 얼마만큼 복과 덕을 쌓았으며 얼마만큼 마음의 지혜를 밝히는 수행을 살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항시 불고 있음이라.
그러면 맑은 바람이 좋으냐 밝은 달이 좋으냐.
(다시 주장자를 한 번 내려 치시고)

돌로 만든 사람이 피리를 부니
나무로 만든 여자가 춤을 벌렁벌렁 춤이로다.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의 경계는 어떠한 진리를 표현한 것입니까. 돌사람이 피리 불고 나무여자가 춤을 추는 것은 어떠한 진리를 표현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연명백(確然明白)할 것 같으면 모든 성인과 더불어 어깨를 같이하고 억만년이 다하도록 진리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문을 바로 알지 못할 진대는 선(善)도 있고 악(惡)도 있고 천상(天上)도 있고 지옥도 있어서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성도절이건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깨달아야 할지조차 막막히 모든 결과는 자신이 지은대로 오는 것입니다.
생사안두(生死岸頭)에서 매(昧)하지 않고 윤회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것도 부처님의 신력(神力)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실답게 쌓은 수행의 힘으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애쓰고 애써서 한 생각을 챙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습기(習氣)는 잠자고 화두일념이 무르익어져서 마침내 깨달음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 대중은 이 공부가 어렵다고 하여 중도에서 놓아 버리거나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걸음 쉼없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으스름 달빛 속에 학이 천년의 꿈을 꿈이요
눈짚의 사람이 백색의 공적에 미함이니
앉아서 시방을 끊는다 해도 아직은 점애(중국 황하중류에 있는 못) 일세.
한 걸음 슬쩍 나아가야 훨훨 나는 용을 보리라.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권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지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선 관 단 식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계산제 폭용 기아 · 공복감이 없다
• 눈초, 여독제, 열분 · 피로감 · 식욕심퇴백질 정화
• 수련내용 염불심매수련 · 선관단매수련 · 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은 병고 낙변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 젊어지나이다워 호르몬주스 엘도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전전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수련장
사원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 34-1115-6

척추교정 · 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
: 목 · 허리디스크, 신경통
: 관절염 · 중풍예방시술법
: 비만 관리 시술법
: 음양오행 건강 지압법
장삼수
건강연구원
업구정역
543-7306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 · 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유풍B/D (을지로 2가)
전화 (02)266-2629, 404-9521
팩스 (02)266-2679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46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지회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 · 사부대중께서는 전화 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 (02)733-6141(서울사무소)
☎ (0331)283-2083(공장)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생기와 영업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전해오는 바 성동강을 주는 산과 풍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실내외 벽화 · 병풍 및 액자화 작품
● 불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봉사가로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시내 지방 외국 어디나 그림만 또는 표구작품을 해드립니다
우만(宇滿)화실
서울 용산구 청파1가동 173-1 전화 (02)3273-0081
온라인 국민은행 남영지점 822-24-0171-328(우만)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한남상사
Tel: 02)795-4083, Fax: 02)792-9659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 (02)279-2715
팩스 (02)275-3739

허공에 서려 묻혀진 세월
●젊은 날의 외로움이 이 작은 책에 사리사리 서려져 저 허공에 메아리처 울려 퍼지리리●
스님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한 완남등사로서, 한 젊은이의 외로움과 공허가 여기 담기져 있다
지금 어느 누가 이 젊은이만큼의 넓은 눈과 넓은 마음을 가졌을까?
당신이 젊은이시면, 이 책은 당신이 모르는 또다른 당신을 얘기한 것이다.
호 반출판사 ☎ 02) 3673-0224
※ 고보 · 영풍문고에 있습니다. 정가 5,000원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 법상 ·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용각 목조탑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성남(법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수미단 용각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관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쉽게 풀이된 해설「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학교수업식「강의 녹음」학습
대학 졸업과정	⊙ 철저한 1 : 1「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영·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제작시도중)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일(남, 27세) 드림—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항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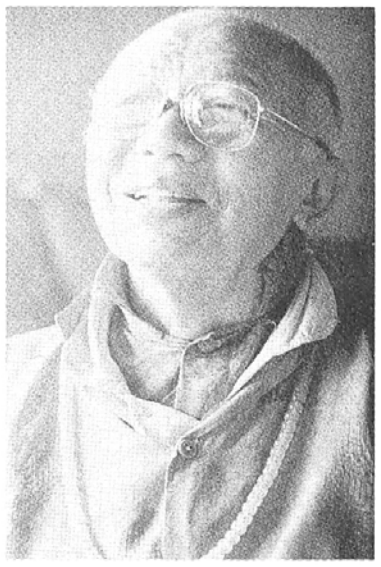
성도 절 특집 – '깨달음' 주제로 한 지상법석

지혜 자유로워집니다"

일상생활에 침전하다 보면 우리는 문득 마음의 본질을 분명히 꿰뚫어 보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을 오래도록 지켜나갈 수 없는게 바로 우리이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본래부터 '열정(탐)' '무지(진)' '혼전성(치)'이라는 삼독(三毒)이 있습니다. 삼독은 우리가 어렵게 접하는 '그 순간'에 홀연히 나타나 마음을 흐려놓고 사라집니다. '그 순간'이란 다름아닌 일상에 혼미해진 마음이 정화되는 '찰나', 즉 깨달음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생각의 근원인 '리그파'(지혜, rigpa)가 근본적으로 자유로워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과거·현재·미래를 끊임없이 윤회해야 하는데는 '업'(karma)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앞에서 '순간' '찰나' '정화'라 말했던 것은 모두 음율하고 부정적인 '업'을 없어지게 하고 온전한 법신(法身 dharmakaya)을 바로 보는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았다고 말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법신 보다 더 명확한 본질은 아



툴쿠 우르겐 린포체
〈티벳〉

"끊임없는 수행정진 깨달음의 삶이죠"

조. 집착(사유)과 법신의 관계는 마치 '옷'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면, 알몸만 남는 두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연이 닿아서 '그 순간'을 경험한다고 해도, 사실 법신을 오래도록 바라보는 것은 실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신이 갖는 속성은 깨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신은 어떻게 해야 대할 수 있을까요? 흔히 '명상'을 통해 얻어지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신은 명상만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법신은 현재 우리의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법신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지는 않습니다.

불꽃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불꽃뿐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법신은 근본적으로 존재합니다. 반면 우리가 사유(私有)한 '생각'이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삼독은 곧 사유에서 비롯됩니다. 사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집착'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이처럼 집착과 법신은 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해 '옷'은 인간이 사유한 철학 혹은 생각이고 알몸은 바로 법신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법신은 어떤 방법으로 맞이해야 할까요?

앞서 말했듯이 단순히 명상만으로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명상'과 함께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 당장 명상을 시작해 깨달음을 얻었고, 자신은 깨달았다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과연 이 사람이 깨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깨달았다고 말하는 이 사람은 바로 '옷', 즉 자신의 생각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리그파(지혜)는 더욱 자유로워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명상과 더불어 행동, 즉 수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끊임없는 수행의 자세를 지니고 사는 것이 깨달음의 삶이란 사실을 잊지 맙시다.



아잔 부다다사 스님
〈태국〉

"집착 벗어난 마음서 삶의 본질 깨우쳐"

"살아가는게 덧없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대체 덧없음이 무엇입니까? 이 말에 누구나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공(空)'을 앞세워 말문을 틉니다. 그런데 과연 필부(匹夫)의 '공'이 과연 부처님의 '공'일까요.

부처님 가르침에서 '공'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필부가 사용하는 세속적인 뜻은 결코 아닙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공'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공'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깨달음의 삶을 영위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법을 말한다"라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분명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하나씩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공'은 일체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내 것'이란 말도 사라져야겠죠. 그러나 여기까지의 '공'은 아직 미숙한 '공'입니다.

'집착'과 '내 것'이라는 말에는 다분히 '마음'이 존재합니다. 즉 '공'이 일체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일체의 마음 역시 '공'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공'하니, 부처가 '공'하고 부처가 '공'하니 '법(法)' 역시 '공'합니다.

그런데 만물의 근원에는 '법'이 있습니다. 결국 사부대중과 친숙한 수만가지 사물은 당연히 '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수수께끼를 풀어보죠.

"사과나무는 법을 말한다"는 사과나무가 사물이고 보면 '공'한 것이고 '공'이 바로 '법' 아니겠습니까.

다시말해 '공'이란 어느 필부의 세속적인 말처럼 '덧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물과 관계합니다. 모든 사물이란 먼지에서 열반에 이르는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먼지도 공하고, 열반도 공합니다. 이것이 '공'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공'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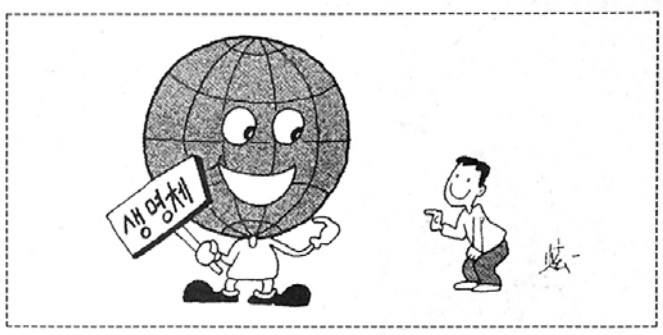
바로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집착에서 벗어난 '공'한 마음은 깨닫기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이 "만물과 관계한다"라는 생각이 지속돼야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마음이란 스스로 지고 있는 '공'을 깨닫지 못할뿐더러 만물과 관련해 모든 것이 '공'하다는 본질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쥐는 더럽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더럽다는 것은 '공'에 싸인 껍질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껍질에 집착하느라 쥐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물이 '공'하므로 쥐도 '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공'의 두 가지 의미를 통해 '공'은 반드시 모든 사물의 특징이며, 집착에서 벗어난 마음이라고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먼지는 비독립적인 존재이지만 참새는 독립적인 존재이다."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육체는 자아가 아니지만 마음은 자아이다." 어떻습니까.

비록 이런 수수께끼를 통해 완벽한 '공'을 깨달을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계속해 '공'을 생각한다면 분명 삶의 '본질'을 깨칠 수 있습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54
양 형 진

상호 연관

지구 전체가 자율조정 기능 갖춘 생명체
연기와 공의 세계 태양계까지 확대 가능

우리가 미지의 천체로 여행을 하면서, 그 천체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를 탐사한다고 하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조와 행태를 보이는 생명체가 다른 천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 지구의 생명체를 접하면서 얻은 경험만으로 그러한 탐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생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에 근거하여 (지상의 생명체와 다른 것가지 포함하여)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항공 우주국에서는 1960년대 중반에 화성에 생물이 존재하는지를 탐사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참가하였던 과학자의 한 사람인 러브록도 이상과 같은 이유로 생명이 무엇인가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생명체란 비평형의 상태 즉 낮은 엔트로피의 상태라고 결론내렸다. 다시 말하면 자유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낮은 엔트로피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우리의 체온이 주위의 온도와 다르다는 것은 우리 몸이 환경과 비평형 상태에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비평형 상태 혹은 낮은 엔트로피의 상태는 음식물에서 얻는 자유에너지를 소비함으로서 유지된다).

그런데 생명을 이렇게 정의하고 보니 다름 아닌 지구가 거대한 생명이라는 자각에 이르게 되었다. 지구는 그 전체가 낮은 엔트로피의 상태 즉 탈평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령 지구의 대기는 금성이나 화성의 대기처럼 화학적 평형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탈평형의 상태에 있다. 한 예로 현재의 지구는 40억년 전의 원시 대기에도 없었고 다른 천체에는 없는 산소를, 생명 현상이 유지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조성비인 21%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탈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이러한 자율조정 기능은 생명체가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구 대기의 조성비나 지구의 온도 등 여러 곳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그래서 러브록은 지구의 생물권과 대기권, 대양, 토양까지를 포함하여 이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를 이룬다고 가정하였으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가이아라고 불렀다.

여기서 가이아라는 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된 하나의 실체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이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일체의 사물은 오직 상호 연관이라는 연기의 망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어떤 사물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즉 어떤 존재가 지속적 존재 양상을 나타내어 마치 실체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며 그렇게 나타나게끔 인연이 성립한 것일 뿐이니 그 존재에 대해 자성을 상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기 때문이다.

가이아를 논의하는 것은 가이아의 실체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가이아 이론이 제시하는 사물의 상호 연관성에 주목하기 위해서이다. 피상적으로 관찰한다면 생명이 아닌 지구는 자신의 머리 위에 그저 생명체들을 얹고 있을 뿐이다. 그런 시각에서 보았을 때 그들 사이의 연관성이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에 대하여 더 깊고 더 폭 넓게 이해하게 된다면, 그들 사이에는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심오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가이아 이론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생명체는 지구라는 천체 위에서 그 환경에 일방적으로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꾸면서 역동적 상호 연관의 관계를 꾸며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생태계는 고도의 자율 조정 기능을 지닌 상호 연관의 체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이아 이론은 이 상호 연관의 체계가 생태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연관의 체계는 지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태양계까지는 확대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제 세계의 완벽한 상호 연관성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연기와 공을 자연의 세계에서 이해하게 된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교학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4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국어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교미술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2급 119명 자격취득
92. 8 본교학생 48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8명 취득 예정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 개설시 재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6년 1월 22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문의처
본교 :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부산 영광도서 : 816-9500
대구 제일서림 : 424-0801 대전 문경서적 : 252-8558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삼화불교대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신비의 오-링테스트는 … 화제의 인물 소문에서 소문으로!!

불치병, 조상묘지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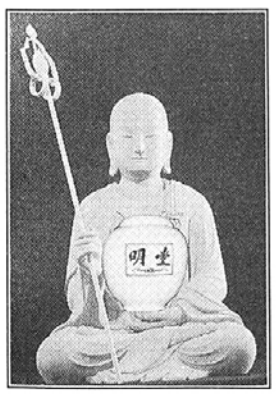
현대의학으로 치료불가능한 불치병, 난치병 치료와 선망조상과 부모형제의 영혼을 대명당에 편히 모시는 비법을 오-링테스트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한 화제의 인물 법현 법사!
(일본에서는 "오므라 테스트"라 해서 새로운 질병 진단법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생명과학인: 오-링테스트는?

상담자의 오른손을 엄지와 인지로 맞대어 O자 모양을 만들어 검사자는 정신적 능력으로 표준을 정하여 검사하면 질병과 액운의 원인을 밝혀주며 상담자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만성질병상담

정신병, 우울증, 뇌졸증, 관절염, 신경통, 중이염, 자폐증, 불임증, 근무력증, 뇌성마비, 신들림병 사업실패, 자녀불행, 가정불행



◉ 사찰에서 49재와 영가천도재를 하실 때는 영가를 명당도예에 모셔주고 하시면 편안한 영혼이 되어 극락왕생토록 하여 줄 것이다.

◉ 각 사찰에서 요청이 있으면 강의도 하여 드리고 신도들에게 직접 보급토록 협조하여 드립니다.

상담문의 (051) 465-5100 467-5200

법현 법사 특별상담!!

조상 묘지 상담

풍수지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특수개발한 명당도에는 고인의 영혼을 편안히 모시면서 극락정토에 이르게 하여 준다.

선망조상과 부모형제의 유골을 명당도에에 모시거나 묘지 옆에 묻어 주면 명당이 되어 자손이 발복을 받아 만성질병도 치료되고 행복이 이루어진다.

◦묘지에 함부로 손을 대면 큰 화를 당하게 된다.
◦명당도예는 묘지 옆에 묻어만 주면 영혼이 편안하게 된다.
◦묘지가 없는 영혼도 명당도예에 모셔 주면 편안한 영혼이 된다.

상담장소 : **불심포교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384-10
(부산본역 건너편 국민은행 뒤)

고은 불교대하소설

수미산

61

오성(悟性)에 이른 불이의 별빛은
광대한 사막 불탑의 잔해가 있는
중국대륙의 오지 누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불이 합두는 차디찬 별로 탄생 다시 우주의 편력을 시작했다

그들의 영광

이미 불이와 합두의 마음이 일으킨 불덩어리와 기둥은 금륜(金輪)의 세계로 솟아났다. 그 불덩어리 기둥 밑부분도 가필로 그 참혹한 아귀계의 세상을 아주 어렵사리 떠날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죽음을 앞둔 생명이 너무 질긴 의지때문에 즙처럼 즉을 수 없다가 맛있한 어려운 죽음 직후 방금 즉은 사체에서 영식(靈識)의 불꽃이 어디론가 하늘 높이 사라지는 것과도 같았다.

아귀계의 여러 아귀중생들이 그 불덩어리 기둥 밑부분에 매달려서 함께 아귀계를 떠나고자 하는 그 집념들 때문에 정작 불덩어리 밑부분은 그런 아귀들이 불에 데이거나 타거나 해서 퍼진 그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기도 하였다.

"제발 나도 함께!"

"나도 함께!"

"이 지독한 아귀중생을 어서 벗어나야지!"

"나도!"

"나도!"

"아 나도!"

이런 절규는 차라리 자식을 잃은 어미의 그것처럼 애절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귀계의 여러 곳을 감시하는 귀신들이 그들에게 이같은 갈망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 않았다. '나도! 나도!'의 갈망 자체가 아귀계의 고통이 아니겠는가.

이제 아귀계의 업장이 다 소멸된 불이 합두의 불덩어리 기둥의 밑기둥을 이루고 있는 뜨거운 불도 변변치 않은 재만 남기고 떠나는 것이었다. 그런 불덩어리 끝에 아무리 매달리고자 무진 애를 써도 아귀중생의 어느 하나도 매달리는데 성공할 수 없이 그 험상궂은 마른 몸만 불에 타거나 데었거나 하는 고초만으로 남겨져 저만치 나가 떨어져야 하였다.

아귀계를 떠나는 불덩어리 기둥 밑부분은 떠나는 힘에 의해서 그 일대를 한바탕 화끈화끈 태워버리거나 불길을 휩아서 생살을 앗어버리게 하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금륜세상의 성부주 밑 아귀계 자체가 인간이 살고 있는 섬부주 지상에까지 차지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귀계를 벗어난 불덩어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계의 시야에 있을 때는 인간계 안의 아귀중생에 대한 또하나의 갈망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계의 가장 가난한 지역, 날마다 굶는 일로 시들어가는 지역에서도 그 불덩이 기둥의 놀라운 형상은 자못 흥미를 넘어서 그들 자신에게 어떤 충동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나도 저렇게 타올라서… 제발 이 굶는 고통을 내동댕이쳤으면!"

"나도 저렇게!"

따위의 간절한 열망을 일으키고 있었던 인간계의 아귀중생의 그것도 매우 절실한 것이었다.

이런 중생 가운데서 가진 자, 먹을 것이 많은 자에 대한 모순을 개탄아 권세와 부귀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항하는 일이 이따금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었다.

아니, 어떤 아귀중생은 어찌 이 세상에 함께 태어난 생명에 누구는 왕으로 태어날 권리가 있고 누구는 노예나 굶는 자로 태어날 숙명이 있단 말인가, 우리도 칼과 활 그리고 화약의 총을 가지면 능히 왕실을 정령함으로써 왕으로 등극할 수 있지 않은가.

명나라 주원장(朱元璋)은 누구인가. 그는 한장 거지중(乞僧)이 아니었던가. 그가 남루한 누더기 안에 지니고 있었던 것은 수백마리 이(蝨) 밖에 없었음에도 농민들의 미륵신앙과 결부되어 오랜 수탈과 착취에 견디다 견디다 못한 봉기에 뛰어들어 천하를 손아귀에 쥔 것이 아니었던가.

아무튼 불이와 합두가 아귀계를 그들의 찬란한 불덩어리 기둥으로 떠난 사건은 그동안의 아귀중생들을 새삼 눈뜨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확신하였다. '이 세계 어느 한 구석에도 먹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세계 전체가 완전한 세계, 즉 극락세계 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금륜은 우주 가운데서 하나의 커다란 원반(圓盤)과도 같은 광면으로 이루어 졌다.

그 원반의 자름이 1백20만3천4백50유순이나 되므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본자는 아무도 없었다. 아니 그런 엄청난 길이는 '무수(無數)'인 것이다. 이 '무수'는 무한하다는 사실이기 보다는 우주적인 거대한 수(數)의 한 단위이다.

이런 '무수'의 크기는 금륜세계의 크기뿐 아니라 그것을 얹어놓게한 수륜(水輪), 수륜을 얹어놓을 풍륜(風輪)에 이르르면 다만 '무수' 단위의 유순으로써 이른바 '내겁(大劫)'이다.

이같은 우주로서의 풍륜은 그야말로 시작도 끝도 없는 우주의 허공 가운데 거대한 덩어리의 흔돈으로부터 이루어진 원반처럼 뵌 세계가 1유순, 즉 약 2리에 해당하는 단위로도 도저히 헤아릴 수 없게 실재하고 있다는 우주관이 5세기 무렵의 구사론(俱舍論)에 따라 알려진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주 자체에 대한 설명 이외의 중요한 지적이 있어 마땅하다. 그것은 불교에서의 시간에 대한 인식이 철저한 사실과도 관련된다.

이를테면 존재하는 모든 것, 살아있는 모든 것은 시간의 진행에 의해 항상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덧없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해석에 의해서 끝없이 되풀이되는 생사윤회에의 확인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시간은 고대 인도에서의 모든 사색과 철리에서의 핵심이다. 그 땅의 한 우주적 수학이 거대시간을 말하는 것과 함께 또한 시간이나 수의 극소(極小)를 말하는 것과 함께 영(零)의 세계를 발견한 위대한 사건이야말로 수학과 진리와의 긴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찰나(크샤나)는 75분의 1초(秒)이다. 단 찰나(但刹那-탓크샤나는 1백20찰나이고 엽박(臘縛-라바)은 60단찰나이다. 수유(須臾-무후르타)와 주야(晝夜-아호라므라)는 30수유, 월(月-마사)은 30주야, 1년(年-삼바트사라)은 12개월이다.

수유는 1시간에 가까운 시간이고 엽박은 1분에 해당한다. 단찰나는 1초인 것이다.

그 아래의 찰나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며 포착할 수 없는 극소의 시간이다.

특히 이 찰나는 굳이 그 내용을 말하건대 '모든 인연이 화합할 때의 법 자체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말한다. 여

"아아!"

라는 어떤 감탄사가 들렸다.

"으음!"이라는 무거운 신음소리도 아주 오래동안 병들어 있는 환자의 입에서라도 나오는 것처럼 나와서 들리는 것이었다.

그만큼 그 불덩어리 기둥의 장관이 소멸되는 과정이나 소멸된 뒤의 두 개의 작은 별로 적요한 빛을 어떤 힘의 과시(誇示)도 없이 비추어 주기 시작하는 그 소멸에 가까운 풍경도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저렇게 슬픈 것을!"

"저렇게 슬프고 아름다운 것을!"

이런 소리도 들렸다.

과연 두 생명의 애욕이 만들어서 그 애욕속의 정진을 통해서 그들의 세계로부터 떠나 새로운 세계에 태어난 삶의 시작은 이렇게도 비장한 소멸의 무상감(無常感)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었다.

이제 불이 합두의 그 두서운 열정은 차디찬 별빛으로 떠서 불이와 합두라는 별로 탄생하는 찰나의 시간으로부터 다시 우주의 편력을 시작하는 것이다.

불이는 지난 날 사바세계 고려의 정치적 비운의 시인 후신답게 그의 적요하기 짝이 없는 별빛을 어느 사막에 보내고 있었다.

빛이란 어떤 방향으로만 비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빛의 오묘한 의지는 어느 곳을 그리워한 나머지 그곳을 특정적으로 비치는 일도 하는지 모른다.

불이의 별빛은 이제 더이상 합두와의 애욕으로 늘어붙지 않는 일종의 오성(悟性)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의 빛은 하늘 높이 떠서 다른 별들이 보내는 차가운 빛과의 교차를 되풀이한 나머지 이윽고 저 아래 캄캄한 지상의 한 지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곳에서도 불이의 별을 우러러보는 어떤 대상이 있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중국대륙의 오지(奧地)인 누란(樓蘭)이었다.

누란, 그 광대한 사막 한 복판의 폐허에 남겨져 있는 불탑(佛塔)의 잔해가 있는 점토질의 흙덩어리 작대기에 서 있었다.

그림 · 조향숙

불이 합두는 차디찬 별로 탄생 다시 우주의 편력을 시작했다

남루한 누더기 안에 지니고 있었던 것은 수백마리 이(蝨) 밖에 없었음에도 농민들의 미륵신앙과 결부되어 오랜 수탈과 착취에 견디다 견디다 못한 봉기에 뛰어들어 천하를 손아귀에 쥔 것이 아니었던가.

아무튼 불이와 합두가 아귀계를 그들의 찬란한 불덩어리 기둥으로 떠난 사건은 그동안의 아귀중생들을 새삼 눈뜨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확신하였다. '이 세계 어느 한 구석에도 먹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세계 전체가 완전한 세계, 즉 극락세계 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금륜은 우주 가운데서 하나의 커다란 원반(圓盤)과도 같은 광면으로 이루어 졌다.

그 원반의 자름이 1백20만3천4백50유순이나 되므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본자는 아무도 없었다. 아니 그런 엄청난 길이는 '무수(無數)'인 것이다. 이 '무수'는 무한하다는 사실이기 보다는 우주적인 거대한 수(數)의 한 단위이다.

이런 '무수'의 크기는 금륜세계의 크기뿐 아니라 그것을 얹어놓게한 수륜(水輪), 수륜을 얹어놓을 풍륜(風輪)에 이르르면 다만 '무수' 단위의 유순으로써 이른바 '내겁(大劫)'이다.

이같은 우주로서의 풍륜은 그야말로 시작도 끝도 없는 우주의 허공 가운데 거대한 덩어리의 흔돈으로부터 이루어진 원반처럼 뵌 세계가 1유순, 즉 약 2리에 해당하는 단위로도 도저히 헤아릴 수 없게 실재하고 있다는 우주관이 5세기 무렵의 구사론(俱舍論)에 따라 알려진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주 자체에 대한 설명 이외의 중요한 지적이 있어 마땅하다. 그것은 불교에서의 시간에 대한 인식이 철저한 사실과도 관련된다.

이를테면 존재하는 모든 것, 살아있는 모든 것은 시간의 진행에 의해 항상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덧없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해석에 의해서 끝없이 되풀이되는 생사윤회에의 확인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시간은 고대 인도에서의 모든 사색과 철리에서의 핵심이다. 그 땅의 한 우주적 수학이 거대시간을 말하는 것과 함께 또한 시간이나 수의 극소(極小)를 말하는 것과 함께 영(零)의 세계를 발견한 위대한 사건이야말로 수학과 진리와의 긴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찰나(크샤나)는 75분의 1초(秒)이다. 단 찰나(但刹那-탓크샤나는 1백20찰나이고 엽박(臘縛-라바)은 60단찰나이다. 수유(須臾-무후르타)와 주야(晝夜-아호라므라)는 30수유, 월(月-마사)은 30주야, 1년(年-삼바트사라)은 12개월이다.

수유는 1시간에 가까운 시간이고 엽박은 1분에 해당한다. 단찰나는 1초인 것이다.

그 아래의 찰나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며 포착할 수 없는 극소의 시간이다.

특히 이 찰나는 굳이 그 내용을 말하건대 '모든 인연이 화합할 때의 법 자체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우주 자체에 대한 설명 이외의 중요한 지적이 있어 마땅하다. 그것은 불교에서의 시간에 대한 인식이 철저한 사실과도 관련된다.

이를테면 존재하는 모든 것, 살아있는 모든 것은 시간의 진행에 의해 항상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덧없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해석에 의해서 끝없이 되풀이되는 생사윤회에의 확인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시간은 고대 인도에서의 모든 사색과 철리에서의 핵심이다. 그 땅의 한 우주적 수학이 거대시간을 말하는 것과 함께 또한 시간이나 수의 극소(極小)를 말하는 것과 함께 영(零)의 세계를 발견한 위대한 사건이야말로 수학과 진리와의 긴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찰나(크샤나)는 75분의 1초(秒)이다. 단 찰나(但刹那-탓크샤나는 1백20찰나이고 엽박(臘縛-라바)은 60단찰나이다. 수유(須臾-무후르타)와 주야(晝夜-아호라므라)는 30수유, 월(月-마사)은 30주야, 1년(年-삼바트사라)은 12개월이다.

수유는 1시간에 가까운 시간이고 엽박은 1분에 해당한다. 단찰나는 1초인 것이다.

그 아래의 찰나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며 포착할 수 없는 극소의 시간이다.

특히 이 찰나는 굳이 그 내용을 말하건대 '모든 인연이 화합할 때의 법 자체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우주 자체에 대한 설명 이외의 중요한 지적이 있어 마땅하다. 그것은 불교에서의 시간에 대한 인식이 철저한 사실과도 관련된다.

이를테면 존재하는 모든 것, 살아있는 모든 것은 시간의 진행에 의해 항상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덧없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해석에 의해서 끝없이 되풀이되는 생사윤회에의 확인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시간은 고대 인도에서의 모든 사색과 철리에서의 핵심이다. 그 땅의 한 우주적 수학이 거대시간을 말하는 것과 함께 또한 시간이나 수의 극소(極小)를 말하는 것과 함께 영(零)의 세계를 발견한 위대한 사건이야말로 수학과 진리와의 긴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찰나(크샤나)는 75분의 1초(秒)이다. 단 찰나(但刹那-탓크샤나는 1백20찰나이고 엽박(臘縛-라바)은 60단찰나이다. 수유(須臾-무후르타)와 주야(晝夜-아호라므라)는 30수유, 월(月-마사)은 30주야, 1년(年-삼바트사라)은 12개월이다.

수유는 1시간에 가까운 시간이고 엽박은 1분에 해당한다. 단찰나는 1초인 것이다.

그 아래의 찰나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며 포착할 수 없는 극소의 시간이다.

특히 이 찰나는 굳이 그 내용을 말하건대 '모든 인연이 화합할 때의 법 자체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말한다. 여

불을 가르, 보화 가르

부처님 말씀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튼튼한 다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성원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교 서적, 나아가서 불교 문화의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정신 문화를 가꾸어 가는 주역들입니다.

" 항상 친절한 안내로써 맞아주기에 항상 편안히 책을 고를 수 있습니다. 더욱 발전하는 모습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형서점에서도 구할 수 없는 불서를 쉽게 구할 수 있어 무엇보다 반갑습니다. "

" 책방 여시아문에 와 보면 불교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 부듯해집니다. "

책방 여시아문에 거는 불자 여러분의 기대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크고 날카로운 지적 바로 전문가의 그것과 견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당장 실천하기 어려운 주문들도 있지만 불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이 꺾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만 있다면 제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책방 여시아문도 꼭 해 낼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훌륭한 다리라면 책방 여시아문은 여러분과 부처님 가르침을 잇는 더욱 튼튼한 다리이고자 합니다.



찾아오시리면


책방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95 베스트 20선

아래 베스트 20선은 1995년 한 해 동안 독자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불서들로 판매 부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입니다. '좋은 불서와의 뜻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십시오.

1. 금강경강의 / 무비 · 불광출판부 · 5,500원
생활 중 겪는 사례 인용한 금강경 관 오랜 베스트

2. 기도 / 일타 · 효림 · 5,000원
일타 스님 기도 상의 영험담 모은집 올바른 기도법 제시

3. 삶에서 깨어나기 / 탁낫한 · 장경각 · 5,500원
탁낫한 스님의 일상의 삶 속에서의 수행 · 명상법 찾기

4. 알기 쉬운 불교 / 불교방송 편성부 · 불교방송 · 5,000원
불교방송의 '아침의 선화' 선생상담 답변 묶음

5. 영원한 자유의 길 / 성철 · 장경각 · 2,500원
성철 스님의 '자기를 바로 봅시다' '생명의 광명을' 등 13편이 엮어 모음

6. 하산 / 홍주 · 불지사 · 5,500원
상반되는 두 수행승의 갈등과 고뇌를 통해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찾기란 선적 구도소설

7. 영가천혼법어 / 석성우 외 · 토방 · 15,000원
원명 · 중산 스님 등 고승들의 영가법문

8. 선 백문백답 / 천제 · 파란나리 · 3,000원
성전대종사의 문답으로 엮인 선의 요체

9. 사람, 그 속에 깃든 의미 / 김한준 · 고요고고 · 7,000원
선과 악을 등 사람에 있는 모든 초월문제에 대한 신앙적 비비판 탐험다

10. 히말리아, 인도에 빠진 닥터 / 일한단 · 효림 · 8,000원
카톨릭의 사고방식으로 젊은 상담년 한 의사의 인도 구도 여행기

11. 등신불 1, 2 / 석용산 · 문학수첩 · 각 6,000원
불교사상 최초의 등신불이 된 법보사 스님의 구도적 생애를 거울로 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투명한 장편 구도 소설.

12. 나를 보게 하소서 / 현장 · 민족사 · 5,500원
성철종 선(禪)의 사원으로 알아들의 10여년간 수련지도 @ 새로 현장 스님의 법문선 이야기

13. 나는 누구인가 / 라마나 마하리쉬 · 청하 · 5,000원
'것다나 세우와 같은 존재라고 극한 반압단 라마나 마하리쉬의 생애와 가르침, 자아탐구법 하는 수행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읽어본 필독서

14.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 일타 · 효림 · 5,000원
'초발심 자경문' 가운데 아로 비구의 '자경문'을 풀이한 것으로 수행자의 마음가짐 등 불교입문자에게 꼭 필요한 수행 방법을 알려 준다.

15. 도가 본시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해쳤겠나 / 이청 원음 · 동지 · 6,500원
지난 4월 조계종 사태 때 주대 140일만에 종정직을 버났던 서암스님이 당시의 상황과 심정을 밝힌 최고록

16. 달마의 제자들 / 고우임 · 불지사 · 5,500원
달마를 기조로 중국 선불교의 법맥을 이어온 조사들과 한국 고승들의 사법한 구도 행장기

17. 선 1, 2 / 고우 · 심직과 비평사 · 각 6,500원
달마가 중국 선종의 개조가 될 때부터 6조 혜능 이후 남종선과 북종선으로 분파되기까지의 선종의 역사를 그린 본격 선 소설.

18.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 권영한 · 자원문화사 · 15,000원
사람을 처음 찾는 이들이 잘 모르는 사찰 예절에서부터 불 법을 찾는 이들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최소한의 상식을 담기 쉽게 설명했다

19. 부처님 말씀 / 성열 · 현암사 · 13,000원
초기 경전인 아함경 가운데에서 발췌한 것으로 일상생활과 관련한 수많은 문제점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20. 42장경 1, 2 / 오소 라즈니쉬 · 상하출판 · 각 7,500원
42장의 시편으로 구성된 42장경을 라즈니쉬의 싸이소스 넘치는 유머와 함께 경험에 읽을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의 불전 읽기



◇사찰에 개원된 한문서당이 새로운 청소년 문화로 정착되면서 방학과 휴일을 이용, 청소년들이 한문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사진은 박련사 한문교실〉

새싹불자를 키우자
현대불교 연중 캠페인

사찰개설 '한문 서당' 전인교육 역할 '톡톡'

어린이 법회 활성등 청소년 포교 한 몫

쓰고 읽고 외우며 인성계발·예절 습득

겨울방학을 맞아 사찰에 개설된 한문서당이 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한문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문교육을 상설로 실시해온 제주 원명사(주지 대효)는 더욱 활기를 띤다. 특히 영재교육의 일환으로 유아(4세)때부터 중학생까지 흥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지도해 오고 있다.

이는 읽기, 암송, 붓·연필로 쓰기, 문장해석 등 전통서당식의 장점과 현대적인 지도방법으로 개인지도식 교육과 어린이들의 정서안정, 잠재력계발을 위해 참선·예절교육 등을 병행,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두배가 넘는 학생들이 참석하고 있는 서대문구 백련사(주지 운경)도 구랍 2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한달간 국교반·중고반으로 나눠 천자문, 부모은중경을 가르치고 있다.

이번 한문서당에서 중고반 훈장을 맡고 있는 무불스님은 "재미있는 한문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쉽게 귀의하고 어린이 법회 활성화를 위해 한문서당을 개원하게 되었다"며 "방학기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기법회시간을 통해 한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80년대부터 도심포교당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문서당이 최근들어 사찰의 새로운 청소년 문화로 정착되면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

4년전 여름·겨울방학 한문서당을 열고 있는 경남 진영 봉화산 청소년수련원(원장 선진규)도 청소년 포교에 한몫을 하고 있다.

구랍 24일부터 25일까지 1차 한문서당을 개원한데 이어 지난 19일부터 2월5일까지 두번째 한문서당을·연 청소년 수련원은 청학동에서 이건중씨(60)를 비롯 3명의 훈장을 초빙, 옛 서당의 전통서당교육방식으로 치뤄진다.

합숙지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봉화산 한문서당은 초급반·중급반으로 나눠 사자소학, 생활한자, 명심보감, 격몽요결을 교재로 인성계발, 예절습득 등을 함양하는데 근본취지를 두고 있다.

부모님의 권유로 한문서당에 입학했다는 김명현군(경기 군포국교 4)은 "한문을 암송하고 쓸때가 가장 신기하고 재미 있었으며 특히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부터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우러나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지난해 일산신도시에 개원된 법등사(주지 해종)도 법등문화학교를 개원, 매주 월·수·목요일 세차례에 걸쳐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한문서당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또 대구 관음사(주지 우학)의 경우 매주 일요일 사자소학을 교재로 교육하고 있다. 특히 지루하고 산만해지기 쉬운 어린이들을 위해 레크리에이션을 병행, 어렵게만 느껴지는 한문교육을 보다 쉽게 접근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왕사(주지 실상)와 삼전복지관(관장 보각)등도 방학기간을 통해 사자소학, 천자문, 발심수행장과 고사성어 등을 교재로 가르치고 있다.

사찰에서 개설되고 있는 한문서당은 청소년 포교와 전인교육에 견인차역할을 톡톡히 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중근 기자

해외 성지순례 전문화 추세

관광위주 탈피 미술·건축등 문화답사 늘어

본사주최 인도·네팔순례 4차 걸쳐 진행중

병자년 새해부터 인도·네팔 등 성지순례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술·건축분야등 전문화되고 있다.

이는 사찰이나 각 신행단체 단위 대규모 관광순례로 실시했던 예년과는 달리 소규모로 구성된 전문 답사·순례단으로 변모하기 때문.

동국대 문명대 교수(미술학과)팀은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아잔타, 엘로라, 나시크 등 석불사원과 4대성지, 박물관 등을 답사했다.

미술사와 관련된 불교유적들을 집중적으로 답사한 이번 순례단은 "현지답사를 통해 불교미술과 역사에 대한 진수를 체험했다"며 "불교미술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답사단은 각 연구원들의 보고서 출간 계획도 세워놓고 있어 불교미술(사) 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으로 3년째 동남아불적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이기선씨(불교조형연구소 소장)일행도 지난 18일부터 31일까지 미얀마 파간일대 답사를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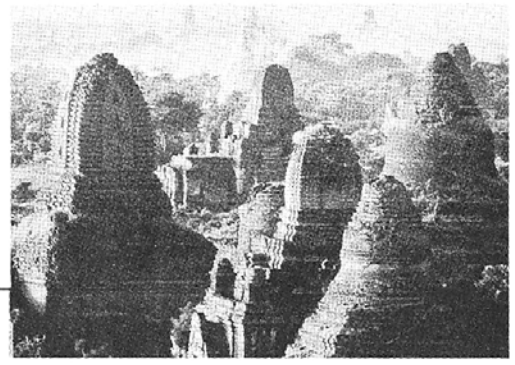
이번 답사는 사진작가 안장헌씨를 비롯 연구원 6명이 동행, 2백여 불탑들이 있는 파간 탑군의 양식과 원류를 비롯 고도로 발달된 파간의 불교문화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문화재 전문위원인 신영훈씨는 오는 25일~2월 8일까지 아잔타 석굴을 비롯 인도 불교사원의 건축양식 조사를 위해 답사길에 으른다.

이처럼 불교미술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한 순례단은 전공분야 답사뿐 아니라 성지순례를 겸하고 있어 인기를 모으고 있다. 본사가 주최하고 있는 성지순례는 지난 17일에 이어 24일,' 27일, 31일, 2월 4일 5차례에 걸쳐 9박 10일의 일정으로 인도·네팔 지역으로 떠난다.

전문안내원이 동행하는 이번 성지순례는 부처님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성지에 대한 올바른 식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동국대 석림회, 정토법당 등을 비롯 전문답사단이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어 답사와 순례의 길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근〉



◇미얀마 파간의 탑군은 부처님 당시의 불교모습이 가장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는 남방불교의 대표적 성지이다.

만 화

法句經 법구경

* 성 냄의 장 *

항상 깨어있고
밤 낮으로
부지런히 배우고

이 향 원



도서출판 여시아문 —출판 예고—

행복과 불행 한몸의 두 얼굴

— '독자' 와 '저자' 가 함께 만드는 책 —

우리는 누구나 조금씩은 행복하기도 하고
조금씩은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를 보면 내가 행복한 일에
다른 사람은 불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과 불행은
절대가치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도서출판 여시아문에서는 '저자는 쓰고 독자는 읽는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독자와 저자가 함께 만드는 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반쯤은 독자가 만든 책인 셈입니다.

우리들은 저마다 다른 개성의 소유자인만큼 행·불행에 대한 생각들도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털어 놓고 행·불행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만큼 닮아 있고, 얼마만큼 다른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도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내 일을 남의 일처럼,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편의상 행·불행이라 말했을 뿐, 살아가는 일 그 자체에 대해 '내가 만드는 심리 처방전'인 셈이지요.

좀더 구체적으로는 **'독자**와 **출판사**와 독자를 대표할 **정신과 의사 이근후 박사**와 함께' 조금은 색다른 형태의 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도서출판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우편번호 : **110-170**)
전화 : **02) 737-8881** / 팩스 : **02) 737-0697**

아래의 난에 아무 격식 없이 생각나는 대로 써 주십시오.

(나이 : 성별 :)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
가정에서		
직장(학교)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밖에		

위 설문지를 그대로 오려서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팩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책이 출판된 후, 책자와 함께 작은 기념품을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10-170 종로구 견지동 110-33 (주)현대불교신문사 출판국 / 전화 (02) 737-8881, 팩스 (02) 737-0697

특집 — 겨레의 얼, 세계의 자랑, 경주를 지킵시다 ⑦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

민족의 얼·혼 숨쉬는

154,753명 서명 (1996년 1월 16일 현재)

서명자 명단

현대불교신문사

조희기 김종욱 신양실 고호식 이대성 배순희 김건순 유숙희 육자연 조경자 박귀규 윤금선 조복래 조연순 공순이 홍태은 이학모 임상수 강달순 양태의 박기완 윤부윤 이산규 이덕희 김임수 이창숙 이정례 김용자 한현돈 조의숙 이석자 정태은 김병길 이승덕 김계선 오양응 김형촌 염금숙

안하대

조희기 김종욱 신양실 고호식 이대성 박양열 최 환 김동우 오의진 조성인 전영아 박자애 박경렬 이성림 조선련 채영국 김응래 김통기 김윤중 유재성 김민수 김희원 민한기 류성민 김재성 박혜숙 박재현 이후재 이홍규 정일영 우창동 이재홍 박승빈 이훈옥 김화성 유영호 구홍희 신귀자 최선미 이문실 이순남 김순석 조광휘 김현순 최옥환 남민정 권태연 류기윤 윤성환 최대일 박찬호 김동한 김양미 안미순 손희경 이점순 김순미 김영미 정희주 이운주 강송자 백차경 이주오 박은영 이종현 김은주 노승호 이종관 민원홍 김희진 박철호 김동우 한희광 정진환 양진석 이태룡 김재원 홍정인 남경임 이승훈 안희경 김인정 오영미 모종현 강덕준 김양호 양호혁 강병욱 강현태 신선철 주순병 강승표 최의택 김영배 문장학 강동화 김양규 채현석 왕준호 임용환 한경민 최성필 김민철 최영숙 신정희 임영지 채 현 박경희 남영희 김양현 정진경 정태영 조경진 노경곤 원후일 김준성 감택수 백승우 박미화 이은주 홍성주 김경모 이민원 안영석 김종욱 손관호 신연옥 이영호 최성일 김계형 오창진 신만국 윤병하 김주석 김인선 노태식 정화영 고병수 최인성 백승길 이아람 유용태 양민석 강채영 박세준 류영수 정문호 최용주 주정화 최동호 지해숙 강헌정 이연화 이선영 류은희 황은희 김이숙 강선자 김정수 김내길 조규근 정찬석 이효수 홍두진 이영섭 난혜원 황연희 송영준 이현숙 박미옥 정세현 김형식 권순욱 김재은 류창호 박성희 김태규 오태한 이주환 정우열 윤희환 한지예 한보은 김영순 박정수 선용석 정미나 도상글 권덕순 김기동 김재영 이종원 송원호 서한종 최인기 박정철 박종연 이채호 이승혜 유관희 조민철 오재경 최규홍 양진석 김재범 남성진 이현수 박용태 윤재한 김호순 전용수 이정운 표승진 정희원 서규석 남철우 최진식 서영미 김태규 권오국 송재광 김영철 정재훈 문승일 정현준 이명주 김경수 이현희 이은영 김은녀 허소현 서상숙 정서용 한현민 김은진 김태영 구한빛 장문규 김명희 이미영 권 형 김지현 이미옥 이인한 오정순 배성수 류창호 김혁재 김희아 이계선 손선호 김종훈 윤성엽 윤용구 이현주 이종경 진창언 박상호 박재현 박병인 장종호 이선옥 이성규 오현주 황승현 정조익 최승철 이재호 김경수 이경미 이은영 김은녀 허소현 서상숙 정서용 김경수 이승규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

특집 — 겨레의 얼.세계의 자랑, 경주를 지킵시다 ⑦

古都 경주를 지키자

김순자 김금자 오애정 이영아 김윤정 홍순희 오순자
김영민 오은숙 도승분행 정보혜주 김현주 김진부심 하오병각
주명진경 명진원 민영수 서희숙 최해룡행 김진각 최명자
이정화 노금란 김영란 이명숙 권연희 원용준 김영윤
윤애효 나은성 박미영 이상이 정영애 맹신순 김연실
윤효재 고경자 이윤송 환정희 이희숙 박현정 박현아 박지민
박찬규 최재승 최재우 장세용 박희정 조병준 한원자
양옥임 임정환 송영민 이완중 강기환 전무조 고인숙
박은경 오성민 전숙희 서남련 곽경옥 심순이 이영순
손여래원 김안선행 김부해심 박정정관 이재심 서경자 이원희
오도행 최복임원 한복혜화 김진수원 윤순열 문영숙 오예경
이경흔 백문현 강선혜 서나미 채대성 송순호 성강옥
한정자 이정향 임은주 김숙자 박세애 홍민후 박동련
홍태유 이혜선 홍혜경 엄주량 엄원섭 홍승진 홍성훈
홍상혁 권오인 박명자 박영식 권태희 문명길 심재연
장영숙 장석준 김연자 손선주 이은주 이호열 김종순
임옥선 장용림 김현옥 장경옥 윤미자 장경희 남혜정

대한불교제과인협회

정판수 임순화 홍용석 김승규
박세란 서정자 김상연 오용기
최용철 공재권 박민순 최문섭 조용분 송정옥 양경숙
이환우 김영일 이효숙 김영순 주영수 정우자 정민자
이숙자 김은숙 류재호 김명식 김삼두 정선경 김수만
김학준 이인효 배성익 허종성 김충기 오기식 이종욱
고선희 김현숙 한민라 황정훈 최상정 장인순 김경임
이재영 채희정 김진환 배문일 최은경

보광사(강원도)

김기영 김순남 전영선 엄순년 홍순남
고연웅 박순덕 정종심 염준자 송장섭 최미자 안상예
민복희 김정자 경복숙 권오순 안용순 박정식 정광호
김기철 도성복 박윤식 최경숙 권영애 김남숙 주효실
최유자 이병숙 최순애 김태영 이인숙 송정애 이경호
심상애 김영여 김동옥 전미희 홍춘자 김성숙 김순달
서간난 김금수 신복금 권순옥 조종희 김선옥 김복희
진산희 김은희 유형주 성기석 정지욱

보덕학회

김경미 홍정희 정경순 차영모 김찬홍 이은우 한계원
조문미 이상구 정기호 고인성 최연영 홍현숙 김미형
서용원 박정환 안보현 조용열 박영부 최원갑 권경희
이상만 하병호 이창석 김경찬 송경숙 김성은 이상준
최정범 김효린 박 수 박숙희 홍옥표 정원필 정준희
이승호 조래필 박현숙 최지환 정연주 전득근 예민영
김기린 김종선 박찬효 김원동 이유성 성능현 최홍규
김원호 박길제 정이숙 이인화 주성하 유숙영 황영희
김홍주 정태훈 김장경 이상협 안보권 노용권 이미영
신성애 전용석 김정수 황종선 허대권 정진석 최정독
정용만 박희정 오미심 김정순 김수남 이영구 김희경
윤정협 송미정 박경균 송지순 이규희 박희원 한진희
신연식 신규석 황인아 신규진 민봉기 배석봉 민병호
권승애 김수희 김수경 김선미 심한보 이윤희 오윤구
정지원 김덕곤 박향국 이정숙 김정미 홍진표 김인영
이수갑 하형봉 김희옥 민경덕 남광우 임운정 강경아
일지현 강윤선 임병로 이준기 최희연 이숙희 이숙영
상현숙 이영은 윤용형 김옥자 김금순 이병선 이지희
심규현 김문환 이승희 안희주 이은화 전 준 홍충인
성민순 김은정 정규성 정선화 김순옥 정대옥 조현숙
황상연 김부영 유정자 권혜진 서동권 이왕구 김정순
김신애 박미선 이소현 이소희 김태환 박미경 김우영
최신규 오행아 최정애 박옥자 김국태 송원식 신효진
조장은 김지연 김영순 김재남 이경자 신재옥 현은주
박주순 정복희 최병열 구희현 유정옥 김혜정 김명군
박현주 이선영 김은지 장혜림 윤연수 남성우 남하은
정근숙 고유덕 이동길 김은영 전유형 김태봉 황정숙
이재민 박선정 조주연 최 근 나명선 최현정 신재순
김년순 정현순 선경이 박주식 김영현 김주식 류석기
김지우 곽노중 채근숙 김석순 이화자 이순옥 지혜진
문군수 최철희 김금자 이정은 이상은 이상일 김명숙
이석중 곽경미 하정혜 이상민 최시현 김현정 강금숙
임영주 이수경 김소현 박수현 공은경 김종은 김도연
전혜선 이문정 박경남 손원태 한호섭 임영현 한태용
지상춘 조동호 조호연 노민희 한경연 최익용 이원덕
손영섭 유우근 장윤덕 안철웅 조영수 김영식 장희천
김진건 이홍권 김정훈 안희정 이경보 일선정 최재석
조대희 이경미 허 현 안민희 김종수 최정욱 박상규
남계철 정옥선 노국철 지준숙 박선숙 황규남 박복순
삼재신 김상희 이은주 서연미 홍은주 김혜은 홍동식
문제희 양평자 김준형 김정복 정만희 박명숙 윤지덕
장윤덕 한영주 우연실 송수형 강은경 양비성 유정분
신효영 황혜영 박만재 강정희 김희연 양지연 곽은정
신윤희 박정아 김윤주 박세미 김서린 김지인 박진희
김성우 유인철 이성환 권태수 김동혁 조승연 박경가
김준현 김덕규 박태민 홍상준 이순태 김경혜 오태자
김미선 배경애 유봉남 이성준 김순애 박상원 오병두
듄홍대 안성준 최형규 한성태 노종욱 홍시진 김동현
노준기 김정호 이선옹 김선정 김은경 강현정 김혜영
김경희 김경환 김남훈 김은하 김윤정 김경희 김경희
서간난 김금수 신복금 권순옥 조종희 김선옥 김복희
진산희 김은희 유형주 성기석 정지욱

보덕학회

김경미 홍정희 정경순 차영모 김찬홍 이은우 한계원
조문미 이상구 정기호 고인성 최연영 홍현숙 김미형
서용원 박정환 안보현 조용열 박영부 최원갑 권경희
이상만 하병호 이창석 김경찬 송경숙 김성은 이상준
최정범 김효린 박 수 박숙희 홍옥표 정원필 정준희
이승호 조래필 박현숙 최지환 정연주 전득근 예민영
김기린 김종선 박찬효 김원동 이유성 성능현 최홍규
김원호 박길제 정이숙 이인화 주성하 유숙영 황영희
김홍주 정태훈 김장경 이상협 안보권 노용권 이미영
신성애 전용석 김정수 황종선 허대권 정진석 최정독
정용만 박희정 오미심 김정순 김수남 이영구 김희경
윤정협 송미정 박경균 송지순 이규희 박희원 한진희
신연식 신규석 황인아 신규진 민봉기 배석봉 민병호
권승애 김수희 김수경 김선미 심한보 이윤희 오윤구
정지원 김덕곤 박향국 이정숙 김정미 홍진표 김인영
이수갑 하형봉 김희옥 민경덕 남광우 임운정 강경아
일지현 강윤선 임병로 이준기 최희연 이숙희 이숙영
상현숙 이영은 윤용형 김옥자 김금순 이병선 이지희
심규현 김문환 이승희 안희주 이은화 전 준 홍충인
성민순 김은정 정규성 정선화 김순옥 정대옥 조현숙
황상연 김부영 유정자 권혜진 서동권 이왕구 김정순
김신애 박미선 이소현 이소희 김태환 박미경 김우영
최신규 오행아 최정애 박옥자 김국태 송원식 신효진
조장은 김지연 김영순 김재남 이경자 신재옥 현은주
박주순 정복희 최병열 구희현 유정옥 김혜정 김명군
박현주 이선영 김은지 장혜림 윤연수 남성우 남하은
정근숙 고유덕 이동길 김은영 전유형 김태봉 황정숙
이재민 박선정 조주연 최 근 나명선 최현정 신재순
김년순 정현순 선경이 박주식 김영현 김주식 류석기
김지우 곽노중 채근숙 김석순 이화자 이순옥 지혜진
문군수 최철희 김금자 이정은 이상은 이상일 김명숙
이석중 곽경미 하정혜 이상민 최시현 김현정 강금숙
임영주 이수경 김소현 박수현 공은경 김종은 김도연
전혜선 이문정 박경남 손원태 한호섭 임영현 한태용
지상춘 조동호 조호연 노민희 한경연 최익용 이원덕
손영섭 유우근 장윤덕 안철웅 조영수 김영식 장희천
김진건 이홍권 김정훈 안희정 이경보 일선정 최재석
조대희 이경미 허 현 안민희 김종수 최정욱 박상규
남계철 정옥선 노국철 지준숙 박선숙 황규남 박복순
삼재신 김상희 이은주 서연미 홍은주 김혜은 홍동식
문제희 양평자 김준형 김정복 정만희 박명숙 윤지덕
장윤덕 한영주 우연실 송수형 강은경 양비성 유정분
신효영 황혜영 박만재 강정희 김희연 양지연 곽은정
신윤희 박정아 김윤주 박세미 김서린 김지인 박진희
김성우 유인철 이성환 권태수 김동혁 조승연 박경가
김준현 김덕규 박태민 홍상준 이순태 김경혜 오태자
김미선 배경애 유봉남 이성준 김순애 박상원 오병두
듄홍대 안성준 최형규 한성태 노종욱 홍시진 김동현
노준기 김정호 이선옹 김선정 김은경 강현정 김혜영
김경희 김경환 김남훈 김은하 김윤정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정동 이현주 조진락 한미경 한순덕 조희정
손은정 김정희 조은임 박현정 김인숙 박은정 권오영
한기현 임옥자 윤간난 김용훈 김진숙 김정숙 배철후
최종락 김분순 김상섭 이재주 이병순 김병천 김태순
박종희 이은화 하선자 김경자 최옥련 황해숙 김순정
김인숙 김영주 김창자 이재랑 정용순 정재금 박권생
서경화 정용식 김정태 곽경옥 이영숙 문재원 표영희
우선보 최태영 이은홍 박은희 조혜영 이희락 송종필
이현숙 송성현 손순애 이동식 정영자 이상희 이은자
유은수 최필선 강순하 안경매 설옥선 이진술 김영희
김매화 박경화 이영숙 정재숙 박성희 김재태 신옥순
이성숙 강종순 정화성 장정기 김혜숙 정재숙 권귀옥
김은주 조금영 김옥묘 이재의 이재호 권영준 이송자
유양자 유재자 김영순 이비오 진정호 김성환 손경미
이경아 김연정 이명순 최주성 이상훈 박천선 이경화
송해림 한정은 김경동 김연숙 김종신 이선희 김은주
신순선 김문경 얼은선 정경희 방용식 채주영 김광호
임은희 박재현 김성희 김 욱 김설구 김영렬 강정민
신현아 이성학 이지은 이효준 오정석 성한숙 박준호
홍선희 정광원 하진숙 최연희 임현태 이경우 박두화
박영아 윤옥희 성은미 권기룡 황재필 류연하 최은주
김진석 이우석 이미향 노용수 김재준 박동성 한정우
윤석호 장만수 김경희 신진숙 이철효 지유원 정혜림
이승지 김선희 김준애 이지향 김지영 한승이 이소영
도은이 우혜정 김장우 김수정 임준환 김성민 정수근
김동규 김감호 조성우 예명순 김영준 예병철 김미화
이승선 이혜정 김은실 홍승덕 김옥희 김성민 정수근
이승선 이혜숙 김은주 김수정 임준환

특집 — 겨레의 얼, 세계의 자랑, 경주를 지킵시다 ⑦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

"도심통과 백지화하고

허 연 소보원 박양석 방경수 장해권 장영순 최명성
이행숙 김판용 윤석용 이경수 성낙경 이기창 이 숙
이고은 이지훈 이세현 김명자 송승규 방창원 고영자
박진숙 이철규 기성우 이경희 이경우 원강의 기우태
이현두 김정원 소인영 권순우 김종철 박정자 김강의
김정희 김명일 김병기 이경자 강태룡 김우연 유영옹
민경덕 민효원 최방국 최종걸 최유미 전경수 김병화
전혜리 전혜원 홍의순 주유론 이명자 주우진 주성희
최재원 손중현 김병숙 오정한 이영순 이분남 박순호
박화심 유종곤 이정우 유병자 유상철 이한규 신선자
이이일 이순분 이순례 김나연 손성옥 남오로 설미영
심현규 강대영 심은철 심중섭 심범섭 이춘희 이영희
박희철 이연순 오화자 김연옥 홍선준 박용석 조연기
신경옥 임은희 임은환 양경모 정정옥 박종기 강태섭
박정월 김민식 김우식 조용순 정판남 정갑순 최상문
정근상 정필자 최옥선 김정예 유근희 고정흔 박동숙
김청룡 이인상 홍배진 유정자 박유신 연영자 권영자
신인조 김대준 박종우 안영규 이복임 김기숙 정은자
정우순 임동숙 윤숙자 이계화 이숙자 김원국 김진분
김현종 김민종 강민재 이 순 강성미 강선화 김화남
이현정 김점자 박화자 강정여 양순옥 권중옥 권태련
최 순 안병일 임정길 양순례 이경희 권용조 고숙자
박경률 유희건 장은배 유영석 장대준 이오순 유효순
김명덕 김미선 강애순 박완승 이규선 임덕중 이정임
한우득 정경미 김중교 조차장 박유경 박주현 박경희
박은주 박성희 박성범 안태정 지영태 배경수 최승종
조귀자 지정자 박복임 김현순 서정국 이용순 임인자
고영례 박찬근 이은주 박수진 김도영 나명애 김현아
장동현 나영돈 정근창 소영숙 심복자 김순애 정현석
정지선 정지은 정병덕 김은희 나상준 나상훈 최은희
최영옥 최은정 곽생길 현수진 김동분 정하용 민경덕
고옥희 장석중 양태석 정재용 장우은 정구욱 장구필
정구범 김화자 정구철 정우용 노영준 나명복
김제환(경북 상주여상) 김은영 이말순 김호영 김경아
박은영 송명옥 박해남 오미콘
박정미 김수진 여성숙 박선화 박선화 박선혜 김옥희
김주선 윤미옥 노현정 김순남 박순희 김현숙 박인숙
김인식 신이진 장영래 박정혜 김원희 최진옥 정찬희
정선휘 김문효 권미숙 박무영 김정아 최영미 유선화
윤미경 박은숙 김미애 권미애 권현주 류미정 이지은
전희정 이소현 심성렬 주미정 윤광복 박영미 권지연
이영주 박혜정 박선화 박미선 이순정 전우정 이미숙
김정난 박옥희 윤지영 김정애 정희진 최영옥 이해선
안정분 이은미 김태희 김순열 이정은 이연희 이영애
장나실 김정화 문운향 고영난 김연희 정연정 성유선
김미옥 한현숙 이하진 이영애 강현정 이유리 장현희
김혜영 박정선 고은주 정원경 이정희 이은경 서지미
전성숙 고혜진 김제환 이은주 최미혜 손춘심 신현주
김민화 양미경 김지훈 배은미 박정순 은선하 김광준
황경숙 한수경 조선주 배윤아 장경숙 김명희 신은희
노은순 김영남 김선화 이현숙 조혜경 김은주 이혜숙
최현화 김춘희 박미순 임근혜 김경희 김혜경 영글희
조은정 유종수 신현경 전정자 김원경 박정숙 김남숙
김영미 김혜영 이유미 구지희 박정영 김현정 최미향
박경희 김선애 민수옥 이영미 이정희 김미정 김효남
도귀영 손미숙 황경희 박희정
송광사 경 경 김준일 김수산 우지운 김동욱
열 혜 연 각 우희종 이미류 이재국
구유경 추동진 하수용 오규한 은경희 최은자 변진관
안후상 홍성민 김현인 최장진 주구용 김희태 허정희
김화길 송은숙 유진선 정선아 현 지 전미업 박근우
설재석 유태환 이순득 재인선 대 경 영 탄 장인화
종 지 임규철 류재동 고영섭 심재관 정영순 정은숙
이미라 허갑진 배선희 최진선 이현정 김혜순 갑태홍
변진수 박춘희 이성운 일 명 연 봉 일 상 일 대
도 연 한 북 가 함 념 우 도 강 식송원 강진철
본 각 도 선 본 일 도 성 김현인 차호원 김선경
최인옥 김선경 홍장숙 정진아 김은정 노경숙 김지연
한윤희 서소영 강현자 김경현 최윤희 정혜란 손보훈
박진성 김경숙 이효순 이혜원 최경미 박금자 하경주
강정숙 신경옥 류정이 이연경 곽정미 최정선 홍지영
전 진 최예경 김미라 최정선 홍지영 전 진 최예경
김미라 송은정 강원선 이명희 김미경 강창구 정은주
조정련 서혜란 배해옥 김영선 김순옥 이정숙 한선옥
강리화 김정희 이진희 김주영 서지은 이은영 김경선
이선희 이영인 임은정 노현숙 김영미 박세영 문정화
이은숙 김정자 양혜진 정숙정 박경희 하지영 박경희
하지영 지은정 조현종 신현욱 이희예 박남국 정성도
임동선 임란원 임재홍 정종진 임병구 임양효 김종란
김선홍 김정종 최주희 박한나 강종은 이은성 김미영
김수성 홍미정 최용석 이주임 장선혜 윤정순 이정화
윤금순 김수진 김선우 강성화 안은진 고경일 강서영
여 진 이경진 김경민 이미애 손숙진 조은진 홍성윤
김효정 김영미 최영란 정은경 김정남 김정희 김종희
김주영 김난희 김윤인 김하영 임혜진 이정선 박일선
최숙영 정학희 권혜정 이미화 윤정화 김지영 조혜영
안숙경 전준애 박주영 최선화 김민영 김현진 이진주
강미정 조성숙 김현숙 곽수현 박상민 김수연 김정자
김운자 성순임 안경분 김은경 배영숙 정혜영 윤문정
이명진 이은경 정미영 박숙순 조현주 김선화 권윤경
성진영 류건숙 정인근 김매자 이순일 윤은향 황선화
정효정 환경자 이미라 김현숙 김경숙 김주영 손영선
최은희 최정민 박수연 김현희 김미정 김미숙 박은희
이선자 최현숙 박미정 서수희 신수정 김남정 신현주
은미경 박은희 권미애 권현주 류미정 이지은 박은정
이은영 임영심 장인숙 김정열 강창실 조근기 조수민
조은아 박혜숙 남혼동 김석민 김택성 이상우 이민호
윤성화 문정례 허영호 김재홍 이종환 이현정 김미선
김경순 이은미 허경애 이지연 이은정 최인숙 김미진
김효영 김미자 이지애 권현주 류미정 이지은 박은정
차경선 김미옥 장은영 장인숙 강지영 김복주
도동주 고혜진 김수진 이성자 민경숙 이윤혜 김은희
김민정 서은정 박광숙 이영주 김은정 안수정 윤은경
여지혜 김지인 류순화 허순복 김경숙 김주연 권남경
권영숙 박성자 이미옥 김혜진 민준배 김종순 류진희
정원진 배지숙 김경숙 이소영 이상미 안혜진 이주현
배승희 김미진 안미영 박은정 김현진 안현정 김민영
김선희 박은숙 이은주 박은미 김경남 김미숙 이경희
김선희 이은상 홍원표 이계화 이경자 김원국 김진분
신인조 김대준 박종우 안영규 이복임 김기숙 정은자
장우순 임동숙 윤숙자 이계화 이숙자 김원국 김진분
김혜준 김은희 김명희 배은숙 정미자 김현진 이진주
이행숙 김판용 윤석용 이경수 성낙경 이기창 이 숙
이고은 이지훈 이세현 김명자 송승규 방창원 고영자
박진숙 이철규 기성우 이경희 이경우 원강의 기우태
이현두 김정원 소인영 권순우 김종철 박정자 김강의
김정희 김명일 김병기 이경자 강태룡 김우연 유영옹
민경덕 민효원 최방국 최종걸 최유미 전경수 김병화
전혜리 전혜원 홍의순 주유론 이명자 주우진 주성희
최재원 손중현 김병숙 오정한 이영순 이분남 박순호
박화심 유종곤 이정우 유병자 유상철 이한규 신선자
이이일 이순분 이순례 김나연 손성옥 남오로 설미영
심현규 강대영 심은철 심중섭 심범섭 이춘희 이영희
박희철 이연순 오화자 김연옥 홍선준 박용석 조연기
신경옥 임은희 임은환 양경모 정정옥 박종기 강태섭
박정월 김민식 김우식 조용순 정판남 정갑순 최상문
정근상 정필자 최옥선 김정예 유근희 고정흔 박동숙
김청룡 이인상 홍배진 유정자 박유신 연영자 권영자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

특집 — 「예외의 얼, 세계의 자랑, 경주를 지킵시다 ⑦

우회노선 선택을…"

현연수 박민손 양 기 최영준 김경복 박귀상 이원구
강항구 박건태 우영화 장수창 주종진

보광사

남경생 정삼례 남창식 류성자 김정록
이수장 김장순 조선순 김영숙 김승택 우장구 이하상
양공원 박동님 배보희 김백애 하문식 조보연 박희영
경태인 하연자 김영자 윤복지 박재학 이숙하 하연실
조 순 곽순희 정만순 박근자 임지영 정구순 나석규
정구선 정구창 정순용 구해우 조순남 감선자 김정숙
백보행 최정태 문승자 선금인 방오동 김현순 이순예
선계영 우란철 김승택 조옥자 박무영철 홍지순 이미경
안복희 류영순 안용련 이상남 윤영자 박영순 최영기
연마자 정재호 장진원 임용택 양해한 오정순 서수동
김복자 김애란 임근수 이만옥 한덕수 유영성 금정순
정금식 김상숙 김시택 서승배 임택성 김인애 김진호
정미순 윤경식 여정연 홍호근 우정자 백경인 문용숙
구경실 조경미 김우준 김운규 방영필 김수진 이석동
문종수 손은숙 방의제 방민정 정동표 임봉빈 최은규
안일순 김영숙 박명준 김성주 이재철 김추만 김영지
김지숙 최한철 김성우 이진형 홍정기 윤여숙 김영운
김동수 이지민 이하나 박완기 백정현 서영숙 김종집
김해경 김대선 김경구 유지영 김홍자 최향묵 문설희
이준호 이 준 송도근 이영호 박종순 박근수 손홍언
서성희 이은주 엄길훈 이성호 이형주 신동원 채복기
한혜옥 김은중 조신자 이희주 이준환 이도형 강성호
윤민정 김지석 박향숙 박정자 김상민 이숙자 오승래
유권영 조정원 송영선 유병일 유병애 조용일 심상보
신은보 은치욱 은치은 임정조 황성희 조민정 조영신
윤정희 유정명 권나원 정희영 문미혜 박호인 박승재
사금남 박원재 옥순자 박병연 이재숙 김금주 차진옥
허정환 백나래 윤원용 김상희 김상미 정경남 유병영
나행화 박순손 신경은 박해수 서선희 이소현
채수관 강 림 이창한 유미정 이정수 정의숙 김정진
김형수 류인석 심숙자 오세정 김영복 박광식 김춘화
이상비 임미숙 이종호 박종순 이혜정 조준배 방효영
손혜정 장재선 김종덕 손홍기 김창한 이정숙 김용률
손상기 임대환 이미희 김상호 윤종대 김순자 이태경
김수호 장재숙 박상련 안재련 김희선 공창규 태덕호
김기준 좌은택 최추재 서종대 안현자 안미행 안삼미
김인식 윤병주 이미원 선연희 선순규 김병주 김원식
김희분 정순례 김기환 김옥자 이희선 이정숙 최용환
박남호 서태용 이하명 배종주 배병현 김광민 조현자
설계영 우란철 김승택 조옥자 박무영철 홍지순 이미경
안복희 류영순 안용련 이상남 윤영자 박영순 최영기
연마자 정재호 장진원 임용택 양해한 오정순 서수동
김복자 김애란 임근수 이만옥 한덕수 유영성 금정순
정금식 김상숙 김시택 서승배 임택성 김인애 김진호
정미순 윤경식 여정연 홍호근 우정자 백경인 문용숙
구경실 조경미 김우준 김운규 방영필 김수진 이석동
문종수 손은숙 방의제 방민정 정동표 임봉빈 최은규
안일순 김영숙 박명준 김성주 이재철 김추만 김영지

'문학의 해'를 나의 해로

불자작가 창작 열기 고조

"문학의 즐거움을 국민과 함께"

'문학의 해' 공식 표어다. 문학의 즐거움을 독자들에게 심고 가꾸어 함께 나누려는 '문학의 해' 주인공들인 작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첨단미디어등 영상물에서 감각적인 즐거움을 찾고있는 국민들의 관심을 '문학'으로 되돌리기 위해 작가, 특히 불자 작가들이 올해 야심작들을 잇따라 펴낼 것으로 알려져 '문학의 해'를 일구는 붐조성에 한 몫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0권의 작품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진 고은 시인. 시집 〈만인보〉 3권과 소설 〈선(禪)〉을 추가로 더 낼 예정이며 소설 2권, 평론집과 산문집 등을 잇따라 펴낼 계획으로 있다.

〈삼국유사〉를 쓴 일연스님을 주인공으로 한 장편을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자료를 모아온 남지심씨는 全 3권으로 마무리될 〈담무갈〉(가제)을 3분의 1쯤 쓰고 있다.

일연스님의 출가때부터 63세 대장경 완성 회향법회까지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몽고난을 배경으로 엮어지게 된다.

제로 한 2천5백매 가량의 장편을 여름쯤 출간계획으로 집필중에 있다.

기인작가로 알려진 이외수씨는 10대 20대 60대의 등장인물

고 은 산문집 평론집 등 10권 예정

남지심 '일연스님' 주인공 장편 집필중

백금남 등 만드는 사람 삶 소설로

이외수 자전소설 '나' 구상…개인전도

김성동 바둑소설 '국수' 1부 마무리

한승원 '아제아제 바라아제' 보완

우봉규 염전지대 무대 장편동화 준비

정찬주 '정도전' 관련 역사소설 구상

백금남씨는 오는 초파일쯤 등(燈) 만드는 사람 이야기를 주제로 한 불교 장편소설을 선보인다. 그는 또한 '환생'을 주

들을 내세워 세대적 삶의 형태를 보여주는 자전적 소설 〈나〉(가제)를 준비중이다. 그림에도 일가견이 있는 이외수씨는 올해 개인전과 더불어 화집도 출간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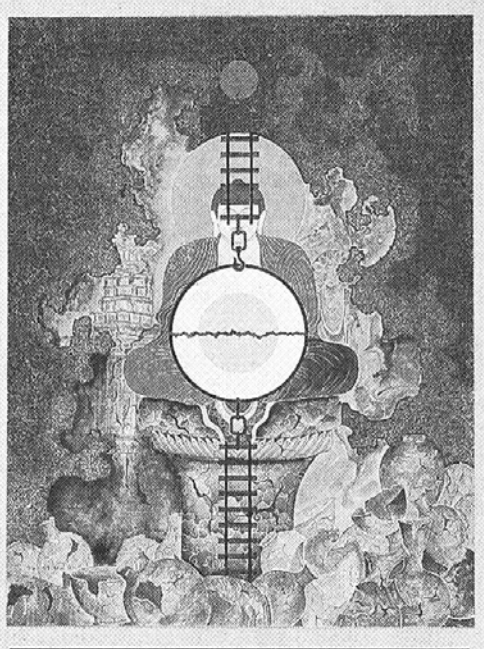
바둑을 소재로 한 〈국수(國手)〉를 4권 낸 바 있는 김성동씨는 올해 2권을 더 써 1부 6권을 마무리한다.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승원씨도 대표작중 하나인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보완해 오는 11월경 5권으로 완간한다.

우봉규씨는 오는 3월 4번째 소설을 낸다. 빈 절(寺)을 무대로 한 〈푸르고 푸른 그대〉라는 진솔한 사랑이야기. 우씨는 또한 2월에는 염전지대를 무대로 한 장편동화 〈물새야 물새야〉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해 〈훨훨〉을 낸 바있는 정찬주씨는 월간 '불교'지에 연재했던 소설 '관세음보살'을 책으로 묶어 내며 현재 조선초 개국공신 〈정도전〉을 주인공으로 한 역사소설 〈혁명의 땅〉(가제)을 구상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



고속철도 경주통과반대 지상전

서보룡 作 공심(空心)

불교영화 카루나 3월1일 개봉



서울 스카라극장에서 개봉된다. 〈이은자 기자〉

한국영화사상 최초의 몽고 현지 로케, 옥소리 삭발 등 숱한 화제를 뿌렸던 영화 카루나(감독 이일목)가 1년여의 촬영을 마치고 지난 15일과 19일 시사회를 가졌다.

우리문화의 전통계승과 통일이라는 주제를 비문의 여인 순임과 도예공의 아들 종길을 중심으로 펼쳐나간 영화 카루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이별을 겪어야 했던 민족의 아픔과 한을 이산가족 상봉의 마지막 장면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극적전개의 비약, 이산가족 상봉 컴퓨터 그래픽처리 등 일부 미흡한 점도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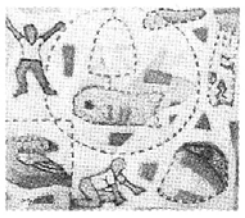
영화 카루나는 오는 3월1일

국립창극단 '구운몽' 26일까지 공연

국립창극단(단장 전황)이 '구운몽'을 공연한다. 김만중이 1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한 이번 창극은 24일~26일 매일 오후7시에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막이 올려진다.

이번 무대에서 안숙선이 8선녀중 제1선녀로 분해 극 전반을 설명하며 주도하는 도창역을 맡았다. 국립창극단은 93년 한국의 음악극축제와 대전엑스포 공연에서 첨단기술을 이용해 꿈과 현실, 천상과 수중 세계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해 격찬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구름다리, 부처님의 영상 등으로 무대효과를 살린다.

(02)274-1172~3



◇ '輪-지금 우리는…'

김영선씨 첫 개인전 모시베의 조형미 연출

모시베와 바느질에 의한 점선으로 새로운 조형적 모색을 시도한 김영선씨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공평아트센터 1층 전시실에서 첫 개인전을 갖는다. 36점이 소개되는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輪-지금 우리는…'.

김영선씨는 이번 작품전에서 화면의 기본구조를 이루는 기하학적인 이미지를 중심으로 인물 학 거북이 오리 소 등 동물들의 형상을 약화 형태로 자유롭게 배치해 세상만물의 공존 원리를 깨우쳐 주고 있다. 또 여러 형상과 함께 등장하는 목어(木魚)는 그 형태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불교의 자기성찰의 상징적인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

문봉선씨 '설악산展'

2월3일까지 학고재 화랑

전통 한국화의 현대적 변용을 추구해온 한국화가 문봉선씨(인천대 미술학과 조교수)의 '설악산展'이 2월3일까지 관훈동 학고재 화랑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93년 '북한산' 연작전 이후 2년만에 선보이는 '설악산전'에는 천불동 계곡, 대청봉, 장군봉, 폭포, 봉정암 등 설악산의 사계를 담은 진경산수 80점이 전시되고 있다.

설악의 기개와 기품이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되어 사계절 천변만화가 거칠게 또는 부드럽고 단아하게 표현되어 있다.

(02)739-4937

동방불교대 '만봉불화연구소' 설립

태고종 동방불교대학에 '만봉불화연구소(가칭)'가 설립된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48호(탱화) 만봉스님(봉원사)의 전통고유기법 및 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전통미와 현대미 접목을 시도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만봉불화연구소는 동방대 불화과 4년 졸업자에게 이수증도 준다.

이와관련 실무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불화과 최성규교수는 "이달내로 세부시행규칙을 마무리하고 3월1일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룡사 10년불사 사진전

구룡사 10년불사회향 사진전이 이달 28일까지 구룡사 1층 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목탁소리

정당불교회는 선거용인가

정성운 〈취재1부 기자〉

15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역사바로세우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김영삼대통령과 신한국당, 정계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정치전면에 나선 김대중씨, 신보수세력의 결집을 표방한 김종필씨 그리고 3김 청산을 이슈로 내걸고 있는 민주당 등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서서히 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각 정당이 귀기울여 들어야 할 얘기는 '정당불교신도회는 선거용인가'라는 소리이다.

각 정당불교신도회는 9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결성됐다. 의정활동에 불교계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 불교계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는 '해결사'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또 정기법회와 사찰순례를 통해 당원들의 신심증장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물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자표를 모은다는 득적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각 정당불교신도회는 한마디로 유명무실하다. 정당에 문의하면 오히려 그런 모임이 있었느냐고 반문하는 지경이다. 지난해 10월 창립한 자민련 불교신도회만이 매월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정당에 불교신도회가 있어 소속원들의 신행활동을 이끌고 불교권익을 지키겠다는 데에 반대할 불자들은 없다. 그러나 선거를 전후한 시기에만 '반짝' 활동하는 것은 분명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사고도 남는다. 정작 불교를 사랑하는 순수한 불교인들은 정당불교회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불교라는 이름을 두고 정당과 불자들 사이의 불신의 골만 깊게 파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이 시점에서 정당관계자들의 뒤돌아봄이 요구된다.

방송가소식

대구BBS 주파수 94.5mHz 청주BBS 주파수 96.7mHz

불교방송 대구 경북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설조스님)는 지난 15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오는 4월 완공되는 대구 진각회관(대구시 중구 대봉동 156-1) 8층 1백81평을 불교대구방송의 연주소(사무실)로 임대 사용키로 잠정 합의했다.

불교 대구방송은 1월 말경 주파수 94.5mHz의 사용허가를 받을 예정이며 출력 3kw로 대구 일원 경북 일부지역을 가청지역으로 흡수케 된다. 이에따라 불교대구방송 추진위는 팔공산 공군 유휴 송신탑을 불교방송, 대구 평화방송, 한국이동통신등 3사가 공동으로 개보수해 사용키로 결의했으며, 오는 1월말 1차 시설기기발주와 함께 신입 및 경력사원공채도 서울, 부산, 청주등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불교대구방송 추진위는 방송국 설립 추진성금이 15일현재 4억9천3백7십8만원이며 진각종에서도 동참을 결의 2억원을 출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불교방송도 주파수 FM 96.7mHz로 오는 말경 정부의 최종 허가를 받아 전파를 띄우게 된다.

"안방부처님 모시기 동참을"

불교TV '2천만불자 원력 하나로' 특집 방송

불교TV는 제3차 불자주식공모확산을 위한 특집 좌담 "2천만 불자, 원력을 하나로!"를 지난 19일 방송했다.

"2천만불자, 원력을 하나로!"는 이정부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조계종 포교원장 성타스님, 현대불교신문 최정희 편집국장, 그리고 불교TV 이호 경영관리국장이 참석, 불자주식공모를 통한 '안방부처님 모시기'에 전 불자의 신심어린 동참을 강조했다.

이날 프로그램에서 포교원장 성타스님은 "월하종정스님과 총무원장 월주스님도 이미 불교TV의 주주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종단을 비롯 스님들과 재가불자가 한마음으로 불교TV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불교TV가 포교와 전법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시청자확보 등의 문제도 성공적인 주식공모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좌담자들은 입을 모았다. 불교TV 제3차 불자주식공모는 불자들의 관심속에 오는 2월말까지 계속된다.

btn BBS 성도절 특집 다채

불교TV와 불교방송은 오는 27일 성도절을 맞아 특집프로그램을 마련했다.

btn ▲특별법회 (27일 오전 10시10분)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 할 수 있는 방법과 참다운 불자의 길을 걷는법에 대해 월운스님이 특별법문을 설한다.

▲특집좌담 '깨달음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27일 오전 11시10분) 유명인사와 함께 성도절의 의미와 출가에서 열반에 들기까지의 부처님의 발자취를 통해 의미를 모색한다.

BBS ▲특집좌담 '깨달음의 사회화를 위하여' (27일 오후 5시10분) 깨달음의 사회화 방법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지를 가늠해 보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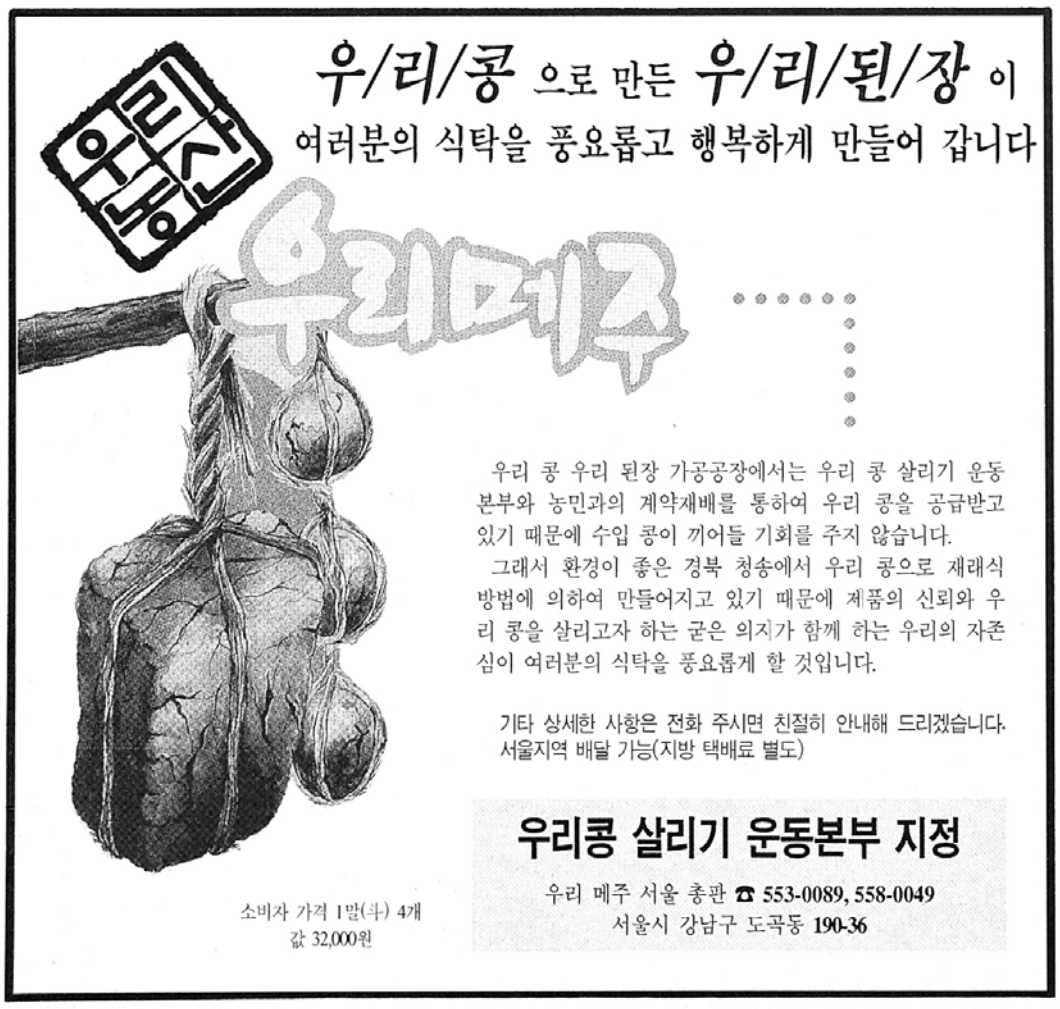
▲특별법문 '깨달음의 의미' (28일 10시5분) 성도절을 맞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케 하는 큰스님 법문시간.

▲특집 다큐멘터리 (27일 낮 12시5분) 티벳인들이 성지순례를 통해 얻는 인생의 행복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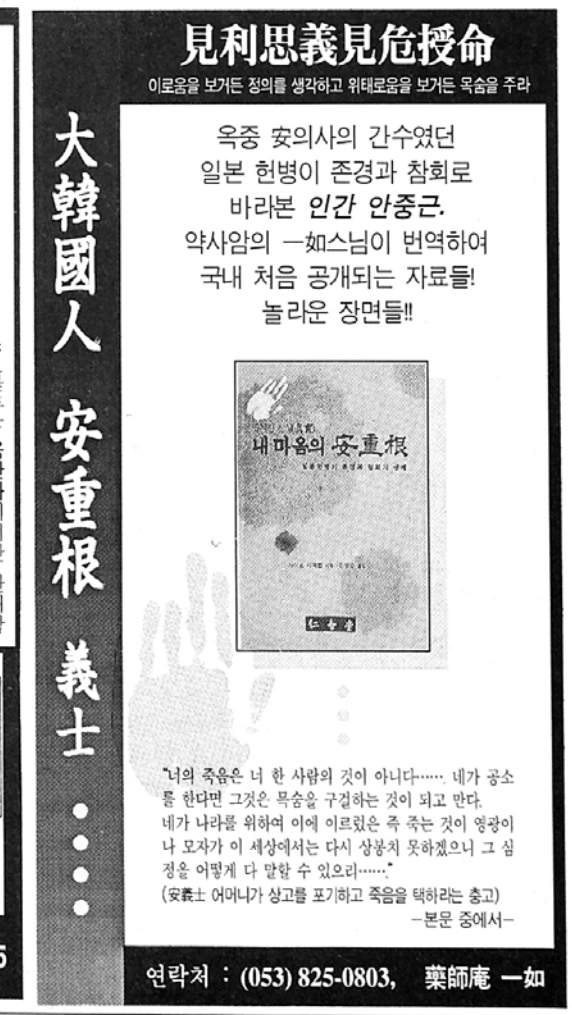
부산BBS 1주년특집 준비 '분주'

불교부산방송은 오는 2월1일 오전 8시 30분 개국 1주년 특집 불국토의 아침을 필두로 '깨침의 소리, 널리 퍼지소서' (오전 9시5분)를 마련, 불교 부산방송 개국 1주년의 기쁨을 함께 나눌 계획이다.

개국 한돌을 돌아보며 불교포교에 있어서의 방송의 역할을 진단하는 '불교부산방송 1년을 돌아보며' (오후 2시 10분)와 곽만연 교수(동아대)가 진행하는 '반야의 샘' (오후 4시 10분) 이 출연자들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불교부산방송은 개국축하 1주년 기념법회를 당일 오후 5시30분 부산 코모도호텔 충무홀서 서암스님, 불교부산방송 우관수 사장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할 계획이다.







"무의탁 노인들 아픔 함께 나누어야죠"

'나눔의 집' 3년째 의약품 보시 **홍수천 · 문정숙** 약사부부



◇간절한 기도로 딸 연화를 낳은 홍씨부부는 무의탁노인들에게 의약품을 보시하며 보살행을 펴고 있다.

방 2칸 전세 살면서 '둘아닌 한마음' 실천

전쟁이 할퀴고 간 상흔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아픔을 겪은 정신대 할머니들. 그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노후를 의지하고 있는 '나눔의 집'(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3년째 묵묵히 의약품을 보시하고 있는 불자가 있어 추운겨울에 훈훈한 미담이 되고있다.

포항시 오천읍에서 새보건약국을 경영하는 홍수천(35)·문정숙(30)씨 부부는 어머니를 봉양하듯 진통제, 소화제, 청심환, 파스 등의 의약품등을 나눔의집에 제공해 왔다.

"할머니 한분에게 나오는 생활비가 월 10만원인데 비해 들어가는 한달 약값은 15만원이 넘는답니다. 할머니들은 겪은 아픔만큼이나 깊은 지병을 하나씩은 앓고 계십니다. 특히 신경통과 위장병이 심한편이지요.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같은 홍씨부부의 의약품 보시는 대학동창이자 나눔의 집 원장인 혜진스님으로부터 그들의 실정을 듣고부터.

"아직은 마음만 앞설 뿐입니다. 아무리 약을 정성껏 드린들 마음의 상처야 아물겠습니까?"

홍씨부부는 나눔의집뿐 아니라 무의탁노인들이 기거하는 '아가페의 집'에도 자비행을 펼치고 있다.

또한 홍씨부부는 약국손님 가운데 노인들에게는 대부분 무료로 약을 지어준다.

이렇게 숨은 보살행을 펴고 있는 홍씨부부는 정작 약국에 이어져 있는 방 2칸짜리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

홍씨는 여동생이 스님으로 출가할 정도로 독실한 불교집안이다. 이들 부부가 신심이 더욱 깊어진 것은 간절한 기도로 딸 연화를 낳은 때부터라는 홍씨는 "앞으로도 둘아닌 한마음 도리로 살아가겠다"고 말한다.

〈포항=이윤호기자〉

중학 불교교과서 검인정 못받아

교법사단 · 교육연 '경기도 교육청 직무유기' 주장

중학교 불교교과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육위원회의 검인정을 받지 못한채 불교교육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불교교육연합회는 2년전 남양주군 광동중학교를 통해 경기도 교육청에 중학교 불교교과서의 검인정을 신청했다. 이에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심의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는채 '구교과서를 사용해도 된다'며 검인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불교교육연합회는 '검인정심사를 하지 않게된 경위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경기도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며 연말에 서울이나 부산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검인정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진각종 위덕대 헌공불사

재단 새 이사장에 혜일 종의회의장

진각종립 위덕대(총장 손제석)는 지난 16일 공학관 대강의실에서 교직자 1백여명등 진언행자 9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공불사를 갖고 위덕대를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발전시킬 것을 발원했다.

이날 헌공불사에서 위덕대 손제석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명문종합대를 지향하되 결코 백화점식 학과배열이 아닌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를 선도하는 3대 특성화 정책을 통해 2005년까지 내실있는 종합대학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2일 개교하게 되는 위덕대는 4백명을 뽑는 첫 신입생모집에서 4천4백81명이 지원 12:1이라는 경이적인 경쟁률을 세웠으며 경주시 강동면 25만여평 부지에 불교학과를 비롯한 정보화사회를 구현하는 9개학과가 개설돼 있다.

한편 이날 열린 회당학원 임시이사회에서 새 이사장에 혜일 종의회의장이 선출됐다.

대구 첫 청소년 수련관 마하야나문화원 운영

대구에 최초로 건립되는 청소년수련관을 불교계가 위탁운영한다.

대구 수성구청은 (재)마하야나불교문화원이 무상제공한 수성구 황금동 일원 대지 2천5백여평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 위탁 운영자로 마하야나문화원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월 개관을 앞두고 주변조경과 진입로 포장공사가 한창인 수련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가동과 지상 1층 나동등 2개동으로 건립됐다.

예산 2억7천만원 의결

대불청 대의원총회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지난 14일 부산불교신도회관에서 제33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의원 의장 선출,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사단법인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재적 대의원 1백18명중 73명이 참석한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는 배영진 전 중앙회장이 참석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제18대 대의원 의장으로 피선됐다. 대의원 총회는 또 △만해스님 기념사업 △출판, 홍보사업 △교육, 연수사업 등 주요사업에 소요되는 2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법장(수덕사 주지)스님을 부총재로 추대했다.



◇네팔노동자 5백여명이 지난 14일 불자모임을 결성하고 새해맞이 한마당 잔치를 펼쳤다.

네팔불자모임 14일 창립

국내체류 노동자 신행활동 모체 기대

네팔불자들의 모임(Nepal Buddhist Family)이 지난 14일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창립됐다.

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회장 이설조, 안동일)이 지난해 4월 개설한 외국인노동자마을의 외국인불자법회에 참여하는 5백여명의 네팔노동자들로 구성된 네팔불자모임(회장 인드라구릉)은 참립법회와 함께 새해맞이 문화 한마당 잔치를 마련, 결속을 다졌다.

이날 행사는 네팔 고승 세츄린포체(붓다 다르마센터 원장)와 칼상라 스님의 법문으로 시작, 여법하게 진행됐다. 2부에서는 네팔의 새해맞이 전통의식인 로사(LHO SAAR)가 이어졌고, 3부에서는 지방별 성씨별 풍습소개와 춤 노래공연이 펼쳐졌다. 또 네팔 전통노래와 악기가 연주돼 외국인 노동자들의 흥을 돋궜다.

한편 이번 네팔불자모임은 네팔노동자에게 뿐만아니라 국내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의 신행활동의 모체가 될 것으로 보여 관계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귀순용사 후원키로 광명선원 신도회

광명선원 신도회는 지난 20일 북한귀순용사 한용수씨를 후원키로 하는 인연식을 가졌다. 광명선원장 초격스님은 "이번 인연식은 불교계에서 처음있는 일"이라며 "단신 귀순한 한씨의 올바른 신앙생활과 사회적응을 적극 후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씨는 작년 6월 귀순 정부기관의 보호기간을 마치고 지난 16일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팔만대장경 글자수 5천2백80만자 확인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총글자수는 5천2백80여만자이며, 그동안 2만 2천여자로 알려졌던 서체수는 이보다 많은 3만4백50여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표준자 이외의 속자·약자등 이체자(異體字)역시 지금까지 알려진 1천2백74자보다 훨씬 많은 1만4천2백여자로 확인됐다.

해인사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와 삼성문화재단은 2년여에 걸친 팔만대장경 전산입력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발표하고 앞으로 있을 교정작업에서 3천자 이상의 이체자가 더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승가대 김포학사 비행기소음 심각

서울도심보다 7배… 수업 수행 차질 "이전 고려해야"

중앙승가대학이 추진중에 있는 김포학사가 김포공항의 비행기 이착륙시 들려오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수업과 수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사이전을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포학사가 위치할 곳은 경기도 김포군 풍무리 산 159-1번지 외 5필지. 김포학사와 근접해 있는 금성공업사(풍무리 3-1)가 지난 92년 풍무리일대에서 실시한 항공기 소음도 측정에 따르면 김포학사 일대의 소음이 평균 78~80WECPNL(항공소음기준·일반 소음측정기준으로 65~67dB에 이른다. 이는 서울 광화문지역보다 10~15dB 높은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수치는 평균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비행기가 김포를 지나는 북쪽 항로를 택할 경우 소음 최고치가 100 WECPNL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포공항 이착륙 비행기는 하루 평균 5백90여대. 항공기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비행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소음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미뤄 국립환경연구원 소음진동과 관계자들은 "45dB 이하로 하는 학교의 소음한도에도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수업진행에서는 교수와 학생으로부터 많은 인내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스님들의 차분한 수행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음에 따른 난청도 초래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환경전문가들은 "3중 방음창, 냉방기기 설치 등의 국소적인 소음방지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정밀한 환경영향평가 후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조계종 종회 산하 승가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성문스님)는 22일 항공기 소음실태를 확인하기위해 김포학사 현장답사를 실시한다. 〈김포=도필선 기자〉

개운사 시왕상 복장 도난

지난 9일 서울 성북구 개운사의 시왕상 복장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한편 조계종 총무원과 사찰측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번에 도난당한 복장물은 명부전의 전륜대왕, 평등대왕, 우관대왕, 변성대왕, 초강대왕, 지장보살등 6불상의 것으로 조선시대 전반기 유물로 추정되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사료가 없어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는 않았다.

총무원과 개운사측은 빠른 시일내 협의를 거쳐 전문조사반을 구성 정확한 실태조사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을 경우 체계적인 관리체계도 세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정사 산중총회 적법

종정감사특위, 합의위원위촉

지난 18일 조계종 종정감사특위는 월정사·관음사·용주사 감사건에 대해 종헌종법에 따라 처리하라는 원칙을 정하고 월정사건에 대해 합의위원을 위촉, 합의토록 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법규위원회는 지난 5일 한암문도회가 심판 청구한 월정사 산중총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관례상 미비된 점이 없지 않으나 지방종정법 제1장 6조 2,3항에 근거해 위법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환경교육원 '집없는 미아 신세'

입주 사무실 철거… 전세금 7천만원 절실

(사)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스님, 765-6324)이 거리로 나앉을 지경에 처했다.

환경교육원은 현재 입주해 있는 서울 명륜동2가 93번지가 재개발로 3월초 철거됨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새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7천만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마련치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 88년 개원 때부터 입주해 있는 이곳은 보증금 1900만원, 월세 10만원으로, 이 금액으로는 사무실과 강의실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 40평규모의 장소를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 가회동의 한옥을 교섭중이나 전세금이 7천만원에" 이르러 도움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환경교육원은 전문적인 환경강좌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환경교육단체로, 환경문제를 불교적인 세계관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믿음과 수행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 쉬운 불교책!



"불보살의 가피 !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신국판 / 5,000원

祈禱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

이에 일타스님은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된다.

Ⅰ.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Ⅱ.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Ⅲ.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Ⅳ.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Ⅴ.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Ⅵ. 기도인을 바른 길로

참된 자유와 깨어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는 대자비 법문

범망경보살계

제1~5권 / 신국판 / 각권 320면 내외 / 각권 6,000원

≪범망경보살계≫는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이신 일타큰스님께서 수십년 동안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무애변(無碍辯)을 기록·편집한 책이다. 5부의 대작(大作)으로 보살계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한 장광설(長廣說)의 대자비 법문이다.

이미 보살계를 받으신 분, 대승불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 본래의 마음자리로 되돌아가 참된 깨달음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십시오.
무명의 업장이 걷히고 한없는 공덕이 생겨날 것입니다.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신국판 / 4,500원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큰스님 자신과 가족·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엮은 책. 이 책을 읽다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법공양문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스님께서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감로법문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
듣는 것 만으로도 깨달음의 세계에 젖어들고 환희심이 일어나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불자들의 입문서 ≪초발심자경문≫ 세권의 해설서, 드디어 완간!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으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깊고 넓은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될 것이다 값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 강설집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알기 쉽게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줄 것이다 값 5,000원

아운비구의 ≪자경문≫ 강설집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스님이 적절한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해설했다. 불자의 신심과 원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갈리주는 신행의 나침반이 될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뿍 담긴 자재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값 5,000원

범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3 팩스 : (02) 586~9078

건강백세 ②

스트레스·호르몬 이상·잦은 샴푸탓

탈모

머리카락이 나오는 데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깊이 관여하는데 탈모증은 유전적으로 이 호르몬의 분비체계가 일반인과 다르게 입력되어 있다. 성기능과 발모기능이 절묘하게 조화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탈모가 일어난다. 그래서 정력과 연관 지우는 속설이 생겼는지 모른다.

이런 경우 노력 여하에 따라 약간의 시간적 지연은 올라도 피하거나 치료하기 힘들다. 열병이나 항암제 치료 후에 빠지는 경우는 원인질병의 해소나 적절한 치료로 원상 회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모근부의 감염으로 인한 경우나 비듬증상의 경우로 인한 탈모도 적절한 치료를 통해 회복된다.

비듬은 분비된 지방질과



먼지나 오염물질이 결합하는 것도 있겠으나 대개는 지나친 세발로 건조해진 두피에 대상성(代償性)으로 피지선(皮脂腺)이 과잉분비되는 경우와 손톱에 긁힌 상처에 일반세균이나 결핵균의 감염으로 유발될 수 있다. 옛부터 유황성분이 함유된 비듬약이 효과를 보는 것 같다. 지나친 세발과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요즘 많이 보이는 원형탈모증은 스트레스나 신경성으로 인한 것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의학에서는 "모발은 신(腎)에 속하는 것"으로 신기부족하면 탈모나 백발화된다고 하였다.

요즘은 모발 수난시대이다.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많고 외부에서의 공해도 만만치 않다. 자하철, 버스속 등 먼지 많은 곳을 다녀오면 가볍게 씻어 주는 것이 좋다. 중금속가루, 지하에서 나오는 광물성 먼지나 방사성 가스 또는 석유화학 제품이나 이들의 부산물 등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노리는 것이다. 또 한가지 명심할 사항은 머리를 감을 때 너무 자주 샴푸를 하여도 탈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지를 별로 접하지 않는 경우는 2~3일에 1회 중성 샴푸나 비누로 가볍게 감는 것이 좋다. 비듬이 나온다고 매일 샴푸를 강하게 하면 두피는 더욱 건조해져서 가려움증을 유발시키고 탈모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탈모약 광고가 요란하고 식모술(植毛術 - Hair planting)이 일반화되고 있어 어느정도 효과를 보겠으나 근본적으로 규칙적 생활과 음주 흡연 약물과다 무절제한 성생활 등으로 부터의 탈피와 진액 정수를 보강하면 유전적 돌발증이 아니고서야 탈모는 회복된다고 본다. 낙망할 일만은 아니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저 너머에 행복이 ②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종단협의회장상〉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던 날 버스 창밖 건물 꼭대기를 보는 순간 卍자가 내 가슴으로 '쿵' 하고…



공무원은 진급도 더디고 월급도 적어서 계속 해봐야 별 수 없다면서 친구에게 보증도 서고 자금도 투자해서 동업으로 멧돼지 바베큐집을 시작했다. 워낙 동물을 싫어했던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지만 남편의 고집이 보통을 넘는 수준이었기에 내가 지고 말았다. 그대신 회사는 6개월쯤 지나 가게 운영 상태를 보면서 퇴직하기로 상의 했었다.

나는 장사에 소질도 없었고 남편 역시 세상물정을 전혀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었다.

내 예상대로 멧돼지 가격은 폭락했고 잠자는 보기좋게 망하고 말았다. 남은 것은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빚뿐이었다. 신용보증을 서준 남편은 월급까지 차압을 당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모든일이 엉키게 되었고, 나는 남편을 미워하다 못해 증오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남편만 믿고 살 수가 없었다. 불어나는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돈을 벌기 위해 부업을 시작했다.

새로 이사한 집에는 우리딸 애와 같은 학년인 여자아이가 있었다. "은주는 학업성적이 부진한 편이어서 과외를 했으면"하고 안집 주인이 부탁을 해왔다.

또래 아이들을 안주인이 몇명 모아주었다. 그래서 나의 과외수업인 부업이 시작됐다.

2년만에 상계동으로 이사를 했다. 공무원 아파트를 얻게 되어 입주비는 얼마들지 않았다. 젊은 주부들이 많이 모인 아파트단지에는 교육열 또한 대단했다. 이곳은 황금어장이었다. 이제부터 정말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잔뜩 부풀었다. 다른 학원보다 회비를 싸게 받는 대신 여러명을 한팀으로 하고 여러팀을 요일별로 나누어 가르치기 시작했다. 수업은 작은 우리집에서 시작했고 정말 열심히 가르쳤다.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가면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소문에 소문이 퍼져 아이들은 늘어났고 우리집에 들어오려고 한두달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기다리는 어머니들도 생겼다.

나는 열심히 살았고 돈도 열심히 모았다. 남편의 빚도 갚아야 했고 좀더 큰집도 마련해야 했다. 학생들의 머리수가 모두 돈으로 계산되었다. 내눈은 돈독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남편에 대한 원망감은 날로 커져만 갔다. 내몸이 힘들어 지고 지쳐갈때 나 자신에 대한 회의가 느껴졌다.

'나는 무엇때문에 사는걸까?'

전혀 내 생활도 없이 작은 집에 앉아서 돈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 측해 보였다.

꿈도 많았고 가능성도 많았는데 누구 때문에 시집와서 오늘날까지 헐떡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모든 원망은 남편에게 쏟아졌고 지금까지의 결혼생활이 후회스러웠다. 결코 이것은 내 삶이 아닌데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하는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남편과 더 많은 대립이 생겼다. 남편에 대한 미움이 커지면서 시집식구도 모두 싫어졌다. 차츰차츰 마음속에는 나를 지키기 위한 장벽이 가려지고 있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기에 겉옷을 한겹한겹 덧입기 시작했다. 내 옷의 무게가 가중 될수록 내 안의 나는 점점 황폐해지고 메말라 갔다.

그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사천왕사라는 포교원을 찾았다.

그날도 버스를 타고 가면서 무심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갑자기 건물 꼭대기를 쳐다보는 순간 卍자가 내 가슴속에 '쿵'하고 박혀지는 섬뜩함을 느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떠 밀리듯 버스에서 내려서 그 건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처음 만난 주지스님은 작은 체구에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이셨다. 젊은 스님의 날카로운 눈빛은 내 마음속을 들여다 보는듯 강한 인상을 느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웠을 때 상계동으로 이사를 왔듯이 사천왕사 주지스님도 처음 포교원을 개원한 탓으로 모든 형편이 어렵고 힘든 모습이었기에 더욱 친밀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었다.

불만으로 가득차있던 나는 항상 입을 코옥 다문 채 법당에 앉혀시 왔다가 법회가 끝나면 조용히 돌아가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했었다. 가슴속은 화탕지옥이었으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모든 괴로움을 내 몫인양 짊어지고 다녔다. 형제들은 나에게 경년기 현상이 빨리왔다고 놀려댔지만 나는 무관심 해버렸다.

정초 7천배 기도정진에 동참하면서 신도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기도의 기쁨을 알기 시작했다.

오체투지의 의미에서 하심의 진실을 배웠고 흐르는 땀방울과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는 오열들은 두껍게 쌓였던 내 업장을 조금씩 조금씩 녹여가고 있었다.

이희명화
〈서울시 노원구 상계8동〉

♦ 'I take refuge in the venerable Gotama and in the Dhamma and in the Assembly of Bhikkhus. I wish to receive the pabbagga. I wish to receive the upasampada (the robe and the orders) from the venerable Gotama,' so said Kasibharadvaga.

"저는 고타마 당신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도를 닦는 스님들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저는 고타마 당신곁에 출가하여 완전한 계율을 받겠습니다."

♦ Then the Brahmana Kasibharadvaga received the pabbagga from Bhagavat, and he received also the upasampada: and the venerable Bharadvaga having lately received the upasampada, leading a solitary, retired, strenuous, ardent, energetic life, lived after having in a short time in this existence by his own understanding ascertained and possessed himself of that highest perfection of a religious life for the sake of which men of good family rightly wander away from their houses to a houseless state.

이렇게 해서 밥을 가는 바라문 바라드바자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㉓

는 부처님 곁에 출가하여 완전히 계율을 받았다. 그 후 얼마되지 않아 이 바라드바자는 사람을 멀리하고 홀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침내 더없이 청정한 행의 궁극을(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 집을 나와 집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인데) 현세에서 스스로 깨달아 증명하고 구현하며 살았다.

♦ 'Birth had been destroyed, a religious life had been led, what was to be done had been done, there was nothing else (to be done) for this existence,' so he perceived, and the venerable Bharadvaga became one of the arahats (saints).

"태어나는 일은 이제 끝났다. 청정한 행은 이미 완성되었다. 할 일을 다 마쳤다. 이제 또 다시 이런 생존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깨달았다. 그리하여 바라드바자 장로(長老)는 성인(聖人)의 한 사람이 되었다.

*upasampada 구족계 (빠알리어)
*strenuous 분투하는 열심인 (=*ardent)
*ascertain 확인하다, 명백히 하다

오종욱 기자

황색승복 (下)

니웻 깐타이랏 〈태국〉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내게 있어 외로움은 점차 그 힘을 잃기 시작했다.

외로움은 매일의 일상과 함께 엷어 졌고 나는 절이라는 이 새로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여러가지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나, 스님의 성직 수임식 때에 여자들이 많이 왔군요."

한 젊은 승려가 찾아와 내 수임식 때의 사진을 보고 말했다. 그는 사진 속의 여자 가운데 어느 것이 내 애인의 얼굴이냐고 물었고 나를 매우 귀찮게 했다.

"환속하는 것은 내게 문제가 됩니다. 나는 배운게 없어 하루 새 끼니도 해결하기가 힘드니까요."

계속되는 여자얘기에 진저리치며 내가 그에게 환속을 거론했을 때 그는 이런 답을 이어서 했다.

"어렸을 때부터 사미승이 되었고 한번 약 반 달정도 환속도 했었지만 국민학교 4학년이란 학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승려가 되었답니다."

"다시 환속하실 생각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하지 못할…"

그리고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그 승려를 보지 못했다. 그날밤 우리는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다. 그 젊은 승려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들었다. 그 승려의 생활은 오늘날 태국의 불교를 [illegible]의 구렁텅이로 끌어 내리는 한부분이 될 것이다. 그는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더 이상 승려작에 남아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계속 절을 은신처로 삼고 있는 것은 불교를 더럽히는 행위만 될 뿐이다. 만일 불교계가 이러한 승려들로 가득 찬다면 태국의 불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자에 관심을 갖고 재물을 탐내며 파벌을 만들어 휩쓸리는 현장에서의 1개월 나는 이제 환속할 시간이 되었다

나를 못견디게 외로움 속으로 몰아 넣었던 고요함과 정적은 이제 내가 참선하고 정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온갖 고뇌와 번뇌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환속할 날이 가까와 오자 도리어 섭섭한 기분이 들었다.

"환속하면 독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닛스님의 이말에 나는 자신있게 그에게 독경을 해 보였다. 나나 그가 그것이 태국어로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한달간의 수도생활. 그것은 내 불심을 키우기 보다는 태국불교의 실상을 겪는 생활이었다. 속세의 젊은이와 같이 여자에 관심을 갖고 재물을 탐하고 파벌을 만들어 휩쓸리는 현장에서 나는 이제 환속할 시간이 된 것이다.

"환속하려 해도 신도들이 대신할 사람이 없다고 만류하니… 나처럼 나이 먹은 승려는 일을 할 수 없는데도 신도들은 젊은 승려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네…"

주지스님의 이 말에 대해 나는 전적으로 동의했다. 한달간의 승려생활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불교에 대한 신심도 적지 않게 잃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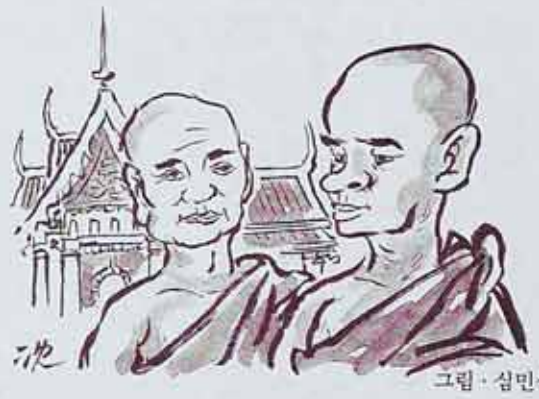


그림 · 심민섭

생활 속의 불교 ㊽

꿈 · 그림자 · 영화장면 그리고 현상

꿈을 꾼다. 꿈 속에도 사물 · 경계가 다 있다. 나도 있고 대상도 있고 사건도 있다. 경험자로서의 느낌도 있다. 눈물이 있고 공포가 있고 기쁨과 웃음도 있다.

깨어보면 분명 꿈인데도 생시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보고 듣고 움직이고 느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꿈과 생시는 어떻게 다른가. 꿈은 다만 그렇게 느끼는 허상이고 생시는 실제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한다면 가장 상식적인 답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금강경은 말한다. '형상이란 모두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닌 줄 알면 바로 여래를 볼 것이다.'라고. 보이고 들리는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니고 허망한 것이라면 꿈 속의 형상과 하등 다를 바 없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시라고 하는 시간도 실은 꿈 속이라는 말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생시로 알고 있는 이 꿈에서 다시 한번 깨어나야만 한다는 말인가.

영화를 본다. 스크린에 비친 온갖 형상이 자못 현란하다. 주연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 사랑과 증오, 희노애락 등이 마치 현실처럼 여겨진다. 박수를 보내고 눈물도 짓는다.

그러나 스크린에 비친 영상은 빛과 필름이 합성해 낸 허상이지 실상은 아니다. 실상인 촬영현장은 이미 지나가고 없다.

우리가 꿈에 겪는 형상과 스크린 상의 영상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생시에 보는 형상도 스크린 상의 허상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생시 또한 꿈 같고 영화장면 같은 것에 다름 아니다.

경전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실제한다고 믿는 이 현상계는 꿈 · 허공 꽃 · 물거품 ·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한다.

꿈도 꿈이고 생시도 꿈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스크린에 비친 영상 속에서



그림자 배우들처럼 사랑하고 미워하고 울고 웃고 있는 셈이다.

안 · 이 · 비 · 설 · 신 · 의에 비친 모든 현상들이 참이 아니요 허상인 줄 알면 바로 여래를 볼 것이다. 즉 깨달음의 자리에 든다고 했다.

하지만 보고 듣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모든 현상들을 어떻게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가?

모든 현상, 형상은 의식의 투영, 마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화면에 비춰진 영상이 다름아닌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필름의 조작에 의해 만들어지듯이 현실의 모든 현상도 의식 · 마음의 변화에 의해 나타날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림자 · 거품 같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현실은 단지 나의 업식이 필름처럼 돌아가면서 만들어 낸 꿈 같은 영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현상이 실상이 아닌 허상인 것을 아는 주체, 경험자 또는 지켜보는 자, 관찰자는 누구인가?

그런 꿈 같은 형상을 나타나게도 하고 사라지게도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화면의 영상은 빛을 비춤으로써 나타난다. 그러나 빛은 그저 비출 뿐 영상을 조작하지 않는다. 화면의 상이 갖가지로 달라지는 것은 빛 때문이 아니라 필름에 인화된 모양 때문이다.

현상계의 갖가지 영상도 마음 · 의식의 투영 때문이다. 빛은 그저 비출 뿐이다.

빛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나타나게도 사라지게도 하는 근원의 빛—바로 참나요, 영원한 생명이요, 주인공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것을 믿고 잊지 않는 것이 불법공부의 바른 길이다.

협찬: 김 선 정